

2020

기본연구 2020-03

2020 전북형 행복지표

연구진 김동영 · 최윤규 · 송용호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0-03

2020 전북형 행복지표



연 구 진

연구 책임 김 동 영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 연구 최 윤 규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송 용 호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20GI0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5
제2장 행복 개념과 측정	7
1. 행복에 관한 개념	9
2. 행복 측정 지표	11
제3장 전북 2020년형 행복지표 구상	15
1. 전라북도 행복지표 개발 사례	17
2. 타시도 행복지표 사례분석	23
3. 2020년형 전북형 행복지표 구상	52
제4장 2020년 전라북도 행복현황	57
1. 주관적 행복감	59
2. 경제	67
3. 가족관계	78
4. 건강	82
5. 사회적관계	91
6. 문화여가	99
7. 복지	108
8. 안전	115

9. 주거	122
10. 환경	127
11. 비교지표	135
12. 2017년-2020년 전북의 행복도 비교	150
제5장 전북 행복지표 시사점	159
1. 전라북도민 행복요인 분석	161
2. 행복정책 연계방안 모색	170
제6장 결론 및 제언	185
참고문헌	191
부록 설문지	195

표 목 차 | Contents

- 〈표2-1〉 행복측정지표 주요내용 비교 13

- 〈표3-1〉 국내외 행복지표 공통분야와 전라북도 원탁회의 결과비교 17
- 〈표3-2〉 전라북도 행복지표 체계 18
- 〈표3-3〉 전라북도 행복지표 7대 분야 우선순위 19
- 〈표3-4〉 전주형 행복지표 체계 20
- 〈표3-5〉 서울형 행복지표 구성체계 24
- 〈표3-6〉 부산 시민행복지표 구성체계 28
- 〈표3-7〉 부산 시민행복지표의 정책활용 31
- 〈표3-8〉 대전형 행복지수 체계 34
- 〈표3-9〉 강원도 행복지표 체계 36
- 〈표3-10〉 강원도민의 주관적 차원 행복지수 분석(10점 만점) 38
- 〈표3-11〉 강원도민의 객관적 차원 행복지수 분석(5점 만점) 38
- 〈표3-12〉 충청북도 행복지표 체계 40
- 〈표3-13〉 충청남도 행복지표 체계 42
- 〈표3-14〉 제주도 행복지표 체계 45
- 〈표3-15〉 타 시도 행복지표 체계 종합정리 47
- 〈표3-16〉 전라북도 행복지표 2017년-2020년 비교 53
- 〈표3-17〉 전라북도 행복지표 분야의 2017년-2020년 변화 55
- 〈표3-18〉 전라북도 행복지표 세부지표의 2017년-2020년 변화 55
- 〈표3-19〉 전라북도 행복지표의 2020년 새로운 지표 55
- 〈표3-20〉 2020년 전라북도 행복지표 체계 56

- 〈표4-1〉 조사 설계 59
- 〈표4-2〉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60

〈표4-3〉 전라북도 도민 의식 수요조사 분석 설계 (가중치 부여)	60
〈표4-4〉 전북 권역별 주관적 행복감	64
〈표4-5〉 고용의 안정성(직장을 잃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 ..	68
〈표4-6〉 소득만족도	69
〈표4-7〉 직업만족도	70
〈표4-8〉 좋은 일자리 인식(직업선택요인)	71
〈표4-9〉 주관적 소득 수준	72
〈표4-10〉 계층의식	73
〈표4-11〉 계층이동성	74
〈표4-12〉 연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75
〈표4-13〉 소비자 물가지수	76
〈표4-14〉 고용률 및 실업률	77
〈표4-15〉 가족관계 만족도	78
〈표4-16〉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지역별 평균시간)	79
〈표4-17〉 여가활동 동반자의 가족 비중도	80
〈표4-18〉 부모님과의 교류	81
〈표4-19〉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건강만족도)	83
〈표4-20〉 스트레스 정도	84
〈표4-21〉 의료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	85
〈표4-22〉 음주 및 흡연량	86
〈표4-23〉 건강관리 실천	87
〈표4-24〉 의료시설 수(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88
〈표4-25〉 의료서비스 이용율(종합병원)	89
〈표4-26〉 규칙적 체육활동 빈도	90
〈표4-27〉 사회적 관계망 정도	92
〈표4-28〉 사회에 대한 신뢰도(이웃에 대한 신뢰도)	93
〈표4-29〉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94
〈표4-30〉 친구관계 만족도	95

〈표4-31〉 학교생활 만족도	96
〈표4-32〉 자원봉사 참여율	97
〈표4-33〉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	98
〈표4-34〉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100
〈표4-35〉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101
〈표4-36〉 문화여가시설만족도(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여부)	102
〈표4-37〉 예술행사 만족도(인구 십만 명당 문화예술활동 현황)	103
〈표4-38〉 여가활동 빈도	104
〈표4-39〉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105
〈표4-40〉 문화여가시설 개수(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106
〈표4-41〉 문화여가비용(한 달 평균)	107
〈표4-42〉 사회보장만족도(사회보장 여건변화)	109
〈표4-43〉 노후준비정도	110
〈표4-44〉 자살충동정도(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111
〈표4-45〉 복지서비스 만족도(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112
〈표4-46〉 보육시설 만족도(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113
〈표4-47〉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노인 천명당 노인복지시설 수)	114
〈표4-48〉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116
〈표4-49〉 범죄로부터의 안전 만족도	117
〈표4-50〉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만족도	118
〈표4-51〉 범죄 및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	119
〈표4-52〉 지역안전등급현황	120
〈표4-53〉 범죄발생건수 및 검거율	121
〈표4-54〉 주거환경의 전반적 만족도	123
〈표4-55〉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24
〈표4-56〉 주택가격(전세, 매매가격지수)	125
〈표4-57〉 대중교통접근성(대중교통접근시간)	126
〈표4-58〉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에 대한 만족도	128

〈표4-59〉 환경에 대한 만족도	129
〈표4-60〉 현재 체감환경(좋음만 표시)	130
〈표4-61〉 환경문제 인식	131
〈표4-62〉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결도(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32
〈표4-63〉 미세먼지(PM10) 등급별 일수	133
〈표4-64〉 초미세먼지(PM2.5) 등급별 일수	134
〈표4-65〉 행복을 위한 연평균 소득 정도	135
〈표4-66〉 행복을 위한 가족과의 시간	136
〈표4-67〉 건강관리를 위한 규칙적 체육활동 정도	137
〈표4-68〉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138
〈표4-69〉 여가활동 정도	139
〈표4-70〉 사회보장제도의 여건 변화	140
〈표4-71〉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교통사고	142
〈표4-72〉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화재	143
〈표4-73〉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범죄	144
〈표4-74〉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자연재해	145
〈표4-75〉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감염병	146
〈표4-76〉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147
〈표4-77〉 행복을 위한 미세먼지 좋은날	148
〈표4-78〉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149
〈표4-79〉 주관적 행복감 비교	150
〈표4-80〉 난처한일 당했을 때 도움 지인 비교	150
〈표4-81〉 사항별 주관적 만족감	151
〈표4-82〉 전북도민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151
〈표5-1〉 2017년-2020년 행복지표 대영역의 우선순위 비교	167
〈표5-2〉 2017년-2020년 행복지표 영역별 세부지표 우선순위 비교	168
〈표5-3〉 행복영향평가 방식	173

〈표5-4〉 소득분야 지표 비교	175
〈표5-5〉 가족관계분야 지표 비교	176
〈표5-6〉 건강분야 지표 비교	177
〈표5-7〉 사회적관계분야 지표 비교	177
〈표5-8〉 문화여가분야 지표 비교	178
〈표5-9〉 사회안전분야 지표 비교	179
〈표5-10〉 복지서비스분야 지표 비교	180
〈표5-11〉 주거분야 지표 비교	181
〈표5-12〉 환경분야 지표 비교	182
〈표5-13〉 정서분야 지표 비교	183

■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3-1〉 서울시 행복비전체계(안)	25
〈그림4-1〉 가중값 설정	60
〈그림4-2〉 성별 응답자 분포	61
〈그림4-3〉 거주 지역별 응답자 분포	61
〈그림4-4〉 소재 지역별 응답자 분포	62
〈그림4-5〉 연령대별 응답자 분포	62
〈그림4-6〉 혼인상태별 응답자 분포	63
〈그림4-7〉 연평균 가구소득 분포	63
〈그림4-8〉 주관적 행복감 변화 추이	64
〈그림4-9〉 난처한 일 당했을 때 도움지인 여부	65
〈그림4-10〉 사항별 주관적 만족감	66
〈그림4-11〉 고용안정성 연도별 변화 추이	68
〈그림4-12〉 소득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69
〈그림4-13〉 직업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70
〈그림4-14〉 전북의 좋은 일자리 인식 변화	71
〈그림4-15〉 전북의 주관적 소득수준 변화 추이	72
〈그림4-16〉 전북의 계층의식 변화 추이	73
〈그림4-17〉 전북의 계층이동성 변화 추이	74
〈그림4-18〉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규모 변화 추이	75
〈그림4-19〉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 추이	76
〈그림4-20〉 고용률 및 실업률 변화 추이	77
〈그림4-21〉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변화 추이	79
〈그림4-22〉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의 추이변화	80
〈그림4-23〉 건강만족도의 추이변화	83

〈그림4-24〉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음의 추이변화	84
〈그림4-25〉 의료서비스 만족도 추이변화	85
〈그림4-26〉 의료시설 수 추이변화	88
〈그림4-27〉 의료서비스 이용율 추이변화	89
〈그림4-28〉 전북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도	92
〈그림4-29〉 직장 동료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94
〈그림4-30〉 친구관계 만족도 변화	95
〈그림4-31〉 학교생활 만족도 변화	96
〈그림4-32〉 자원봉사 참여율 변화	97
〈그림4-33〉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변화	100
〈그림4-34〉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변화	101
〈그림4-35〉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변화	102
〈그림4-36〉 문화예술관람 변화	105
〈그림4-37〉 문화여가시설 개수 변화	106
〈그림4-38〉 사회보장여건 좋아짐의 변화	109
〈그림4-39〉 노후준비정도 변화	110
〈그림4-40〉 자살충동정도 변화	111
〈그림4-41〉 사회복지시설 수 변화	112
〈그림4-42〉 보육시설 수 변화	113
〈그림4-43〉 노인복지시설 수 변화	114
〈그림4-44〉 안전시설 만족도 변화	116
〈그림4-45〉 범죄로부터의 안전 만족도 변화	117
〈그림4-46〉 자연재해 안전 만족도 변화	118
〈그림4-47〉 범죄 검거율 변화	121
〈그림4-48〉 미세먼지 좋음 일수 변화	133
〈그림4-49〉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 변화	134
〈그림4-50〉 5가지 사항별 안전도 현황	141

〈그림5-1〉 2020년형 행복지표 10대 영역별 중요도	161
〈그림5-2〉 2020년형 행복지표 10대 영역별 중요도(1순위)	162
〈그림5-3〉 2020년형 행복지표 10대 영역별 중요도(2순위)	163
〈그림5-4〉 2020년형 행복지표 10대 영역별 중요도(3순위)	163
〈그림5-5〉 경제적 만족지표 중요도	164
〈그림5-6〉 가족관계 만족지표 중요도	164
〈그림5-7〉 건강 만족지표 중요도	165
〈그림5-8〉 사회적관계 만족지표 중요도	165
〈그림5-9〉 문화여가 만족지표 중요도	165
〈그림5-10〉 복지서비스 만족지표 중요도	165
〈그림5-11〉 지역사회안전 만족지표 중요도	166
〈그림5-12〉 주거여건 만족지표 중요도	166
〈그림5-13〉 환경 만족지표 중요도	166
〈그림5-14〉 정서적 만족지표 중요도	166
〈그림5-15〉 부산시 홈페이지 행복지표 공개	170
〈그림5-16〉 영국 통계청 행복지표 공개	170
〈그림5-17〉 대전시민행복위원회 모집공고	172
〈그림5-18〉 전라북도 행복정책 환류체계	174

1

장

연구개요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지표로 삼고 국가를 운영해왔으나 2006년 OECD의 국가행복지수(National Index of Wellbeing)와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가 발간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국민총생산(GDP)으로 측정하던 국가나 도시발전의 척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 과도한 불평등을 수반한 GDP중심의 성장전략은 다수 국민의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국민행복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맞춰 정부정책도 국민의 행복 수준 개선을 위해 국정운영의 주요 목표중 하나를 국민행복 증진으로 설정하였다.
-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2016년 말 행복지표개발연구를 통해 전북형 행복지표를 개발하였고, 2017년에는 개발된 행복지표에 따라 도민의 행복도를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행복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북형 행복지표는 원탁회의에서 제기된 세대별 행복지표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를 16개 시도와 비교 가능하도록 사회조사지표를 중심으로 객관적 지표를 구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관적 행복지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행복지표체계를 마련하였다.
- 그러나 2017년 전북의 행복지표 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이후 도민의 행복에 대한 후속연구 및 행복도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된 환경과 정책에 따른 기 발굴된 전라북도 행복지표의 개선과 행복현황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주기적인 도민 행복도를 조사하여 도민 행복도의 추이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행복정책의 점검이 필요하며, 성장과 개발중심에서 도민의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전라북도 행복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연구 내용

가. 행복지표 개선을 통한 2020년 행복지표 구성

- 본 연구에서는 기 발굴된 2017년 행복지표체계를 개선하여 2020년형 전북행복지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행복지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행복의 개념을 정리하고, 시도별 행복지표체계의 구성과정과 활용방안들의 사례조사, 2017년 전북형 행복지표개발 과정의 검토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민의 실질적인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 2020년 행복도 현황분석 및 2017-2020 행복도 비교

- 전북 도민의 2020년도 행복현황의 분석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2020년형 행복지표로 구조화된 설문조사표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관적 행복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2017년도 주관적 행복감과 비교하여 전북 도민의 행복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 또한, 주관적 행복도와 더불어 국가통계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인 행복도의 비교분석을 병행하여 전라북도의 2017년과 2020년의 행복도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본 연구는 행복지표의 개선을 통한 2020년형 행복지표를 구성하여 2020년도 전라북도의 행복현황 분석을 통해 2017년도 행복현황과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행복도 변화요인을 도출하여 분야별 행복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는 2020년도 도민의 주관적 행복현황을 위한 설문조사와 사회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등 국가통계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 행복현황을 분석하여 2017년도 전북 행복도와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가. 주관적 행복도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 도민의 주관적 행복현황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14개 시군의 도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도 행복지표의 10대 영역과 영역별 세부지표의 우선순위, 현재 도민의 주관적 행복현황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분석된 2020년도 행복현황과 2017년도 주관적 행복감의 비교를 통해 전라북도의 행복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 객관적 행복현황 변화 분석을 위한 통계데이터 분석

- 전라북도 행복도의 변화 분석을 위해 사회조사를 비롯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공표된 통계데이터 등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통계데이터 지표의 활용으

로 전국 평균, 시도별 비교로 전북의 행복현황 위치를 분석하였고, 2017년도 기준 지표와 2020년도 기준 지표의 비교로 전북의 행복요인의 변화도를 분석하였다.

2

장

행복 개념과 측정

Jeonbuk Institute

-
1. 행복에 관한 개념
 2. 행복 측정 지표

제2장 행복 개념과 측정

1. 행복에 관한 개념

- 행복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볼 때 스스로의 의지로 찾아야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외부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는 행운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 왔으나 16-17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로 변화해왔다(우창빈, 2013). 또한 행운의 의미는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사라져가고 행복은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인간사회 내부의 좋은 일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박노동 외, 2016).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행복을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
- 행복은 주관적일 뿐 아니라 다의적인 개념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행복에 대한 접근방식도 다양하며,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각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이성규, 2006). 행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 분야만해도 심리학을 비롯하여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정책학 등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행복과 유사한 개념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에 대한 만족(Life Satisfaction)’, ‘안녕감(Well-Being)’,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정서적 안녕감(Emotional Well-Being)’,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이 다수의 유사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행복이 다양한 속성을 내포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며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행복에 대한 개념정의를 달라질 수 있다(김선아 외, 2018).

- 행복의 개념이 철학의 주제로만 여겨지는게 아니라 측정이 가능한 개념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건 디너(Diener)가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제안하면서 부터이다(E. Diener, 1984; 유나영 외, 2015 재인용). 디너(Diener)가 제안한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의 개념중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긍정 정서의 많은 경험과 부정 정서의 적은 경험 정도 등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후 Ryff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인의 노력(자기수용,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환경통제감, 자율성, 긍정적 관계)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심리적 안녕감’으로 정의하였다(Ryff, 1989; 이한녕 외, 2019 재인용). 한편, Keyes는 Diener(정서적 안녕감)와 Ryff(심리적 안녕감)가 제안한 개념이 개인적인 측면에만 치중되어있다고 비판하고,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사회적 수용, 타인에 대한 신뢰, 사회적 기여, 사회적 실현,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사회적 안녕감’으로 정의하였다(유나영 외, 2015).
- 행복을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하동균(2013)은 행복의 주관적 측면을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받으며 주관적인 평가와 인지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 성취감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객관적 측면의 경우 물리적인 구성요소로서 의식주, 건강, 성별, 연령, 교육 등으로 정의하였다.
- 행복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것으로 정의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있지는 않으나 삶의 질, 주관적 만족감 등과 유사한 의

미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행복의 개념은 사회과학에서 출연한 측정개념으로 대체되어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측정개념을 활용하여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행정자치부의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그리고 광역시도를 비롯한 지자체별 행복지수의 측정으로 정책적 연계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사용되어지고 있다.

2. 행복 측정 지표¹⁾

- 행복을 측정하는 유사지표로 행복지표, 사회지표, 삶의 질 지표, 환경 질 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이 있다.
- 행복지표와 관련한 지표는 부탄 국민총행복지수(GNH), 행복공식(영국BBC방송), UNDP 인간개발지수, 행복한 지구 지수(HPI) 등이 있으며,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 그리고 혼합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관점 중심의 지표는 행복공식, 행복도측정조사, 국민총행복지수 등이며 객관적 관점 중심의 지표는 UNDP 인간개발지수, 그리고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을 종합하여 함께 사용하는 지표는 행복한 지구 지수 등이다
- 이러한 행복지표는 상당수가 국가별 수준이나 순위의 비교를 하는데 매우 적합하게 설계되어 지역별 수준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사회지표는 인간의 가치체계 및 개발개념의 변화에 따라 국가 혹은 지역수준에서의 사회복지나 삶의 질 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영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경향에 관한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지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현가능과 이상적으로 바람직함의 균형을 잡는 것이

1) 고승희 외(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 재정리

며, 균형은 규범적인 고려사항, 해명이 필요한 사항, 프로그램 관찰과 평가 등을 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삶의 질 지표는 경제, 사회, 환경지표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국민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회개발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다. 삶의 질 지표에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고용, 생산성, 보건, 소득 등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는 신체적 건강, 심리적, 사회적 관계, 환경 등의 4개 항목과 24개의 세부척도로 구성되며, 전반적인 삶의 질과 건강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 환경 질 지표는 환경상태의 측정을 위한 지표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지표와 달리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경지표는 주로 공기 및 수질오염의 측정, 위험물질의 사용한도 측정, 폐기물처리, 야생동물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경제지표, 사회지표, 환경지표로 발달해온 사회의 성장이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미래지향적인 지표체계를 논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지속가능 범위와 함께 환경, 자원, 생태, 경제, 사회, 정치, 심리적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하며, 환경문제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수용능력 변화에 대한 관찰을 중요시 하는 특징이 있다.

〈표2-1〉 행복측정지표 주요내용 비교

구분	주요내용
행복 지표	주관적 관점, 객관적 관점, 혼합의 방식을 사용한 행복측정 - 주관적 관점 지표 : 행복공식, 행복도측정조사, 국민총행복지수 - 객관적 관점 지표 : UNDP 인간개발지수 - 혼합 관점 지표 : 행복한 지구 지수
사회지표	사회적 영역의 현재, 과거, 미래의 경향에 관한 상태 판단 기준 국가적 평균치를 나타내고 분석적 목적위한 세부구성의 필요성 제시
삶의 질 지표	경제, 사회, 환경지표를 포괄하는 전반적 국민생활수준 측정 자연환경, 생활환경, 보건, 소득, 고용, 교양 등의 항목 포함 한국 삶의 질 척도는 4개 항목과 24개 하부척도로 구성
환경 질 지표	환경상태의 측정을 위한 지표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대상 공기 및 수질오염측정, 위험물질 사용한다 측정, 자원고갈, 야생동물 관리등이 주 요 대상
지속가능발전지표	미래세대의 복지를 희생시키지 않고 현 세대의 복지를 만족시키는 발전을 의미 현상에 대한 기술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지표체계를 논하는 것이 기본 전제

- 행복을 측정하는 유사지표의 경우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하는 관점에서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행복을 측정하고 있으며, 사회지표 및 삶의 질 지표체계 등도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전라북도의 2020년형 행복지표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 각 영역별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적절히 구성하여 도민의 실질적인 행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장

전북 2020년형 행복지표 구상

Jeonbuk Institute

-
1. 전라북도 행복지표 개발 사례
 2. 타시도 행복지표 사례분석
 3. 2020년형 전북형 행복지표 구상

제3장 전북 2020년형 행복지표 구상

1. 전라북도 행복지표 개발 사례

가. 전라북도 행복지표²⁾

- 전라북도는 2016년 말 행복지표개발연구를 통해 전북형 행복지표를 개발하였고, 2017년에는 개발된 행복지표에 따라 도민의 행복도를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행복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북형 행복지표는 300여명의 도민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와 20여명의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세대별 행복지표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를 16개 시도와 비교 가능하도록 사회조사지표를 중심으로 객관적 지표를 구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관적 행복지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 국내의 행복지표의 공통영역을 추출한 결과 교육, 건강, 환경, 소득, 직업, 공동체, 가족, 시민참여, 삶의 만족, 문화·여가로 나타났으며, 원탁회의를 통해 도출된 주요 키워드는 가족, 건강, 문화·여가, 경제, 공동체, 주거, 환경, 주관적 만족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3-1〉 국내의 행복지표 공통분야와 전라북도 원탁회의 결과비교

구분	공통분야	전라북도 원탁회의	구분
1순위	교육	가족	1순위
2순위	건강	건강	2순위
	환경	문화·여가	3순위
3순위	소득	경제	4순위
	직업	소비	5순위
	공동체	이웃·공동체	6순위
4순위	가족	학교·직장	7순위
	시민참여	정부	8순위
	문화·여가	미래	9순위
	삶의 만족(주관적 웰빙)	가치(성취감)	10순위

자료 : 김동영 외(2017). 전라북도 행복지표 조사 및 정책연계방안. 전북연구원

2) 김동영 외(2017). 전라북도 행복지표 조사 및 정책연계방안. 재정리

- 원탁회의에서 도출한 분야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의 병합과 포괄적 분야는 세분화하는 작업을 거쳐 재조정된 분야에 국내외 행복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표를 전라북도 행복지표 분야에 포함하여 7개 분야 50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표3-2〉 전라북도 행복지표 체계

분야	세부지표	
주관적 행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전, 현재, 10년 후 행복감 ◦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 분야별 만족도(나의가치, 성취도, 미래, 도민자긍심, 이웃신뢰, 일할기회, 안전, 생활환경)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가구소득 ◦ 월평균 생활비 ◦ 가계부채 규모 ◦ 주관적 소득수준(상, 중,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의식(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 계층이동성(낮다↔높다) ◦ 소득만족도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 횟수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 문화여가시설 개수 ◦ 문화여가비용(한달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예술행사 만족도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정도 ◦ 자살충동 정도 ◦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음주 및 흡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 실천 ◦ 의료시설 수 ◦ 의료서비스 이용율 ◦ 의료서비스 만족도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만족도 ◦ 직장관계 만족도 ◦ 친구관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의 정체감 ◦ 사회적 관계망 정도 ◦ 자원봉사 참여율 ◦ 부모부양 태도
보건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만족도 ◦ 의료서비스 만족도 ◦ 복지서비스 만족도 ◦ 사회보장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준비 정도 ◦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 ◦ 사회복지시설 수
사회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만족도 ◦ 현재 체감환경 ◦ 환경문제 인식 ◦ 주택시세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 ◦ 범죄발생건수 ◦ 대중교통 접근성
근로(교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정성 ◦ 월평균 근로소득 ◦ 좋은 일자리 인식 ◦ 고용율 및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의 어려움 ◦ 직업(학교생활) 만족도 ◦ 월평균 교육비

자료 : 김동영 외(2017). 전라북도 행복지표 조사 및 정책연계방안. 전북연구원

- 전라북도 거주 도민 천여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7대 영역 중 행복의 중요도 1순위는 건강분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2순위 경제분야, 3순위 사회문화분야, 4순위 사회적 관계분야, 5순위 보건복지분야, 6순위 근로(교육)환경분야, 7순위 사회안전분야 로 나타남

〈표3-3〉 전라북도 행복지표 7대 분야 우선순위

중요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분야	건강	경제	사회문화	사회적 관계	보건복지	근로(교육)환경	사회안전

나. 전주형 행복지표3)

1) 개요

- 전주시는 사람과 품격을 강조하는 전주시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행복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행복지표의 개발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도를 관찰하고 생활밀착형 행복도의 측정 부분에서 활용이 높은 측면에서 전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복지표를 개발하였다.
- 전주형 행복지표의 영역과 문항의 도출은 행복과 관련한 문헌연구 조사,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세미나 등의 과정을 통해 경제, 고용, 주거, 복지가 포함된 물질적 영역, 교육, 건강, 교통, 환경, 문화여가, 안전, 가정/공동체, 정치/시민참여 영역의 비물질적 영역, 마지막으로 주관적 행복도로 영역을 구축하였으며 총 14개 영역 101문항을 도출하였다.
- 이후 전주시민을 대상으로하는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한 재조정 단계를 거쳐 총 12개 영역 92문항으로 전주형 행복지표체계를 개발하였다.

3) 김미옥 외(2016). 전주형 행복지표 개발·조사 연구. 재정리

〈표3-4〉 전주형 행복지표 체계

대범주 - 사람 지표		대범주 - 도시 지표		대범주 - 품격 지표		
영역	영역	영역	영역	영역	영역	
소득 소비 만족이 주는 행복	소비생활수준만족	양육 교육 만족이 주는 행복	양육, 보호시설만족	지역 문화 유산이 주는 행복	전주시 풍류인식정도	
	소득수준만족		주관적 아동놀이공간만족		전통문화도시 인식도	
	주관적 삶의 만족		전주시교육환경만족		전주 역사성	
	주관적 계층 인식정도		자녀교육만족		전주 이미지 상징성	
		사교육비부담	옛 것 보존정도			
		주관적 소득만족	사회적약자 편의시설만족		문화유산 상품화 필요성	
	사회복지서비스만족		여유로운 자연환경 만족			
전주시만원행복	사회복지시설접근성	골목길 추억 보존성				
일자리 환경이 주는 행복	내집장만 기대감	지역 서비스 만족이 주는 행복	의료서비스 질 만족		미래삶 전망 행복	미발굴 옛것 보유정도
	일자리 만족		문화의 다양성			전주시에 대한 자랑스러움
			지역문화자원 만족	한옥마을의 자산성		
			문화/여가만족	공원만족		
	직장내 인간관계만족		문화접근성	주관적 생활환경 만족		
	출퇴근시간 만족		민원서비스만족	전주시 휴식공간 만족		
	출퇴근 여유정도		행정의 투명성 신뢰	전통계승 움직임 정도		
전주시정만족		인문학 교육기회 정도				
관계 만족이 주는 행복	자기운전 편리성	지역 안전 환경이 주는 행복	주관적 재난 안전도	운동시설 구비 정도		
	친구관계 만족		아간보행 안전도	전주 정신의 고유성		
			가족관계 만족	주관적 교통사고 안전도	환경보존 필요성	
			이웃관계 만족	체감하는 안전도	주관적 마을 만족	
	이웃간 인사성		주관적 기후 만족	전주시 정비접근성		
			다양성 수용	주관적 대기 만족	주관적 도시 만족	
	공동체 신뢰가 주는 행복		주관적 공동체 인식정도	주관적 수질만족	전주 시민 정체성 소속감 주는 행복	시민활동 참여의사
교통 이동권 만족이 주는 행복		교통시설 만족		전주시민 소속감		
지역 경제 만족이 주는 행복		대중교통 편리성	전주시에 대한 지식			
지역 신뢰정도		대중교통 친절도	전주시에 대한 자부심			
		타시도접근편리성	지역산업육성시스템	전주시 발전 관심도		
전주시민 정에 대한 인식	지역 경제 기회 다양성	지역산업육성시스템	시민활동 참여			
	사회적경제활동수준	고용기회 다양성	추억보존성			
	전주시 성장가치	전주시 생활비	자녀 지속거주 희망도			
	전주시 생활비		전주시 변화 긍정성			
			참여활동 다양성			
			지속 거주 희망도			
			지위 이동 기대감			
			자녀지위 이동 기대감			
			주관적 미래행복도			

자료 : 김미옥 외(2016). 전주형 행복지표 개발·조사 연구. 전주사·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 행복지표의 활용방안

- 전주시는 행복지표를 활용할 때 전주시민이 행복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느끼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2년마다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표집의 대표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수치는 전주시민의 주관적 행복도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 이러한 기본 배경을 바탕으로 행복한 전주시민을 위한 제언을 몇 가지하고 있는데 먼저 주민공동체의 적극적인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관계만족이 주는 행복이 매우 중요한 전주민의 행복을 증폭시키는 방안으로 학습의 장, 동아리, 자원봉사 활동 등의 다양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 두 번째로는 행복정책 개발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다각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전주시에 추진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원탁회의’의 홍보와 다양한 집단군의 참여 확대, 그리고 ‘찾아가는 원탁회의’ 등의 형태를 통해 전주시 행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세 번째로 개인의 행복이 사회공동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과 기관의 유기적인 연대 구축을 제언하고 있다. 전주시의 공공, 민관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개발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네 번째 전주시만의 이미지 개발 및 고유정신 고취에 대해 요구하며 전주시의 전통성과 정신은 전주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주시의 고유성을 지키고 이미지화 함으로써 전주시만의 품격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개발을 제언하고 있다.

- 다섯 번째 주민 행복전담기구의 구축으로 전주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발굴 및 실천방안구축을 전담하여 행복정책과 사례 연구까지 이루어지는 연구정책 팀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마지막으로 ‘전주시 행복영향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도시정책 평가로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수의 고려를 제언하고 있다.

2. 타 시도 행복지표 사례분석

- 타 시도 중 행복지표를 개발했거나 측정한 시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의 2020년형 행복지표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광역시도 중 행복지표를 개발한 지역으로는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등으로 총 7개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가. 서울형 행복지표⁴⁾

1) 개요

- 서울은 2014년,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행복에 대한 논의를 서울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수 구축 연구” 과제를 통해 11개 영역 24개 지표의 서울형 행복지표를 선정하였다. 2014년에 구축한 서울형 행복지표를 근간으로 ‘2016년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행복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2014년 행복지표에 사회연결망(사회적 약자)과 공동체 영역을 추가하였다.
- 이후 서울형 지표의 중요도 정도를 시민조사를 통해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8개 영역(13개 세부영역), 41개 지표를 확정하였고, 기존 지표 중 공유기업, 실업률, 예술 활동 참여도, 투표율, 공원 등 5개 지표에 대해서는 대체 또는 삭제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 서울형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8개 영역의 중요도를 7점 만점의 평균점수로 환산한 결과 건강/안전 영역이 5.7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거주환경(5.67점), 일자리(5.57점), 경제(5.54점)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4) 변미리 외(2017).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 연구. 재정리

〈표3-5〉 서울형 행복지표 구성체계

영역	세부영역	지표	설명
경제 (4순위)	경제활동	소득만족도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정도
		평균소득	월평균 소득
		경제활동인구	전 인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비율
	경제적 다양성	사업다양성	사회적 기업 고용자 수
		공유기업	공유기업 수
일자리 (3순위)	일자리	직업안정성	지난 6개월간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
		실업률	15~64세의 실업률(연간)
		직업만족	직업만족도
인적역량 (7순위)	교육	교육능력	정규교육을 받은 기간
		교육정도	25~64세 중 고등교육 이수율
		교육만족도	교육환경에 만족하는 정도
건강/안전 (1순위)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나쁘다로 평가
		기대여명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
		정신건강	스트레스 정도
	안전	살인율	인구 100,000명당 살인 건수
		폭행률	폭행 및 강도로 인한 피해경험
		아간안전	밥거리 안전도
문화/시간 (5순위)	문화/여가	문화환경 만족도	서울의 문화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문화생활 참여정도	문화생활 참여율
		예술활동 참여정도	예술활동 참여율
	시간활용	근로시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
		수면시간	하루 평균 수면시간
일과 여가의 균형정도	장시간 근무 비율		
사회관계 (8순위)	연결망	연결망	필요할 때(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지인) 여부
		사회적 유대	편안한 사람들(친구, 가족 등)과 식사 시간
		자원봉사율	자원봉사 참여 비율
		투표율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투표인 수/등록인 수)
	공동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 층) 배려정도
		가족 신뢰	가족 신뢰도
		이웃 신뢰	이웃 신뢰도
		공공 신뢰	공공기관의 신뢰도
계층 이동 가능성	계층 이동 가능성		
공동체의식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거주환경 (2순위)	주거환경	주거비	가계수입에서 주택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환경오염	미세먼지 농도
		공원	1인당 공원면적
	교통	보행환경	보행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대중교통의 시민이용만족도
생활만족 (6순위)	주관적 웰빙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감정	즐거움/행복 정도	
	부정적 감정	근심/걱정/우울 정도	

자료 : 변미리 외(2017).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음영처리 지표는 삭제 또는 대체해야 할 지표

*영역의 우선순위는 중요도1(지표의 중요도의 개별 평가 응답값으로 7점 만점)에 대한 평가결과로만 표기

2) 행복지표의 활용방안

□ 행복비전 설정 및 행복 프레임워크 구축

- 서울 시민 행복의 정책화와 제도화 프레임의 구축을 위해 서울시 행복비전 선언과 전략을 수립하여 ‘시민 우선’, ‘행복 우선’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세계 주요 대도시들의 핵심비전에 대한 흐름과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행복비전체계를 설정하였다.



자료 : 변미리 외(2017).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또한 서울시는 행복지표가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활용되어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게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 프레임워크는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 참여 거버넌스와 공공부문의 문화적 변화를 지원하고, 부서별이 아닌 부서 간 협업을 지원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이다. 그리고 정책수립단계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사전 계획의 결과를 의사결정과 예산에 반영하여 투명성을 지향하고 의미 있는 이슈의 제공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 행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행복지표의 지속적인 정책적 활용을 위하여 행복지표를 활용한 행복계획수립과 행복계획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 행복계획은 5년 주기의 중장기 계획으로 서울시의 행복정책 수립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등을 제시하고 행복계획의 법적 근거로 행복조례 제정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 행복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은 서울시민의 현황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진단함은 물론, 행복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와 전략 등의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행복지표와 정책 수립·평가의 연계성 강화

- 행복지표와 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부문별 기본계획과 행복지표의 연계성 강화, 행복영향평가 실시, 행복지표 평가분석을 통한 정책 우선순위 선정, 인구집단별 맞춤형 정책과 관련한 방법론 모색 등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첫 번째로 서울시 도시계획, 생활권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에서 성과지표를 행복지표로 활용하여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대상별 맞춤형정책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행복영향평가의 실시를 통해 각 분야별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지표별 점수가 낮은 정책은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복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행복지표 평가 분석을 통한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자원 투입, 행복 관련 정책의 성과 평가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행복지표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생활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

고, 행복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집단을 정책대상의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 마지막으로 행복지표를 인구 집단별 세분화를 통해 지역별, 인구집단별 행복 매커니즘의 차이를 확인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행복지표 활용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행복지표의 활용과 시민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행복조례를 제정하고, 행복친화적 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가칭)서울시민행복위원회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 또한, 체계적인 실행력 확보와 행정적 지원을 위한 행복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행복지표의 관리, 서울시민행복위원회 운영, 행복 네트워크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행복증진을 위한 시-자치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치구들 간의 측정결과와 비교를 통해 지역간의 불평등 정도를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며, 행복 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위한 협력적 시스템 구축으로 행복지표와 연계된 데이터의 수집·평가·분석 시스템 구축과 정책계획의 전 과정에 반영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 부산시민 행복지표⁵⁾

1) 개요

- 부산시는 시민행복에 가치를 두는 민선7기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성장과 개발중심에서 삶의 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민행복지표를 개발하였다. 부산시민 행복지표는 「개인 ⇒ 가족 ⇒ 공동체 ⇒ 도시」로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체계화

5)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부산시민 행복지표 참고 재정리

하였고, 부산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4대 분야, 10개 영역, 64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 개인 분야는 시민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건강한 개인, 마음의 행복, 즐거운 여가의 3개 영역, 15개 지표로 구성하였고, 가족 분야는 개인분야의 확장개념으로 함께하는 가정 1개 영역, 7개 지표, 공동체 분야는 가족분야의 확장개념으로 따뜻한 이웃, 차별없는 사회 2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 마지막으로 도시 분야는 공동체 분야의 확장개념으로 안정된 일자리, 쾌적한 환경, 편안한 도시 인프라, 미래가 있는 교육 4개 영역, 31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표3-6〉 부산 시민행복지표 구성체계

대분야	세부 영역	지표	지표개념
개인	건강한 개인	걷기실천율	최근 일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 5일 이상 실천율
		건강검진율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비율
		복부비만율	당해연도 건강검진자 중 복부비만인 사람 비율
		암발생률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률
		의료서비스 만족도	주 이용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마음의 행복	삶의 만족도	개인적관계적·집단적 측면에서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공정부정 정서	공정부정 정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측정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이상 일상생활 지장 있을 정도의 우울감
	즐거운 여가	자살률	연간 자살자 수를 연간 인구로 나눈 수치 10만분비로 표시
		1인당 문화예술 행사 관람횟수	시민 1인당 문화예술(영화, 공연 등) 관람 횟수
		1인당 연간 독서량	시민 1인당 연간 독서량
		1인당 스포츠레저 참여율	최근 1년간 1인당 주1회 이상 스포츠레저 참여율
		국내/해외 여행횟수	지난 1년간 관광 목적 국내 및 해외여행 비율
		문화생활 만족도	1인당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1인당 여가활동 만족도
가족	함께하는 가정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평균시간	하루 중 가족과 함께하는 평일 평균시간(15세 이상)
		가사활동 전담시간	요일 평균 가사활동 전담시간
		노후생활자금 준비율	노후생활자금 준비(30세 이상)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가족친화인증기업수	가족친화 인증 기업 수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부양 부담감	부모자녀·형제 등 가족의 부양에 대한 부담감		

〈표 계속〉

대분야	세부 영역	지표	지표개념
공동체	따뜻한 이웃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 비율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 비율
		소통하는 이웃의 수	외롭거나 우울할 때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별 소통 인원
		NGO활동 가입자 수	부산 NGO단체 활동 가입자 수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자 등록 대비 실행률 인원 비율
		사회복지 공동모금액	민간복지 발전에 필요한 자원 마련 등을 위한 공동모금액
		사회적 관계별 소통정도	외롭거나 우울할 때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별 소통 정도
		사회참여 만족도	사회참여 만족도 측정
	차별 없는 사회	성평등지수	성평등한 사회참여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 등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및 판정, 상담 건수
		장애인학대	장애인학대 신고 및 판정, 상담 건수
		노인학대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 상담 건수
		사회 각 분야별 차별 인지도	부산 인권 기본조례 제2조의2(기본원칙)에 의한 차별인지도
	인권에 대한 시민의 의식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 의식	
	안정된 일자리	1인당 소득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총처분가능소득
		생활물가지수	141개 품목에 대한 가격 변동율
상용근로자 비율		취업자 수 대비 상용근로자 수	
이직률		다른 직장으로 이동 또는 퇴직 등의 비율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산업재해 발생건수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4일 이상 요양필요 재해	
근로여건 만족도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만족도	
도시	쾌적한 환경	노후상수관로비율	공급과정 중 관에서 발생우려 있는 수도물 2차 오염원 방지
		낙동강원수 수질기준 적합도	낙동강 수질개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 생산
		초미세먼지 고농도 연간 발생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수치 나쁨 이상의 연도별 일수
		해수욕장 수질기준 적합도	하절기 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 환경기준 적합도
		소음도	부산시 용도구역별 환경소음기준 초과율
		녹지율	산림청 통계자료 활용(타시도 비교가능)
		공원접근성	거주지 근방 공원접근성의 포괄적 만족도

〈표 계속〉

대분야	세부 영역	지표	지표개념
도시	편안한 도시 인프라	공공임대주택비율	저소득가구,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정책수요 설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영위를 위한 최저주거기준 설정
		대중교통수송분담률	1일 평균 승객통행량 중 대중교통 수단이 차지하는 비율
		교통혼잡비용	1인당 연간 교통혼잡비용
		안전사고 하루 사망자 수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하루 사망자 수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주택) 만족도
	미래가 있는 교육	보행환경만족도	주거지역의 전반적인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전반적 사회안전 및 분야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발생건수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신고건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해업소 점검단속
		평생교육시설 및 이용자수	평생교육시설, 구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수
		영유아 대상 국공립 기관 비율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청소년 교우관계, 스포츠, 문화활동 등 생활만족도 조사
모바일 활용능력	시민 모바일 활용능력		
평생교육 이용 만족도	평생교육 이용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측정		
지역의 교육환경 만족도	지역 교육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측정		

자료 :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2) 시민행복지표의 활용

- 부산시는 영역별 지표의 내용에 맞는 정책과의 연계성을 구축하여 각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 가령, 건강한 개인 영역의 「건강실천율」 지표의 경우 “1530건강걷기”라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활용되고, 걷기마일리지 적립으로 건강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매년 걷기실천율이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가족분야의 「가사활동 전담시간」 지표는 “건강가정지원 추진”정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을 통해 가사분담 남녀 행위자의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부산시의 주요 정책과 행복지표의 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3-7〉과 같다.

- 이렇듯 부산시는 행복지표와 연계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어 정책을 관리하는 부서간의 협업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7〉 부산 시민행복지표의 정책활용

대분야	세부 영역	지표	주요 정책
개인	건강한 개인	걷기실천율	1530건강걷기, 부산시민 걷기대회, 건강계단 조성
		건강검진율	국가 건강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등
		복부비만율	초등학교돌봄교실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암발생률	국가암 조기검진/홍보사업, 암검진 바우처 지원사업 등
	마음의 행복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시책 추진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 기본계획
		긍정부정 정서	정신건강 기본계획
		우울감 경험률	정신건강 기본계획
	즐거워 여가	자살률	부산시 자살예방 시행계획
		1인당 문화예술 행사 관람횟수	부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1인당 연간 독서량	책드림 부산 독서진흥계획, 다함께 누리는 책두레 도서관 구축
		1인당 스포츠레저 참여율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스포츠 문화 조성
		국내/해외 여행횟수	해당없음
		문화생활 만족도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가족	함께하는 가정	여가생활 만족도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평균시간			건강가정지원 추진,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등
가사활동 전담시간			건강가정지원 추진,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등
노후생활자금 준비율			기초연금제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가족친화인증기업수			찾아가는 가족친화 컨설팅
가족관계 만족도			건강가정지원 추진,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등
가족부양 부담감	건강가정지원 추진,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등		

〈표 계속〉

대분야	세부 영역	지표	주요 정책
공동체	따뜻한 이웃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 비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소통하는 이웃의 수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수립,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수립
		NGO활동 가입자 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자원봉사 참여율	부산광역시 자원봉사 혁신방안
		사회복지 공동모금액	희망나눔 캠페인 지원 계획
		사회적 관계별 소통정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수립,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수립
	차별없는 사회	사회참여 만족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성평등지수	양성평등시행계획 실시
		아동학대	아동학대예방 종합계획, 아동친화 도시 조성 등
		장애인학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장애인식개선교육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회 각 분야별 차별 인지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인권에 대한 시민의 의식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등
	도시	안정된 일자리	1인당 소득
생활물가지수			물가안정 추진계획
상용근로자 비율			민선7기 일자리로드맵, 일자리 르네상스, 부산
이직률			부산형일자리미스매치해소 종합대책
고용률			민선7기 일자리 로드맵
산업재해 발생건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이행계획
근로여건 만족도			노동환경 개선 및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쾌적한 환경		노후상수관로비율	3단계 노후 상수도관정비 사업
		낙동강원수 수질기준 적합도	3단계 낙동강수계 부산광역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초미세먼지 고농도 연간 발생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해수욕장 수질기준 적합도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모래 조사
		소음도	소음진동시책관리 추진 실적 및 계획
		녹지율	시민이 행복한 숲의 도시 부산조성
	공원접근성	시민행복공간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표 계속>

대분야	세부 영역	지표	주요 정책
도시	편안한 도시 인프라	공공임대주택비율	부산형 행복주택 공급 (청년수요계층 특화 공급)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부산시 주거실태조사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사람·안전 중심'민선7기 대중교통 혁신 계획 전반
		교통혼잡비용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등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
		안전사고 하루 사망자 수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추진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사람·안전중심'민선7기 대중교통 혁신계획
		주거환경만족도	2022 부산시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보행환경만족도	사람 우선, 보행안전 추진계획
	미래가 있는 교육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학교폭력 발생건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 교육 강화 및 폭력예방 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구·군 청소년유해업소 점검·단속 추진계획
		평생교육시설 및 이용자수	구·군 평생교육 지원사업, 평생학습빌리지 사업
		영유아 대상 국공립 기관 비율	2022년까지 국공립 등 공보육시설을 250개소 확충-시장공약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청소년 활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모바일 활용능력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추진		
평생교육 이용 만족도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지역의 교육환경 만족도	고교 무상급식, 글로벌빌리지를 통한 영어교육 지원		

자료 :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다. 대전형 행복지수⁶⁾

1) 개요

- 대전광역시 시민의 행복여건과 주관적 행복도,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행복지표체계를 개발하여 대전의 행복정책 방향성의 제시와 정책의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대전형 행복지표는 지표의 타당성 제고, 신뢰성 확보, 대전의 특성반영 지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혼용방식 적용, 정책과 연관된 지표선정 및 지표체계의 간결성을 기본방향으로 6대 영역, 34개 세부지표로 행복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6) 박노동 외(2016). 대전형 행복지수 구축 방안. 재정리

〈표3-8〉 대전형 행복지수 체계

영역	세부지표	지표성격	산출방식
경제적 안정	가처분가구소득	객관적	세후 가처분 가구소득
	고용률	객관적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소득만족도	주관적	소득에 만족하는 정도
	일자리만족도	주관적	일자리에 만족하는 정도
건강과 주거	기대수명	객관적	연령대별로 생존할 수 있는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연수
	소득대비주택임대비	객관적	소득에서 주택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주관적 건강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
	스트레스인식도	주관적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문화와 여가	주거환경만족도	주관적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정도
	문화여가시간	객관적	하루 평균 소비하는 여가시간
	문화여가지출비율	객관적	가처분소득에서 문화여가에 지출하는 비율
	문화여가활동만족도	주관적	문화여가활동에 만족하는 정도
공동체 활력	인터넷접근능력만족도	주관적	인터넷 접근능력에 대한 만족도
	가족관계접촉빈도	주관적	직계가족과의 평균 접촉정도
	가족관계만족도	주관적	가족관계에 있어 가족생활전반에 만족하는 정도
	사회단체참여율	객관적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정도
	사회적 관계망	주관적	도움을 받을 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원봉사참여시간	객관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간
	지역사회소속감	주관적	지역사회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정도
	시민권 보장에 대한 인식도	주관적	시민으로서 권리 향유 정도
주관적 웰빙	기부정도	객관적	기부액 정도
	사회적신뢰도	주관적	일반사람들에 대한 신뢰정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	주관적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긍정적 정서경험	주관적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
삶의 질의 도시기반	부정적 정서경험	주관적	근심과 걱정, 우울감의 정도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주관적	하는 일에 대한 가치부여정도
	범죄율	객관적	범죄발생건수
	교통사고발생율	객관적	교통사고발생건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주관적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도에 대한 인식
	대중교통이용만족도	주관적	대중교통 이용에 만족하는 정도
	미세먼지농도	객관적	미세먼지농도
온실가스배출량	객관적	온실가스배출량	
삶의 질의 도시기반	수질오염도	객관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체감환경만족도	주관적	살고있는 지역환경 개선정도

자료 : 박노동 외(2016). 대전형 행복지수 구축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표 계속〉

영역	세부지표	지표성격	산출방식	
생애주기 별 특성지표	아동기	아동학대피해경험률	객관적	아동학대발생건수
		학교폭력발생율	객관적	학교폭력발생율
		학업성취도	주관적	학업성취에 대한 개선정도
		학생의 수면시간	객관적	학생의 평균 수면시간
		교우관계만족도	주관적	교우관계에 만족하는 정도
		학교생활만족도	주관적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도
	성인기	사교육비지출비율	객관적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평생교육참여율	객관적	평생교육의 참여율
	노년기	연금수급률	객관적	국민연금 수급액
		노인장기요양보호율	객관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률

2) 대전형 행복지수 활용방안

- 행복지수의 개발은 근본적으로 지역발전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행복지표집 발간, 지역내 비교측정과 균형발전 추진 전략에서의 활용, 지역통계생산 기반 구축 등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먼저 대전행복지표집 발간을 통해 기존 국내 행복지표의 통계 및 지표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대표적 소수지표를 이용하여 심층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지역 내 비교측정 및 균형발전 전략추진의 활용방안으로 대전시 시민행복증진 정책의 실적평가 및 정책시행계획에 시민 행복 증진 정책의 구체적 목표를 도출하는데 행복지수를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지역사회지표조사 결과를 활용한 행복지표 개발 및 활용으로 대전시 자체 통계생산의 기반 구축의 기능과 정책실행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정통계가 많아지고 정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행정통계 이용의 제도화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지속적인 변화과정에 대한 시계열 분석 및 지역 간 비교를 위해 통계자료가 없어 생산이 불가능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정기적 조사를 통해 지표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행복지표의 조사 분석 전담부서 운영으로 지역통계를 통합 관리하고 대전의 지역통계의 효율적 활용과 행복지표의 체계적인 생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대전시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을 국제도시의 수준과 비교하여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의 논의과정을 위한 국제도시간의 지표 비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라. 강원도 행복지표⁷⁾

1) 개요

- 강원도는 핵심 도정목표인 “행복 2배”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해 도민이 느끼는 행복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하였다. 강원도 행복지표는 국제기구들의 행복지수 사례 및 국내외 선행연구사례 등을 비교·검토하여 5개 영역, 26개 세부지표를 선정하였고 각 영역별 지표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3-9〉 강원도 행복지표 체계

영역	지표	산출(측정)방법
경제적 영역	1인당 GRDP	지역내 총생산/내국인 주민등록인구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평균 근로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지방세수입+세외수입)/세입총액}×100

7) 황규선(2012, 2014). 강원도 행복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2012),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한 도민 행복 증진방안 연구(2014). 재정리

〈표 계속〉

영역	지표	산출(측정)방법
사회복지 영역	복지예산 비율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인구
	유아보육시설 수	유아(0~4세) 천 명 당 유아보육시설
	노인여가시설 수	노인 천 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자원봉사자 비율	인구 천 명 당 등록 자원봉사자 수
	이혼율	조이혼율
교육문화 영역	GRDP 대비 교육예산비율	교육특별회계 예산액/지역내총생산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수/교원 수
	평생교육기관 수	인구 만 명 당 평생교육기관 수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만 명 당 문화기반시설
의료보건 영역	의료인력 수	인구 천 명 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유병율	지난 2주일간 아픈 적 있던 사람 비율
	음주율 및 흡연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기대여명	출생 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생활기반 및 환경영역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상승률의 평균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 평균
	도로포장률	전체 도로 중 포장도로 비율
	생활안전도	범죄율, 화재발생률, 교통사고 발생률의 평균
	1인당 임목 축적량	임목축적량/인구
	공원조성 면적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조성 면적

자료 : 황규선(2012). 강원도 행복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강원연구원

- 2012년도에 마련한 강원도 행복지표는 객관적 지표로만 구성되어 주관적 측면의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며, 2014년도에 이를 보완하고 정책수립의 근거자료 제시를 위한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도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도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관적 지표의 경우 10점 만점 지표로 만족도와 중요도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객관적 지표의 경우 5점 만점 지표로 만족도 조사만 실시하였다.

〈표3-10〉 강원도민의 주관적 차원 행복지수 분석(10점 만점)

영역	지표	만족도	중요도	차이
인적·사회적 관계요인	자아 존중감	7.01	8.36	-1.35
	가족생활	7.59	8.80	-1.21
	가족원 관계	7.80	8.90	-1.10
	친구와 동료 관계	7.16	8.26	-1.10
	주관적 건강수준	6.74	8.52	-1.78
	종합적 분석(평균)	7.26	8.57	-1.31
경제적 요인	경제적 보유 충족감	5.64	7.65	-2.01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5.49	7.57	-2.08
	자신이 하고 있는 일	6.42	8.10	-1.68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원하는 일의 일치정도	6.02	7.78	-1.76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급여와 근무환경	5.82	7.73	-1.91
	종합적 분석(평균)	5.88	7.77	-1.89

자료 : 황규선(2014).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한 도민 행복 증진방안 연구. 강원연구원

〈표3-11〉 강원도민의 객관적 차원 행복지수 분석(5점 만점)

분야	지표	만족도	지표	만족도
안전	치안수준 종합	3.17	안전 종합	3.28
	거주지역 치안수준	3.29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3.44
	내 집의 범죄로부터 안전	3.36	사회적 재해로부터의 안전	3.41
	경찰의 순찰활동	3.14	교통안전 환경	3.20
	경찰의 사건대응	3.06	어린이 안전환경	3.06
	방범시설 수준	3.02		
	대중교통 치안환경	3.12		
의료보건 및 복지시설	의료보건시설 종합	2.88	복지시설 종합	2.75
	지역내 병원의 신뢰성	2.81	육아보육시설	2.94
	지역내 보건소의 신뢰성	3.08	노인복지시설	2.97
	지역내 병원의 종류와 수	2.76	청소년복지시설	2.59
			여성복지시설	2.62
			장애인복지시설	2.65
생활환경	교육환경 종합	2.92	편의시설 종합	2.82
	공공교육 수준 및 환경	3.00	공원, 오픈스페이스	3.04
	사교육 수준 및 환경	2.81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2.66
	자녀의 친구들 수준	3.10	전통시장, 집 인근 쇼핑시설	3.03
	지역내 교육특성상 대학진학 가능성	2.77	문화시설	2.41
			체육시설	2.97
	교통환경 종합	3.18	거주환경 종합	3.28
	버스 이용 편의성	2.97	지역의 경관	3.47
	승용차 이용 편의성	3.46	지역의 청결성	3.38
	보행환경	3.26	우리집 생활비용의 적정성	2.91
	주차환경	3.04	우리지역 주거비용의 적절성	2.95
			이웃과의 관계	3.51
			부적합 시설로부터 주거환경 쾌적정도	3.46

〈표 계속〉

분야	지표	만족도	지표	만족도
경제적 요인	경제요인 종합	2.49		
	일자리 기회	2.29		
	지역주민소득 평균	2.51		
	향후 지역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	2.67		

자료 : 황규선(2014).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한 도민 행복 증진방안 연구. 강원연구원

2) 강원도 행복지표 활용방안

- 강원도의 경우 행복지표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고 정책적 제언 정도만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로는 도민의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 효과를 미치면서 영향력이 큰 요인들을 개선하는 정책적 고려와 행복감이 낮은 대상을 초점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책의 실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활용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견해와 상황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2~3년 주기의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 충청북도 행복지표⁸⁾

1) 개요

- 충청북도는 도민의 행복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복지표를 개발하였고 행복지수의 개발 및 측정을 통해 도민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도출하였고, 국제기구 및 외국의 행복지수와 연계분석을 통한 개발과정을 거쳐 8개 영역, 70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8) 최용환 외(2015). 도민행복의 재발견 행복지수 연구. 재정리

〈표3-12〉 충청북도 행복지표 체계

영역	주관적 지표	우선순위 지표
건강 보건	주관적인 건강수준 가족의 건강수준 규칙적인 운동 여부 편의 및 보호시설 지역공중보건	1인당 사회복지비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기대수명 흡연률과 음주량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가족 공동체	가족생활 만족도 부부생활 만족도 가족원 관계 만족도 친구 및 동료관계 만족도	가족접촉빈도 1인 가구 이혼율 자살률
주민참여 신뢰	지역사회 참여여건 만족도 충북도정의 주민 소통 종교단체 신뢰 행정기관 신뢰 시민사회단체 신뢰	사회단체참여율 투표율 정보공개율 자원봉사참여율
교육 학습	평생교육 기반 조성 만족 학교 학습내용 만족 사교육 만족 평생교육 학습 만족	평생교육율 평균교육연수 대학진학율 1인당 장서 수(공공도서관)
경제적 안정	경제활동의 다양한 기회 충북 전반적 일자리 여건 직장 내 스트레스 없음 소득수준 노후를 위한 준비 소비 수준	1인당 소득 소득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고용률 가계부채율 비정규직 비중 65세 이상 인구비율
문화 여가	충북 문화·여가·관광 여건 문화유적, 공연, 축제 충분 지역문화 여가 생활 향유	평균 여가 시간 문화예술 시설수 공공체육시설 수 국내·외 관광
주거 안전	주택(주거환경) 만족 대중교통과 주차시설 만족 통근시간(승용차, 버스) 만족 재해·재난안전사고의 안전성	주택보급율 범죄발생 건수 교통사고 발생 건수 화재발생율 도로포장율
환경	충북의 환경 여건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의 건강상 위험 가능성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청결상태	대기 및 수질오염 상·하수도 보급률 폐기물 및 쓰레기 배출량 1인당 공원 및 녹지조성 면적

자료 : 최용환 외(2015). 도민행복의 재발견 행복지수 연구. 충북연구원

2) 충북 행복지표 활용방안

- 충북 도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발로하는 투표의 중요성 인식,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수준과 회복력 제고, 주민행복지수와 행복조례에 기반한 자치행정 추진, 공동체 의식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첫 번째로 행복을 찾아가는 발로하는 투표는 주민 스스로가 살고 싶은 지역을 찾아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행복감이 높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과 그에 따른 인구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행복감은 정신적 작용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관리와 긍정적 마인드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 추진으로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과 회복력 제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 세 번째로는 주민행복지수와 행복조례에 기반한 자치행정실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행복수준을 제고하기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행복 중심 행정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네 번째로 행복수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적 연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증가, 마을공동체 건강함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공동체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전·사후 일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행복지수의 측정으로 도민행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바. 충청남도 행복지표9)

1) 개요

- 충남의 여건과 실정이 고려된 행복지수의 개발로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2012년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선행연구 검토와 영역별 연구진 구성을 통한 행복지표의 개발, 전문가 워크숍 및 도민 대상 중요변수 선정 과정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9개 영역 81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행복지표를 개발하였고 각 영역별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3-13〉 충청남도 행복지표 체계

구분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주거 및 교통	주거	주택전세가격지수	주택(주거환경)만족도
	교통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공원 및 생활편의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
	안전	범죄발생건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성
일자리 소득 소비	고용상태	고용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실업률 비농가 실업률 비정규직비중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근무환경	실질임금총액 성별임금격차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
가족 및 공동체	가족관계	-	가족접촉 빈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 갈등 가족 폭력
	가족형태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소년소녀 가장 비율	-
	일가족 양립	-	부정적 일가족 전이 부정적 가족 전이
	사회적 관계	가까운 친구 수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 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신뢰	-	사회적 신뢰

9) 고승희(2013).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연계 방안. 재정리

〈표 계속〉

구분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교육	교육기회	영유아교육 접근성 고등교육 접근성 평생교육 접근성	계열 혹은 전공 만족도
	교육여건	교원 1인당 학생수 1인당 장서 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효과성
	교육성과	성적 학습시간	학습내용 만족도 학습결과 만족도
문화 여가	기존지표활용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레저시설 이용 여부 국내관광여행 여부 해외여행 경험 및 여부	-
	문화 자원 및 문화 활동	-	지역 자원파악 지역 자원활용 여부 지역자원(시설) 변화
	만족도 조사	-	삶의 만족도 변화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환경	물	하천수질 호소수질	수질만족도
	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율	주변 청결상태
	환경보건	환경오염관련 질환 발생율	건강위협
건강 보건	건강상태	출생시 기대수명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인구 천명당 중증 암환자수) 흡연율과 음주량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의료서비스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 수 의료비 본인부담률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주민 참여	참여기반에 대한 인식	-	도정에 대한 만족도 정책인지
	참여	투표율	영향도
	지자체에 대한 신뢰	청렴도 정보공개율	신뢰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정서경험	-	긍정부정적 정서에 대한 경험 여부
	심리적 번영	-	개인의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성격 측정	-	외향성(결과분석시 통제변수로 활용)

자료 : 고승희(2013).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연계 방안. 충남연구원

2) 충남행복지표 활용방안

- 일상적인 삶에 기본요소인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세부 정책들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과 경제발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최소화를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충남은 중앙정부의 국민행복정책에 기반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 우선 도민의 행복지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영역간 혹은 연도별 행복지수의 변화 파악으로 행복지표의 정책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써 도민의 행복도가 낮은 영역을 중점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올바른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스크린과 모니터링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도민의 실질적인 행복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정의 실현을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선정과정과 정책별 예산의 범위 선정과정에 행복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 제주도 행복지표¹⁰⁾

1) 개요

-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의 행복과 그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행복지표를 개발하였고 국내외 선행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6개 영역 21개의 세부지표로 행복지표를 구성하였다. 또한, 전국 및 공식 통계자료의 활용으로 객관적 행복지수 분석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였고 21개 세부지표를 타 시도와 비교하여 제주도민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10) 강창민 외(2017).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평가연구. 제주연구원

〈표3-14〉 제주도 행복지표 체계

구분		세부지표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개인적 행복	건강	평균수명(기대여명) 65세 이상 인구비율 자살률(인구 10만명당)	평균수명(기대여명) 연령별 인구 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경제	1인당 지방세	지방세 총액, 인구수
사회적 행복	가족	조이혼율	조이혼율
	사회생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사업체 수, 인구 수 실업자 수
교육 문화적 행복	교육	교원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교원1인당 학생 수(중고등학교) 7세 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생 수, 교원 수 유치원(어린이집포함) 수, 7세 이하 인구 수
	문화	지정등록 문화재 수 도시공원 조성면적(인구 천명당)	지정등록 문화재 수 도시공원 조성면적(인구 천명당)
생활 환경적 행복	주거	주택보급률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주택 수, 세대 수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환경	산림면적	산림면적
안전의 행복	범죄 및 재난	범죄율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 수 화재발생률(인구 천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범죄건수, 인구수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화재발생건수, 인구수 교통사고 수
참여의 행복	시민참여	전국 투표율 축제방문경험	전국 투표율 축제 방문 경험

자료 : 강창민 외(2017).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평가연구. 제주연구원

2) 제주 행복지표 활용방안

- 행복지수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행복지수 측정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모색, 행복향상을 위한 노력 및 연구의 필요, 행복에 대한 인식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먼저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반영한 정책방향 모색으로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낮은 분야의 개선방안마련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발굴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도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도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속성을 갖춘 행복향상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행복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행복측정과 정책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행복지수 결과의 반영으로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지자체의 강한의지 표방과 효율적인 행정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도민 참여형 행복지표 개발을 통해 도민이 우선시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도정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행복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으로 행복정책의 계획수립 및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 지속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도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는 도정통계지표를 행복지표로 전환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선명성을 향상시키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성장으로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여 지역의 경제성장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복지수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평가하고, 행복지수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주관적 지표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아. 타 시도 행복지표 종합정리

〈표3-15〉 타 시도 행복지표 체계 종합정리

분야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제주
경제	소득만족도	1인당 소득	소득만족도	경제적 보유 충족감	소득수준/1인당 소득	실질임금총액	경제활동참가율
	월 평균소득	생활물가지수	가처분가구소득	1인당 GRDP	소비수준/소득대비소비 비중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1인당 지방세
	경제활동인구			물가상승률	가계 부채율		
	사업다양성-사회적기업 고용자수			재정자립도	경제활동의 다양한 기회		
				경제적 능력 만족도			
근로	직업안정성-6개월간 고용상태	고용률	고용률	고용률	고용률	고용률	실업률
	직업만족	근로여건 만족도	일자리만족도	하고있는 일 만족도	비정규직 비중	일자리 만족도	
	실업률	상용근로자비율		평균근로시간	직장내 스트레스	비정규직 비중	
	근로시간	이직률		하고있는일과 하고싶은일의 일치	전반적 일자리 여건	비농가 실업률	
		산업재해 발생건수		급여, 근무환경 만족도		업무량 스트레스	
						여성실업률	
						성별 임금격차	
					직장내 인간관계 만족도		

〈표 계속〉

분야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제주
교육	교육민족도	평생교육시설 및 이용자 수	사교육비 지출 비율	평생교육기관 수	평생교육기반 조성 만족	평생교육 접근성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육능력-정규교육받은기간	지역의 교육환경 만족도	학업성취도	교원 1인당 학생수	사교육 만족	계열 혹은 전공 만족도	7세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수
	교육정도-중고등교육이수율	평생교육 이용 만족도	평생교육 참여율	GRDP 대비 교육예산 비율	학습내용 만족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폭력 발생건수			1인당 장서 수	사교육비 및 사교육 효과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평균 교육연수	학습결과 만족도	
		영유아 대상 국공립 기관 비율			평생교육학습만족	학습내용 만족도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대학진학율	1인당 장서 수	
		모바일 활용능력				학습시간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걷기 실천율	주관적 건강만족도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평균수명(기대수명)
	기대여명	건강검진율	기대수명	기대여명	기대수명	출생시 기대수명	
	정신건강-스트레스정도	복부비만율	스트레스인식도	의료인력 수	규칙적 운동 여부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암발생률		2주간 유병률	주요만성질환 사망률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인구 천명당 중증 입원자 수)	
		의료서비스 만족도		음주율 및 흡연율	흡연율, 음주량	흡연율, 음주량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가족의 건강수준	의료비 본인부담률		

〈표 계속〉

분야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문화 여가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생활 만족도	문화여가활동만족도	문화기반시설 수	평균여가시간	문화여가활동만족도	축제 방문 경험
	문화생활 참여정도	1인당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문화여가시간		국내외 관광	문화예술/스포츠관람여부	지정 등록 문화재 수
	수면시간	국내/해외 여행횟수	학생 수면시간		문화예술 시설 수	국내관광여행여부	
	일과 여가의 균형	1인당 스포츠레저 참여율	문화여가지출비율		문화,여가,관광여건	레저시설이용여부	
		여가생활 만족도	인터넷접근능력 만족도		문화유적,공연,축제 충분성	지역자원파악	
		1인당 연간 독서량			공공체육 시설 수	해외여행 경험여부	
						지역자원(시설)변화	
						지역자원파악 지역자원활용여부	
사회 관계 공동 체	연결망-필요시 의지할 수 있는 관계여부	소통하는 이웃의 수	사회적관계망	자원봉사자 비율	자원봉사 참여율	사회적관계망	투표율
	자원봉사율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참여시간	친구,동료관계 만족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적유대-편한 사람들과 식사시간	NGO활동 가입자 수	사회단체참여율		지역사회참여만족도	가까운 친구 수	
	이웃 신뢰	사회참여 만족도	사회적신뢰도		행정기관 신뢰 정보공개율	사회적 신뢰	
	공공 신뢰	사회적관계별 소통정도	지역사회소속감		친구,동료관계 만족	지자체에 대한 신뢰 신뢰도, 정보공개율, 청렴도	
	공동체의식- 지역소속감	성평등지수	교우관계만족도		투표율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계층 이동 가능성 사회적약자 배려		학교생활만족도 기부정도		도정의 주민소통 종교단체 신뢰	투표율 도정 만족도	
					시민사회단체 신뢰	주민참여 영향도	
					1인 가구	정책인지	

<표 계속>

분야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제주
안전 주거 교통 환경	폭행률	아동학대	범죄율	인구 천명당 공원조성면적	범죄발생건수	범죄발생건수	범죄율
	아간안전	장애인학대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생활안전도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1인당 공원 및 녹지 조성면적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대중교통만족도	노인학대	학교폭력발생률	주택가격상승률	주택환경만족도	주택환경만족도	인구 천명당 공원조성면적
	환경오염	녹지율	주거환경만족도	도로포장률	재해재난 안전성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성	교통사고 발생률
	주거비	주거환경만족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상하수도보급률	대중교통.주차시설 만족도	교통사고 발생건수	화재발생률
	보행환경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대중교통이용만족도	1인당 임목 축적량	교통사고 발생건수	환경오염관련 질환 발생률	주택보급률
		대중교통이용만족도	교통사고 발생률		전반적 환경여건	생활폐기물 처리율	상하수도보급률
		노후상수관로비율	소득대비 주택 임대비		대기 및 수질오염	주변 청결상태	산림면적
		낙동강원수 수질기준 적합도	온실가스배출량		폐기물.쓰레기 배출량	건강위험	
		초미세먼지 고농도 연간 발생일수	체감환경만족도		생활폐기물 관리. 청결상태	수질만족도	
		해수욕장 수질기준 적합도	미세먼지농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협 가능성	하천수질	
		소음도	수질오염도		화재발생률	호소수질	
		공원접근성			주택보급률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공공임대주택비율			도로포장률	주택전세가격지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상하수도보급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통근시간 만족		
	교통혼잡비용						
	안전사고 하루 사망자 수						
	보행환경만족도						

<표 계속>

분야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복지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	시민권보장에 대한 인식도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독거노인 비율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 비율	노인장기요양보호율	노인여가시설 수		소년소녀가장 비율	
		사회복지 공동모금액	연금수급률	복지예산비율		한부모 가구 비율	
		사회 각 분야별 차별 인지도		유아보육시설 수			
생활 만족 정서	주관적 웰빙-전반적 삶 만족도	삶의 만족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살률	전반적 삶의 만족도	자살률[건강]
	긍정적 감정	긍정부정 정서	긍정적 정서경험			삶의 만족도 변화	
	부정적 감정	우울감 경험률	부정적 정서경험			긍정부정 정서 만족도	
		자살률	하는 일에 대한 가치			미래에 대한 희망 정도 자살률	
가족 관계	가족 신뢰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평균시간	가족관계접촉빈도	가족생활 만족도	가족접촉빈도	가족접촉빈도	조이혼율
		가사활동 전담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이혼율	노후준비[경제영역]	가족관계 만족도	
		노후생활자금 준비율			가족생활 만족도	가족갈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부부생활 만족도	가족폭력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가족원 관계 만족도	부정적 가족 전이	
	가족관계 만족도			이혼율	부정적 일가족 전이		
	가족부양 부담감						

3. 2020년형 전북형 행복지표 구상

- 2017년 전북형 행복지표의 개발 과정에서 국내외 행복지표 중 가장 중복성이 높은 지표와 도민 원탁회의를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포함한 경제, 사회문화, 건강, 사회적관계, 보건복지, 사회안전, 근로(교육)환경 등을 대영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원탁회의에서 중요영역으로 선정되었던 가족과 관련된 지표가 사회적관계의 대영역의 세부지표로 분류되어 전북형 행복지표의 분별력이 다소 약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2017년 행복지표체계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2020년 행복지표를 구성하였다.
- 2020년형 행복지표는 2017년 행복지표의 8대 영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가족관계, 주거여건, 환경 등의 영역이 포함된 10대 영역, 83개의 세부지표로 선정하였다.
- 또한, 기존의 2017년도의 행복도와 2020년의 행복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2017년 행복지표의 60개 세부지표를 2020년형 행복지표의 대영역에 맞춰 재분류 하였고 주관적 지표와 함께 객관적 지표를 세부지표로 구성하여 객관적인 전라북도의 행복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그리고, 2020년 행복지표의 구성에 있어서 2017년과 차별화 되는 부분은 10대 영역별로 도민의 실질적이고 주관적인 행복에 대한 상태를 측정하고자 하는 대표적 비교지표를 마련하였다.
- 2020년형 전라북도 행복지표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3-16〉 전라북도 행복지표 2017년-2020년 비교

2017년 전라북도 행복지표			2020년 전라북도 행복지표			
분야	세부지표		분야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비교지표
주관적 행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전, 현재, 10년 후 행복감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분야별 만족도(나의가치, 성취도, 미래, 도민자긍심, 이웃신뢰, 일할기회, 안전, 생활환경)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인 행복감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만족감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생활비 가계부채 규모 주관적 소득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층의식 계층이동성 소득만족도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성 소득만족도 직업만족도 좋은일자리 인식 주관적 소득수준 계층의식 계층이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률 및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위한 소득수준
근로(교육)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성 월평균 근로소득 좋은 일자리 인식 고용률 및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의 어려움 직업(학교생활) 만족도 월평균 교육비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 만족도 직장관계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민의 정체감 사회적 관계망 정도 자원봉사 참여율 부모부양 태도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울 때 도움제공 지인 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 이웃에 대한 신뢰도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 참여율 부모부양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울 때 도움제공 지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접촉빈도 가족의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부모와의 교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위한 가족과의 시간
사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 횟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 문화여가시설 개수 문화여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예술행사 만족도 	문화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일과 여가의 균형 여행 만족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예술행사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 정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문화여가시설 수 문화여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 정도

〈표 계속〉

2017년 전라북도 행복지표			2020년 전라북도 행복지표			
분야	세부지표		분야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비교지표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트레스 정도 자살충동 정도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음주 및 흡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관리 실천 의료시설 수 의료서비스 이용율 의료서비스 만족도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만족도 스트레스정도 일주일 운동시간 의료서비스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 및 흡연상태 건강관리실천 의료시설 수 의료서비스 이용율 규칙적 체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관리 위한 체육활동
보건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복지서비스 만족도 사회보장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준비 정도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 사회복지시설 수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 만족도 노후준비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충동정도(자살률) 복지서비스만족도 (십만명당 복지시설 수) 보육시설만족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노인복지서비스만족도 (노인 천명당 노인시설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 만족도
사회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만족도 현재 체감환경 환경문제 인식 주택시세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가격 범죄발생건수 대중교통 접근성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재해재난 안전도 지역안전등급 범죄 검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안전만족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녹지공간 접근만족도 환경에 대한 만족도 현재 체감환경만족도 환경문제인식 불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결도 미세먼지 좋음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위한 미세먼지상태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집 마련의 가능성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만족도 이웃과의 소통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가격지수 대중교통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만족도

자료 : 김동영 외(2017). 전라북도 행복지표 조사 및 정책연계방안. 전북연구원

〈표3-17〉 전라북도 행복지표 분야의 2017년-2020년 변화

2017년 분야	2020년 분야	내용
경제 근로(교육)환경	경제	「경제」와 「근로(교육)환경」의 분야를 「경제」분야로 통합
사회적관계	사회적관계 가족	「사회적관계」 분야의 세부지표에 포함되어있던 「가족」을 대분야로 분류
사회안전	안전 환경 주거	「사회안전」의 분야를 「안전」, 「환경」, 「주거」 분야로 분류

〈표3-18〉 전라북도 행복지표 세부지표의 2017년-2020년 변화

세부지표	2017년 분야	2020년 분야	내용
학교생활만족도	근로(교육)환경	사회적관계	학교생활만족도를 사회적관계분야로 재분류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관계	가족	가족관계만족도를 가족분야로 재분류
의료서비스만족도	보건복지	건강	의료서비스만족도를 건강분야로 재분류
자살충동정도	건강	복지	자살충동정도를 복지분야로 재분류
주거만족도 주택가격지수 주택시세 적절성 대중교통접근성	사회안전	주거	주거만족도, 주택가격지수, 주택시세적절성, 대중교통접근성을 주거분야로 재분류
현재체감환경 환경문제인식	사회안전	환경	현재체감환경, 환경문제인식을 환경분야로 재분류
범죄발생건수	사회안전	안전	범죄발생건수를 안전분야로 재분류

〈표3-19〉 전라북도 행복지표의 2020년 새로운 지표

2020년 분야	내용
사회적관계	◦ 이웃에 대한 신뢰도
가족	◦ 가족접촉빈도 ◦ 가족의 건강 ◦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 부모와의 교류정도
건강	◦ 일주일 운동시간 ◦ 규칙적 체육활동
주거	◦ 내 집 마련의 가능성 ◦ 이웃과의 소통 정도
환경	◦ 공원/녹지공간 접근만족도 ◦ 환경에 대한 만족도 ◦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결도 ◦ 미세먼지 좋음 정도
안전	◦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 ◦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 ◦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표3-20〉 2020년 전라북도 행복지표 체계

분야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비교지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성 소득만족도 직업만족도 좋은일자리 인식 주관적 소득수준 계층의식 계층이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률 및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위한 소득수준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접촉빈도 가족의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부모와의 교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위한 가족과의 시간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만족도 스트레스정도 일주일 운동시간 의료서비스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 및 흡연상태 건강관리실천 의료시설 수 의료서비스 이용률 규칙적 체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관리 위한 체육활동 정도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울 때 도움제공 지인 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 이웃에 대한 신뢰도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 참여율 부모부양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울 때 도움제공 지인
문화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일과 여가의 균형 여행 만족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예술행사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 정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문화여가시설 수 문화여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 정도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 만족도 노후준비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총동정도(자살률) 복지서비스만족도 (십만명당 복지시설 수) 보육시설만족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노인복지서비스만족도 (노인 천명당 노인시설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 만족도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재해재난 안전도 지역안전등급 범죄 검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안전만족도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집 마련의 가능성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만족도 이웃과의 소통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가격지수 대중교통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만족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녹지공간 접근 만족도 환경에 대한 만족도 현재 체감환경만족도 환경문제인식 불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결도 미세먼지 좋음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위한 미세먼지상태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인 행복감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만족감

4

장

2020년 전라북도 행복현황

Jeonbuk Institute

-
1. 주관적 행복감
 2. 경제
 3. 가족관계
 4. 건강
 5. 사회적관계
 6. 문화여가
 7. 복지
 8. 안전
 9. 주거
 10. 환경
 11. 비교지표
 12. 2017년-2020년 전북의 행복도 비교

제4장 2020년 전라북도 행복현황

1. 주관적 행복감

가. 조사개요

1)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 2017년 개발된 전라북도 행복지표의 개선을 위해 2020년형 행복지표의 10대 영역과 각 영역별 세부지표를 선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행복지표 10대 영역과 영역별 세부지표의 우선순위, 그리고 현재 도민의 주관적 행복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본 조사의 주된 목적이다.
- 본 조사는 2020년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10일간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지역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4-1〉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20년 5월 20일(월) ~ 2020년 5월 29일(금), 총 10일간
조사대상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역민
표본수	총 700명 정도
조사방법	온·오프라인 조사
표본추출방법	단순임의표본추출법

- 설문조사표는 [1]설문 일반사항, [2]도민 행복정도, [3]행복지표 10대 영역, [4]행복도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4-2〉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설문 일반사항	- 거주지역, 소재지역,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가구소득
도민 행복정도	- 주관적 행복감(과거, 현재, 미래), 도움지인 수, 상황별 도움지인 여부, 주관적 만족감 (10개 사항)
행복지표 10대 영역	- 행복지표 10대 영역의 중요도, 행복지표 세부영역별 중요도(경제, 가족관계, 건강, 사회적관계, 문화여가활동, 복지서비스, 지역사회안전, 주거여건, 환경, 정서)
행복도 현황	- 행복 위한 연평균 소득, 행복 위한 가족과 보내는 시간, 체육활동 정도, 여가활동 정도, 안전도(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감염병), 사회보장제도 변화정도, 주거환경 만족도, 행복 위한 미세먼지 좋은 날, 삶의 만족도

○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700 명이 온·오프라인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조사의 분석을 위해 전북 도민의 연령대별 인구비중에 따른 할당 표본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가중치를 반영하여 연령대별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 각 연령대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중값을 설정. 단, 10대 미만의 인구(178,989명)는 제외

〈그림4-1〉 가중값 설정

$$\text{가중값} = \frac{\text{연령대별 인구수}}{\text{총인구수}} \times \frac{\text{총표본수}}{\text{연령대별 할당 표본수}}$$

〈표4-3〉 전라북도 도민 의식 수요조사 분석 설계 (가중치 부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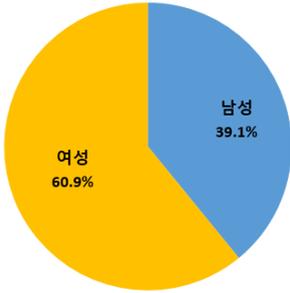
ID	조사지역	인구		표본수	인구비중에 따른 할당 표본수	가중치
		인구수(명)	비중(%)			
1	10대	178,989	0.106689	85	74.7	0.87862
2	20대	212,153	0.126457	131	88.5	0.67572
3	30대	194,215	0.115765	180	81.0	0.45020
4	40대	272,813	0.162614	121	113.8	0.94074
5	50대	302,242	0.180156	113	126.1	1.11601
6	60대 이상	517,256	0.308318	70	215.8	3.08318
전라북도 합계		1,677,668	1.000000	700	700.0	1.00000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04 기준

2) 응답자 일반 특성

-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274명(39.1%), 여성이 426명(60.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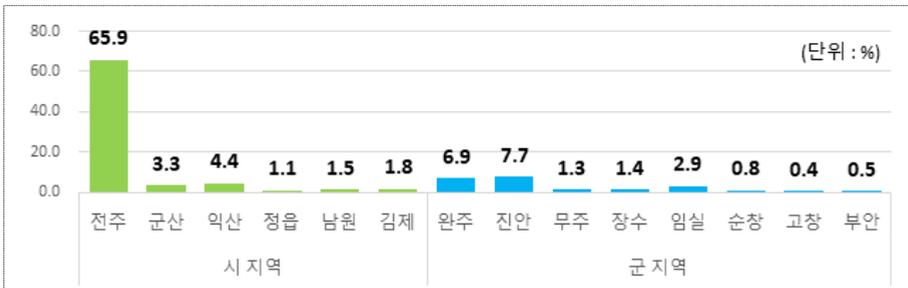
〈그림4-2〉 성별 응답자 분포



구분	빈도(명)	비중(%)
남성	274	39.1
여성	426	60.9
전체	700	100.0

- 거주지역별 분포를 보면, 시 지역이 546명(78.0%), 군 지역이 154명(22.0%)으로 분포되었으며, 그 중 전주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6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진안군 7.7%, 완주군 6.9%, 익산시 4.4%, 군산시 3.3%, 임실군 2.9%, 김제시 1.8%, 남원시 1.5%, 장수군 1.4%, 무주군 1.3%, 정읍시 1.1% 등 순으로 많았다.

〈그림4-3〉 거주 지역별 응답자 분포



구분	시 지역						군 지역								전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빈도(명)	461	23	31	8	10	13	49	54	9	10	20	6	3	4	700
비중(%)	65.9	3.3	4.4	1.1	1.5	1.8	6.9	7.7	1.3	1.4	2.9	0.8	0.4	0.5	100.0

- 소재지역별 분포를 보면, 동 소재지가 551명(78.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읍 소재지가 83명(11.8%), 면 소재지가 66명(9.4%)으로 분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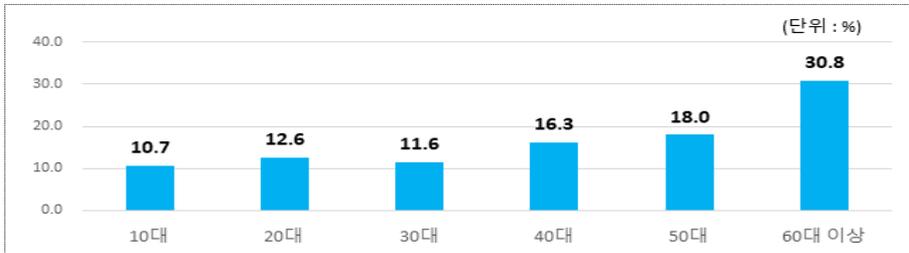
〈그림4-4〉 소재 지역별 응답자 분포



구분	빈도(명)	비중(%)
동 소재지	551	78.7
읍 소재지	83	11.8
면 소재지	66	9.4
전체	700	100.0

- 연령별 분포를 보면, 10대가 75명(10.7%), 20대가 89명(12.6%), 30대가 81명(11.6%), 40대가 114명(16.3%), 50대가 126명(18.0%), 60대 이상이 216명(30.8%)으로 분포되었다.

〈그림4-5〉 연령대별 응답자 분포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빈도(명)	75	89	81	114	126	216	700
비중(%)	10.7	12.6	11.6	16.3	18.0	30.8	100.0

- 혼인상태별 분포를 보면, 미혼자가 214명(30.5%), 기혼자가 427명(61.1%)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그 다음으로 이혼자가 30명(4.3%), 사별자가 20명(2.8%), 기타가 9명(1.3%)으로 분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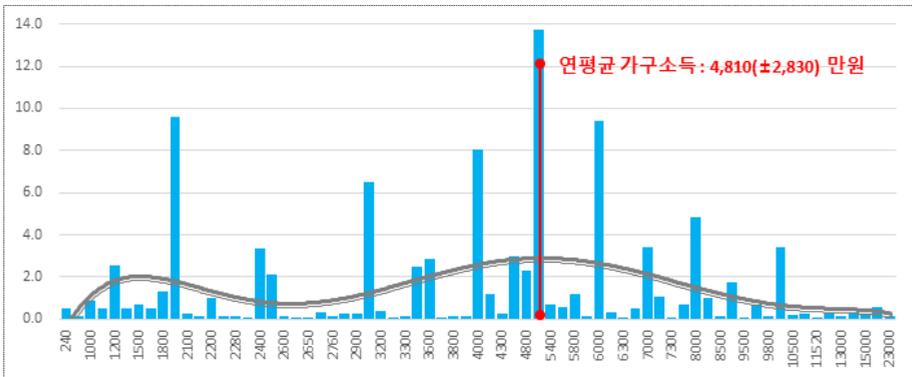
〈그림4-6〉 혼인상태별 응답자 분포



구분	빈도(명)	비중(%)
미혼	214	30.5
기혼	427	61.1
이혼	30	4.3
사별	20	2.8
기타	9	1.3
전체	700	100.0

- 연평균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응답자 평균 4,810만원(±2,8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7〉 연평균 가구소득 분포



구분	빈도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연평균 가구소득	568명	240만원	4,810만원	2,830만원	23,000만원

나. 도민의 주관적 행복도 현황

- 2020년 현재 도민의 주관적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현재는 평균 이상(70.4점)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복감의 기대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의 주관적 행복감을 기준으로 10년 전보다는 2.9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6.3점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미래의 행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4-8〉 주관적 행복감 변화 추이



10년 전	현재	10년 후
67.6점	70.4점	76.7점

주 : 100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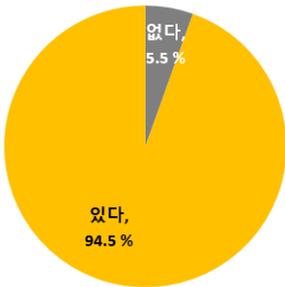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주관적 행복감을 권역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먼저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했을 경우 현재의 행복감은 군 지역이 72.3점으로 시 지역(69.9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10년 후 미래에 대한 행복기대 또한 군 지역(79.3점)이 시 지역(76.0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4-4〉 전북 권역별 주관적 행복감

지역 구분		10년 전 행복감	현재 행복감	10년 후 행복감
시/군	시 지역	67.3	69.9	76.0
	군 지역	68.4	72.3	79.3
도시/농촌	도시(동 지역)	66.9	70.2	76.2
	농촌(읍면 지역)	69.8	71.3	78.7

- 또한,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농촌 지역의 현재 행복감이 71.3점으로 도시 지역(70.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후 미래에 대한 행복기대도 농촌 지역이 78.7점으로 도시 지역(76.2점)보다 높게 나타나 군 단위 지역, 그리고 읍면 단위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행복감이 도시 지역 도민의 행복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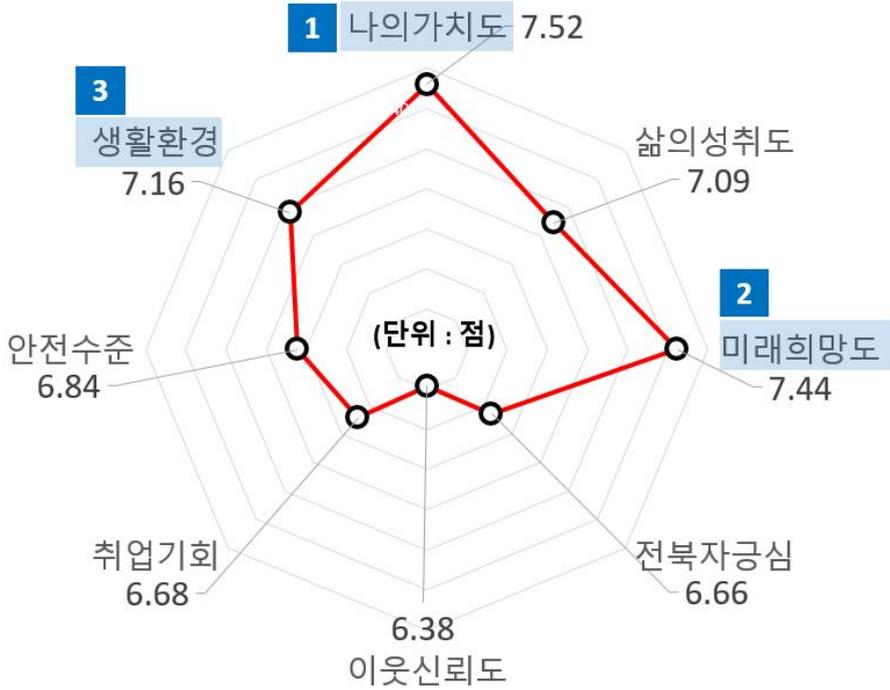
〈그림4-9〉 난처한 일 당했을 때 도움지인 여부



구분	빈도(명)	비중(%)
없다	38	5.5
있다	662	94.5
전체	700	100.0

-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가족을 포함해서 도움을 받을 지인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662명(94.5%)이 도움 지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평균 8.8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도민의 주관적 만족감을 조사하기 위해 「나의 가치도», 「삶의 성취도», 「미래희망도», 「전북자긍심», 「이웃신뢰도», 「취업기회», 「안전수준», 「생활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만족감이 '보통 이상(6.97점)'으로 평가되었다.
- 10가지 사항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중 「나의 가치도」에 대한 만족감이 7.52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미래희망도(7.44점), 생활환경(7.16점), 삶의 성취도(7.09점), 안전수준(6.84점), 취업기회(6.68점), 전북자긍심(6.66점), 이웃신뢰도(6.3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4-10〉 사항별 주관적 만족감



구분	나의 가치도	삶의 성취도	미래희망도	전복자긍심
평균점수	7.52	7.09	7.44	6.66

구분	이웃신뢰도	취업기회	안전수준	생활환경
평균점수	6.38	6.68	6.84	7.16

주 : 10점 척도 사용 < 매우 불만족(1점) ~ 매우 만족(10점) >

2. 경제

경제적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고용의 안정성(%)	고용불안 느낌	59.1	55.4	▼3.7
		고용불안 느끼지 않음	40.9	44.6	▲3.7
	2) 소득만족도(%)	만족	14.1	14.7	▲0.6
	3) 직업만족도(%)	만족	32.3	28.8	▼3.5
	4) 좋은 일자리 인식(%)	명예명성	2.9	2.6	▼0.3
		안정성	25.6	32.6	▲7.0
		수입	38.8	35.7	▼3.1
		적성·흥미	16.1	14.9	▼1.2
		보람·자아성취	4.2	4.3	▲0.1
		발전·장래성	5.8	5.4	▼0.4
	5) 주관적 소득수준(%)	여유	10.8	10.1	▼0.7
		적정	28.6	31.9	▲3.3
		모자람	60.6	58.1	▼2.5
	6) 계층의식(%)	상	2.4	2.2	▼0.2
		중	58.5	58.8	▲0.3
		하	39.1	39.0	▼0.1
	7) 계층이동성(%)	높음	22.7	22.5	▼0.2
		낮음	64.9	64.4	▼0.5
		모름	12.4	13.1	▲0.7
객관적 지표	8)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만원)	가구소득	5,828	5,156	▼672
		가계부채	7,910	4,973	▼2,937
	9) 소비자 물가지수	2015년=100	104.85	104.48	▼0.37
	10) 고용률 및 실업률(%)	고용률	60.9	59.3	▼1.6
실업률		3.8	2.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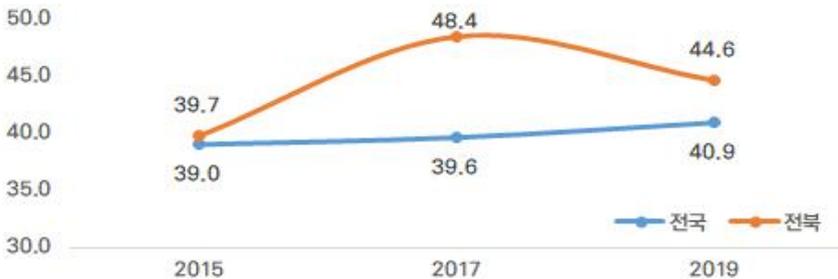
- 경제적 만족 분야의 지표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평균과 비교 시 전북의 경제적 만족분야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만, 고용의 안정성(▲3.7), 소득만족도(▲0.6),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 중 안정성(▲7.0)등의 지표는 전북의 지표가 전국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규모의 경우 전북이 4,973만원으로 이는 전국평균(7,910만원)보다 약 2,937만원이 적게 나타나 긍정적 지표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업률 또한 전북이 2.7%로 전국 평균(3.8%)보다 약 1.1%p더 낮게 나타나 긍정적 지표로 볼 수 있다.

〈표4-5〉 고용의 안정성(직장을 잃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

시도	2015년				2017년				2019년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	느끼지 않는 편	전혀 느끼지 않음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	느끼지 않는 편	전혀 느끼지 않음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	느끼지 않는 편	전혀 느끼지 않음
전국	16.4	44.6	31.1	7.9	17.0	43.4	30.8	8.8	15.6	43.5	32.5	8.4
서울	19.4	45.9	27.6	7.1	20.6	43.2	27.9	8.3	18.4	44.9	29.4	7.3
부산	15.8	44.0	34.7	5.4	15.2	44.8	31.5	8.5	12.9	45.9	33.6	7.6
대구	14.5	46.5	33.3	5.7	15.0	44.2	33.8	7.1	12.6	42.4	37.7	7.2
인천	18.2	47.3	27.7	6.8	20.4	44.6	27.1	7.9	15.8	46.5	30.3	7.4
광주	16.9	48.0	27.6	7.6	16.4	45.1	31.4	7.1	14.8	46.1	33.3	5.8
대전	16.9	47.3	29.6	6.2	19.0	44.5	30.2	6.3	16.3	42.5	33.4	7.8
울산	16.3	48.6	28.4	6.6	15.2	44.6	34.4	5.7	16.7	44.5	32.7	6.1
세종	12.7	43.1	33.5	10.8	14.8	35.7	36.7	12.8	15.6	39.9	34.2	10.2
경기	17.7	46.6	28.3	7.4	18.3	45.6	29.0	7.1	18.7	43.9	29.4	8.0
강원	10.9	37.4	38.0	13.7	12.9	38.8	33.1	15.2	7.9	42.0	37.8	12.4
충북	13.6	41.4	31.9	13.1	15.4	39.1	32.8	12.8	13.8	41.1	34.7	10.4
충남	11.6	40.1	37.0	11.3	13.9	41.0	34.5	10.6	13.9	38.2	37.7	10.2
전북	19.4	40.9	32.7	7.0	11.2	40.4	35.5	12.9	11.5	43.9	33.9	10.7
전남	13.7	36.9	39.1	10.4	14.2	38.1	35.2	12.5	10.6	38.8	40.3	10.3
경북	13.5	43.2	33.9	9.4	11.5	42.3	34.3	11.9	12.8	40.2	35.2	11.8
경남	13.2	41.9	36.5	8.4	16.2	43.7	32.2	7.9	12.8	44.1	34.7	8.4
제주	11.2	41.7	37.6	9.6	10.3	39.2	39.5	11.0	11.8	38.8	39.1	10.3
전국	16.4	44.6	31.1	7.9	17.0	43.4	30.8	8.8	15.6	43.5	32.5	8.4
전북	19.4	40.9	32.7	7.0	11.2	40.4	35.5	12.9	11.5	43.9	33.9	10.7
비교	▲3.0	▼3.7	▲1.6	▼0.9	▼5.8	▼3.0	▲4.7	▲4.1	▼4.1	▲0.4	▲1.4	▲2.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11〉 고용안정성 연도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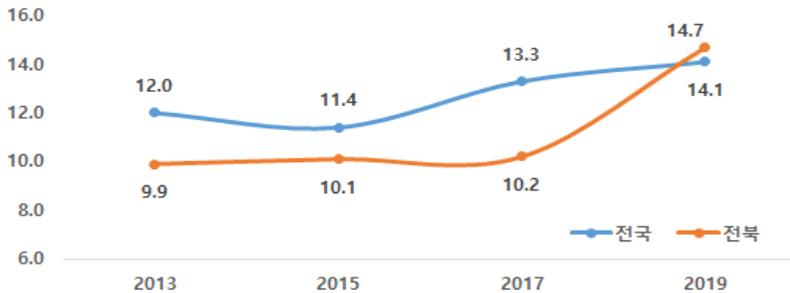
- 전라북도의 고용 안정성은 2019년 기준 44.6%로 전국 평균 40.9% 보다 3.7%p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고용 안정성 의 추이를 보면 2015년 39.7%에서 2017년 48.4%, 2019년 44.6%로 2017년을 기점으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여전히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소득만족도

시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12.0	39.0	48.9	11.4	42.3	46.3	13.3	40.7	46.0	14.1	42.4	43.6
서울	12.2	37.4	50.4	13.0	39.6	47.4	16.6	39.0	44.4	14.1	40.3	45.7
부산	11.6	39.1	49.2	8.6	42.4	48.9	9.8	40.5	49.8	12.1	41.1	46.8
대구	9.6	36.3	54.1	11.0	43.9	45.0	9.5	39.5	49.8	11.3	41.5	46.1
인천	10.5	37.0	52.5	10.1	42.6	47.3	11.8	40.0	48.2	15.5	41.9	42.6
광주	9.3	43.5	47.2	10.1	42.9	47.0	13.9	40.7	44.1	12.5	47.0	40.6
대전	12.9	41.0	46.1	12.4	43.8	43.8	12.6	39.2	46.8	14.6	39.3	46.1
울산	12.5	44.1	43.5	9.6	47.9	42.5	9.7	44.6	44.1	11.0	40.9	46.4
세종				14.7	44.0	41.4	19.9	41.0	39.2	15.1	45.3	37.1
경기	13.3	37.0	49.7	11.1	41.4	47.5	12.8	39.9	47.3	14.7	42.2	43.2
강원	14.8	45.9	39.2	12.7	43.9	43.4	13.4	44.1	42.5	15.2	44.7	40.1
충북	12.4	40.1	47.4	11.3	40.7	48.0	13.2	38.5	48.3	12.4	44.6	43.0
충남	12.7	40.4	46.8	12.9	45.0	42.1	11.6	44.7	43.8	14.5	45.2	40.2
전북	9.9	42.3	47.8	10.1	41.4	48.4	10.2	46.0	42.6	14.7	41.8	43.5
전남	12.7	39.6	47.7	11.6	42.4	46.0	15.7	42.6	41.7	15.6	45.7	38.7
경북	9.3	40.9	49.8	11.4	46.6	42.1	12.7	40.3	47.1	13.3	42.3	44.4
경남	12.2	40.3	47.6	11.6	44.0	44.4	11.7	42.7	45.7	13.1	46.0	40.9
제주	15.0	43.7	41.3	12.7	46.2	41.1	14.6	45.0	37.6	14.2	45.5	40.3
전국	12.0	39.0	48.9	11.4	42.3	46.3	13.3	40.7	46.0	14.1	42.4	43.6
전북	9.9	42.3	47.8	10.1	41.4	48.4	10.2	46.0	42.6	14.7	41.8	43.5
비교	▼2.1	▲3.3	▼1.1	▼1.3	▼0.9	▲2.1	▼3.1	▲5.3	▼3.4	▲0.6	▼0.6	▼0.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12〉 소득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4.7%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평균 14.1%에 비해 약 0.6%p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북의 소득만족도는 2013년 9.9%에서 2019년 14.7%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전국평균보다 소득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4-7〉 직업만족도

시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26.3	50.2	23.6	25.2	52.6	22.2	27.7	51.6	20.7	32.3	51.4	16.3
서울	27.5	49.6	22.8	27.8	49.0	23.1	30.5	49.1	20.4	32.1	50.3	17.5
부산	23.2	51.3	25.6	23.0	56.7	20.2	22.7	54.3	23.0	26.9	60.6	12.5
대구	21.5	52.4	26.2	19.0	54.6	26.4	24.4	56.7	18.9	22.9	55.4	16.4
인천	26.5	47.7	25.9	24.8	50.4	24.8	27.3	47.6	25.2	30.7	51.2	18.1
광주	21.0	52.4	26.6	20.4	56.9	22.7	24.1	59.5	12.2	28.5	56.6	11.9
대전	30.0	48.6	21.4	30.1	51.2	18.8	31.5	48.1	20.3	32.7	50.2	17.1
울산	26.7	53.0	20.3	21.4	57.0	21.5	26.3	53.1	20.6	31.8	50.3	17.9
세종				30.0	51.8	18.0	42.0	41.1	17.0	44.8	42.2	10.9
경기	25.4	50.4	24.2	23.6	52.1	24.3	27.3	50.4	22.3	33.2	49.0	17.8
강원	31.4	49.1	19.5	31.8	52.7	15.4	34.1	49.4	16.5	40.5	49.1	10.4
충북	27.7	49.6	22.8	27.6	54.6	17.9	25.4	52.4	22.2	31.9	54.2	13.9
충남	29.9	52.0	18.0	27.1	53.2	19.8	23.7	58.4	17.8	33.6	49.6	16.8
전북	27.5	50.9	21.7	26.7	50.7	22.5	31.0	52.2	13.9	28.8	58.7	9.9
전남	28.8	52.5	18.7	27.6	56.1	16.3	30.1	55.8	14.1	36.0	53.2	9.6
경북	26.5	48.8	24.7	22.9	59.3	17.8	27.3	53.5	19.2	31.3	53.7	15.0
경남	26.9	47.0	26.1	26.5	52.5	21.0	24.7	54.0	21.4	33.5	49.9	16.7
제주	23.1	58.6	18.3	27.2	55.3	17.4	32.6	55.3	8.5	40.2	46.5	9.8
전국	26.3	50.2	23.6	25.2	52.6	22.2	27.7	51.6	20.7	32.3	51.4	16.3
전북	27.5	50.9	21.7	26.7	50.7	22.5	31.0	52.2	13.9	28.8	58.7	9.9
비교	▲1.2	▲0.7	▼1.9	▲1.5	▼1.9	▲0.3	▲3.3	▲0.6	▼6.8	▼3.5	▲7.3	▼6.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13〉 직업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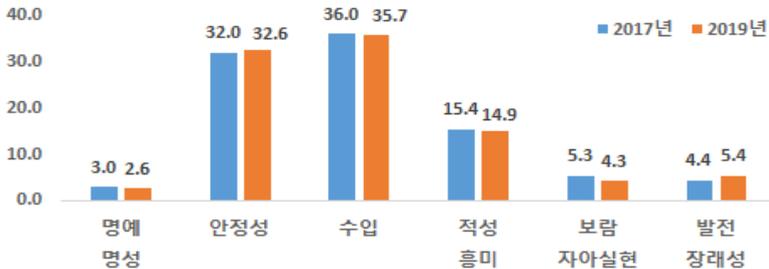
-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다가 2019년 기준 28.8%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평균 32.3%에 비해 약 3.5%p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전북의 직업만족도는 2013년 27.5%에서 2017년 31.0%로 증가추이를 보였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28.8%로 하락하였고 같은 시기 전국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4-8〉 좋은 일자리 인식(직업선택요인)

시도	2017년							2019년						
	명예 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 흥미	보람 자아 실현	발전 장래성	기타	명예 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 흥미	보람 자아 성취	발전 장래성	기타
전국	2.9	27.1	39.1	17.1	5.4	5.6	0.2	2.9	25.6	38.8	16.1	4.2	5.8	3.9
서울	2.7	25.4	38.8	19.8	6.1	4.9	0.1	2.9	22.2	40.9	15.7	4.7	6.7	3.3
부산	3.1	26.9	37.0	16.5	5.7	6.6	0.1	3.2	22.7	37.2	21.3	4.5	6.8	3.0
대구	2.7	26.9	40.8	16.7	4.0	6.2	0.5	3.4	26.6	37.0	15.3	3.6	6.6	3.8
인천	3.4	26.9	41.4	13.9	5.0	6.5	0.3	3.9	25.5	37.9	14.9	3.8	5.6	5.1
광주	1.6	29.0	41.4	15.6	4.8	5.5	-	2.0	29.5	39.7	11.7	4.2	6.3	5.2
대전	3.6	27.1	37.9	19.2	5.5	4.4	-	4.4	27.6	34.2	17.0	4.4	7.2	4.0
울산	3.7	27.1	44.4	13.3	4.7	4.9	0.1	3.0	26.9	43.5	12.8	3.1	3.7	4.9
세종	3.2	30.3	37.5	16.3	6.1	5.2	-	2.4	28.1	34.3	19.0	7.0	4.9	3.3
경기	2.9	26.9	38.3	18.2	5.4	6.4	0.1	3.0	24.1	39.2	18.3	3.7	5.2	4.4
강원	3.8	28.0	37.2	17.5	5.7	4.8	0.2	2.5	26.4	39.3	15.6	5.3	4.5	3.0
충북	2.9	30.5	40.6	14.6	4.9	4.1	0.2	2.6	28.2	37.6	13.1	4.5	6.6	3.5
충남	2.6	27.0	39.7	13.5	7.5	6.7	0.1	2.7	28.3	36.9	14.0	5.0	5.8	3.4
전북	3.0	32.0	36.0	15.4	5.3	4.4	0.1	2.6	32.6	35.7	14.9	4.3	5.4	3.2
전남	2.8	26.0	38.4	16.5	4.8	6.0	0.1	3.6	30.2	36.6	13.1	3.8	5.4	3.0
경북	2.3	28.4	42.6	14.1	4.5	5.0	0.1	2.5	30.7	39.2	12.4	3.3	4.4	3.5
경남	3.5	26.6	38.6	16.5	5.1	4.6	0.3	1.6	26.7	38.1	16.2	4.3	6.0	4.4
제주	2.4	29.6	40.6	15.8	5.2	3.4	0.1	3.5	23.9	42.1	14.6	4.7	4.3	4.8
전국	2.9	27.1	39.1	17.1	5.4	5.6	0.2	2.9	25.6	38.8	16.1	4.2	5.8	3.9
전북	3.0	32.0	36.0	15.4	5.3	4.4	0.1	2.6	32.6	35.7	14.9	4.3	5.4	3.2
비교	▲0.1	▲4.9	▼3.1	▼1.7	▼0.1	▼1.2	▼0.1	▼0.3	▲7.0	▼3.1	▼1.2	▲0.1	▼0.4	▼0.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14〉 전북의 좋은 일자리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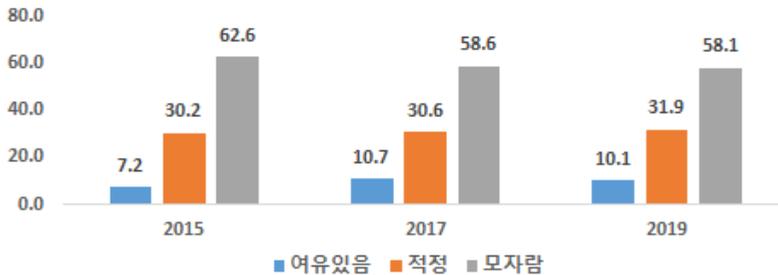
- 전북의 좋은 일자리의 요건 중 가장 높은 요건은 2019년 기준 수입이 35.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안정성(32.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과 비교 시 안정성의 경우 전국평균(25.6%)보다 7.0%p 더 높게 나타나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안정성이 높았다.

〈표4-9〉 주관적 소득 수준

시도	2015년(%)			2017년(%)			2019년(%)		
	여유있음	걱정	모자람	여유있음	걱정	모자람	여유있음	걱정	모자람
전국	8.3	27.0	64.7	10.8	26.8	62.4	10.8	28.6	60.6
서울	9.9	24.5	65.6	14.2	25.5	60.3	12.1	27.9	60.0
부산	6.6	27.0	66.3	6.7	27.1	66.2	7.8	29.8	62.4
대구	8.4	27.0	64.6	10.3	23.7	66.0	10.0	27.6	62.5
인천	7.5	27.2	65.3	8.0	24.2	67.7	11.2	31.3	57.5
광주	5.6	26.8	67.6	9.2	26.3	64.5	8.5	26.6	64.9
대전	10.0	26.1	63.9	13.0	27.5	59.6	10.9	28.0	61.1
울산	8.5	27.7	63.8	8.1	28.4	63.5	11.1	25.8	63.0
세종	12.7	29.8	57.5	19.5	30.0	50.5	13.4	37.1	49.5
경기	8.1	25.7	66.2	11.0	25.4	63.7	12.3	25.3	62.4
강원	9.0	29.2	61.8	9.7	29.2	61.1	9.5	31.8	58.7
충북	6.9	27.8	65.3	10.6	25.2	64.3	9.1	30.4	60.6
충남	9.4	26.0	64.6	8.4	32.1	59.5	11.5	32.6	55.9
전북	7.2	30.2	62.6	10.7	30.6	58.6	10.1	31.9	58.1
전남	8.2	29.6	62.1	11.8	29.2	59.1	9.9	32.8	57.4
경북	8.1	29.0	62.9	10.0	30.3	59.7	9.8	30.4	59.9
경남	8.4	31.2	60.4	8.9	28.5	62.6	9.3	29.7	60.9
제주	6.9	32.4	60.7	11.9	31.0	57.1	8.4	30.6	61.1
전국	8.3	27.0	64.7	10.8	26.8	62.4	10.8	28.6	60.6
전북	7.2	30.2	62.6	10.7	30.6	58.6	10.1	31.9	58.1
비교	▼1.1	▲3.2	▼2.1	▼0.1	▲3.8	▼3.8	▼0.7	▲3.3	▼2.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15〉 전북의 주관적 소득수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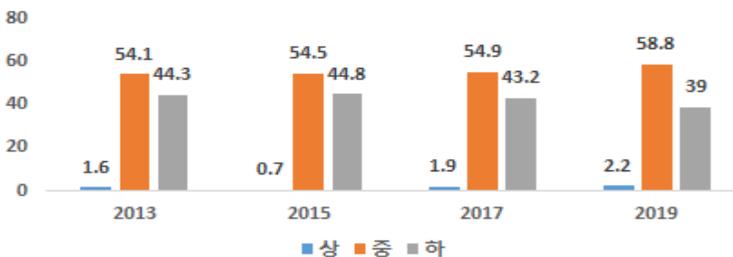
- 전북의 주관적 소득수준은 2019년 모자람이 58.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이어서 걱정하다(31.9%), 여유있다(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소득수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모자람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걱정과 여유있음은 증가추이를 보여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4-10〉 계층의식

시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전국	1.9	57.4	40.7	2.4	57.9	39.7	2.7	57.6	39.7	2.4	58.5	39.1
서울	2.6	59.9	37.5	3.6	56.0	40.4	4.5	57.0	38.5	3.9	57.1	39.0
부산	2.4	55.6	42.0	2.0	54.6	43.4	1.5	57.8	40.7	2.2	59.3	38.5
대구	2.0	54.3	43.7	1.8	60.1	38.2	2.7	57.3	40.0	3.2	56.2	40.7
인천	1.4	53.3	45.4	1.6	55.4	43.0	1.5	55.0	43.6	1.5	59.5	39.0
광주	1.1	62.2	36.7	1.8	58.9	39.3	1.7	58.8	39.5	1.7	57.3	40.9
대전	2.1	61.2	36.7	2.3	65.0	32.7	3.4	59.6	37.0	2.8	61.6	35.6
울산	1.8	60.2	38.0	3.2	59.4	37.4	1.8	64.6	33.6	2.3	60.2	37.5
세종	-	-	-	3.2	67.4	29.3	5.1	67.9	27.0	5.3	72.8	21.9
경기	1.8	57.8	40.4	2.2	60.0	37.8	2.4	57.1	40.5	2.0	58.3	39.7
강원	3.0	58.8	38.2	2.8	54.3	42.8	2.5	54.8	42.7	1.6	56.7	41.7
충북	1.5	55.7	42.8	2.1	60.5	37.4	2.0	57.9	40.1	2.1	58.7	39.2
충남	1.2	53.6	45.2	1.4	54.9	43.7	2.0	62.8	35.2	1.7	58.8	39.5
전북	1.6	54.1	44.3	0.7	54.5	44.8	1.9	54.9	43.2	2.2	58.8	39.0
전남	1.3	53.4	45.3	1.9	56.2	41.9	3.9	58.7	37.4	3.1	61.3	35.6
경북	1.5	56.9	41.5	2.9	57.2	39.8	2.2	58.3	39.5	1.3	58.9	39.9
경남	1.5	58.2	40.3	2.4	60.6	37.1	1.9	56.3	41.8	2.1	58.6	39.3
제주	1.5	54.5	44.0	1.5	58.7	39.8	2.1	63.5	34.4	2.2	58.5	39.4
전국	1.9	57.4	40.7	2.4	57.9	39.7	2.7	57.6	39.7	2.4	58.5	39.1
전북	1.6	54.1	44.3	0.7	54.5	44.8	1.9	54.9	43.2	2.2	58.8	39.0
비교	▼0.3	▼3.3	▲3.6	▼1.7	▼3.4	▲5.1	▼0.8	▼2.7	▲3.5	▼0.2	▲0.3	▼0.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16〉 전북의 계층의식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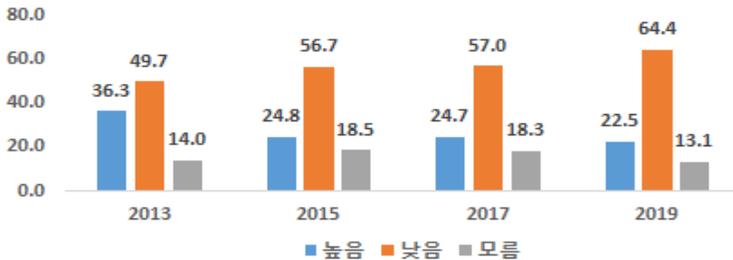
- 전북의 계층의식은 중위계층 58.8%, 하위계층 39.0%, 상위계층 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 시 중위계층은 전국 평균 58.5%보다 0.3%p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계층의식 변화추이를 보면 2013년 이후 하위계층은 44.3%에서 2019년 39.0%로 낮아진 반면 상위계층과 중위계층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11〉 계층이동성

시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높음	낮음	모름									
전국	31.2	54.2	14.6	22.8	61.3	15.9	22.7	65.0	12.3	22.7	64.9	12.4
서울	31.3	53.2	15.5	22.9	63.2	13.9	21.7	68.6	9.7	20.5	66.6	12.8
부산	32.0	54.8	13.1	21.2	59.9	18.9	20.8	66.9	12.4	29.0	63.1	7.8
대구	28.4	55.4	16.2	26.1	56.9	17.0	23.5	65.7	10.8	25.2	63.2	11.6
인천	26.2	58.0	15.8	20.9	64.1	15.0	22.4	64.4	13.2	20.2	65.1	14.6
광주	28.3	60.5	11.1	22.2	64.7	13.1	26.3	65.3	8.4	21.5	65.9	12.6
대전	35.4	51.1	13.5	25.5	58.4	16.2	27.0	63.9	9.0	27.0	62.3	10.7
울산	30.6	54.2	15.3	20.5	62.8	16.7	22.4	64.1	13.4	22.9	65.8	11.3
세종				28.8	60.9	10.2	32.0	60.1	7.9	20.7	70.2	9.1
경기	28.9	57.2	14.0	20.1	63.9	16.0	20.9	67.4	11.8	21.0	68.3	10.7
강원	34.4	49.1	16.5	27.1	53.2	19.6	26.4	55.0	18.6	24.0	59.9	16.0
충북	37.5	47.5	15.0	29.1	57.0	13.9	20.6	67.0	12.4	23.5	64.2	12.4
충남	27.3	58.5	14.2	23.4	60.8	15.8	22.5	59.8	17.7	22.0	61.4	16.6
전북	36.3	49.7	14.0	24.8	56.7	18.5	24.7	57.0	18.3	22.5	64.4	13.1
전남	36.3	47.5	16.2	24.4	59.3	16.3	32.7	54.2	13.1	31.1	53.1	15.8
경북	36.0	49.2	14.7	20.7	61.8	17.5	26.0	59.1	14.9	21.5	61.6	16.9
경남	33.3	53.7	13.1	25.9	58.3	15.7	20.5	66.8	12.6	22.4	66.1	11.5
제주	33.0	49.1	18.0	26.3	54.9	18.8	22.2	59.6	18.2	31.1	55.5	13.5
전국	31.2	54.2	14.6	22.8	61.3	15.9	22.7	65.0	12.3	22.7	64.9	12.4
전북	36.3	49.7	14.0	24.8	56.7	18.5	24.7	57.0	18.3	22.5	64.4	13.1
비교	▲5.1	▼4.5	▼0.6	▲2.0	▼4.6	▲2.6	▲2.0	▼8.0	▲6.0	▼0.2	▼0.5	▲0.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17〉 전북의 계층이동성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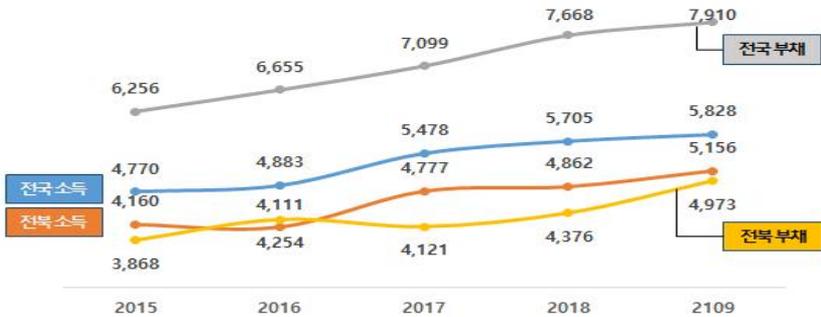
- 전북의 계층이동성은 낮음이 64.4%로 높은 수준이었고 높음은 22.5%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 시 계층이동성이 낮은 경우 전국 64.9%보다 0.5%p 낮게 나타났다. 전북의 계층이동성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3년 이후 낮음은 49.7%에서 2019년 64.4%로 높아진 반면 높음은 반대로 낮아져 계층간의 이동이 어렵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12〉 연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시도	연 가구소득(만원)					가계부채(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4,770	4,883	5,478	5,705	5,828	6,256	6,655	7,099	7,668	7,910
서울	5,253	5,357	6,172	6,495	6,595	9,425	9,671	9,690	10,073	10,635
부산	4,378	4,387	4,946	4,996	5,181	4,255	4,676	5,181	6,096	6,217
대구	4,477	4,734	5,230	5,351	5,301	5,587	6,479	6,424	7,670	7,546
인천	4,378	4,642	5,069	5,536	5,704	6,346	6,486	6,333	7,065	7,277
광주	4,737	4,889	5,386	5,410	5,796	3,912	3,936	4,312	4,785	5,003
대전	4,988	4,941	5,123	5,309	5,688	5,217	5,366	6,158	6,675	6,763
울산	5,971	6,018	6,341	6,581	6,413	5,726	6,050	7,352	7,568	6,672
경기	5,083	5,205	5,913	6,320	6,430	7,839	8,046	9,028	9,850	10,217
			-	6,872	7,147			-	10,254	10,145
강원	4,177	4,226	4,806	4,817	5,088	4,004	4,201	4,153	4,508	4,924
충북	4,279	4,302	4,638	4,815	5,042	4,183	4,981	5,195	5,112	5,195
충남	4,398	4,647	5,088	5,247	5,348	4,705	5,040	5,941	5,590	5,225
전북	4,160	4,111	4,777	4,862	5,156	3,868	4,254	4,121	4,376	4,973
전남	4,111	4,209	4,701	4,777	4,981	3,125	4,064	4,188	4,561	4,765
경북	4,397	4,529	5,008	5,055	4,830	3,980	4,652	4,719	5,082	5,067
경남	4,686	4,815	5,168	5,095	5,187	4,358	5,317	6,141	6,728	6,804
제주	4,060	4,181	5,359	5,126	5,437	4,454	5,273	5,942	6,466	7,289
전국	4,770	4,883	5,478	5,705	5,828	6,256	6,655	7,099	7,668	7,910
전북	4,160	4,111	4,777	4,862	5,156	3,868	4,254	4,121	4,376	4,973
비교	▼610	▼772	▼701	▼843	▼672	▼2,388	▼2,401	▼2,978	▼3,292	▼2,937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4-18〉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규모 변화 추이



- 전북의 연 가구소득은 2019년 5,156만원으로 전국 평균 5,828만원에 비해 약 672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경우 2019년 4,973만원으로 전국평균 7,910만원에 비해 약 2,937만원이 적었으며 가구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 또한 전국평균 135.7%에 반해 전북은 96.5%로 비교적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4-13〉 소비자 물가지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100.00	100.97	102.93	104.45	104.85
서울	100.00	101.18	103.20	104.58	105.20
부산	100.00	101.18	102.99	104.78	105.29
대구	100.00	101.00	103.06	104.85	105.55
인천	100.00	100.85	102.77	104.43	104.71
광주	100.00	100.92	103.03	104.24	104.47
대전	100.00	100.68	102.35	103.93	104.15
울산	100.00	100.99	102.86	103.92	103.59
경기	100.00	100.94	102.97	104.50	104.92
강원	100.00	100.79	102.80	104.44	105.32
충북	100.00	100.57	102.58	104.26	104.64
충남	100.00	100.69	102.64	104.11	104.01
전북	100.00	100.54	102.40	104.15	104.48
전남	100.00	100.94	103.08	104.63	104.97
경북	100.00	100.69	102.55	104.08	104.26
경남	100.00	100.93	102.55	103.96	104.05
제주	100.00	101.29	103.62	105.42	105.76
전국	100.00	100.97	102.93	104.45	104.85
전북	100.00	100.54	102.40	104.15	104.48
비교	-	▼0.43	▼0.53	▼0.30	▼0.37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주 : 2015=100

〈그림4-19〉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 추이



- 전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9년 기준 104.48로 전국 평균 104.85보다 약 0.37p 낮아 전국평균 물가보다 전북의 물가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소비자물가는 2016년 (100.54)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평균 물가지수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4-14〉 고용률 및 실업률

시도	고용률								실업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59.5	60.2	60.3	60.4	60.8	60.7	60.9	3.1	3.5	3.6	3.7	3.7	3.8	3.8		
서울	59.8	60.4	60.0	60.1	60.2	59.6	60.0	4.0	4.5	4.2	4.3	4.5	4.8	4.4		
부산	55.8	56.4	55.9	56.0	56.3	55.7	56.6	3.8	3.8	4.1	3.9	4.6	4.1	3.7		
대구	57.7	58.4	59.2	59.1	58.8	58.2	57.9	3.3	3.9	3.5	4.2	4.0	4.4	3.7		
인천	61.0	61.0	60.9	61.6	61.7	62.9	62.5	4.2	4.7	5.1	4.9	4.6	4.3	4.4		
광주	57.0	58.6	58.4	58.0	59.0	59.4	59.3	2.9	2.8	3.0	3.1	2.9	3.8	3.7		
대전	57.7	59.4	60.1	60.4	58.9	58.7	59.8	3.1	3.4	3.5	3.3	3.4	4.2	4.2		
울산	58.7	57.9	58.7	58.8	59.8	59.0	59.1	2.1	2.7	2.9	3.8	3.5	4.6	4.2		
세종					61.2	61.8	62.5					2.3	2.3	2.7		
경기	60.0	61.3	61.4	61.5	62.1	62.0	61.9	3.0	3.4	3.9	3.9	3.9	3.8	3.8		
강원	55.9	56.5	57.5	58.0	61.0	60.7	62.3	2.4	3.1	3.3	2.9	2.6	2.9	3.6		
충북	59.8	61.8	62.2	61.9	62.6	63.3	62.9	2.1	3.0	2.6	2.6	2.2	2.4	3.1		
충남	62.8	62.4	62.4	62.0	62.3	63.5	63.7	2.8	3.4	3.5	3.1	2.8	3.1	2.9		
전북	58.1	57.7	58.5	59.4	58.6	58.3	59.3	2.0	2.5	1.7	2.1	2.5	2.7	2.7		
전남	61.7	61.0	61.5	61.6	62.1	62.4	63.4	2.1	2.9	2.5	3.0	3.2	2.8	2.6		
경북	61.7	62.8	62.0	62.1	62.5	61.6	61.7	3.1	2.9	3.1	3.2	2.8	4.1	3.9		
경남	59.9	59.7	60.0	60.1	60.9	61.4	61.3	2.1	2.5	2.6	3.3	2.9	3.0	3.8		
제주	65.9	66.6	67.9	68.6	70.9	68.4	68.4	1.8	2.0	1.9	2.2	1.9	2.0	2.1		
전국	59.5	60.2	60.3	60.4	60.8	60.7	60.9	3.1	3.5	3.6	3.7	3.7	3.8	3.8		
전북	58.1	57.7	58.5	59.4	58.6	58.3	59.3	2.0	2.5	1.7	2.1	2.5	2.7	2.7		
비교	▼1.4	▼2.5	▼1.8	▼1.0	▼2.2	▼2.4	▼1.6	▼1.1	▼1.0	▼1.9	▼1.6	▼1.2	▼1.1	▼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그림4-20〉 고용률 및 실업률 변화 추이



- 전북의 고용률은 2019년 59.3%로 전국평균 60.9%보다 약 1.6%p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2019년 2.7%로 전국평균 3.8%보다 약 1.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증감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3. 가족관계

가족관계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가족관계만족도(%)	만족	56.7	57.5	▲0.8
	2)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시간,분)	가정관리 시간	1:34	1:37	▲0:3
		가족돌봄 시간	0:23	0:20	▼0:3
객관적 지표	3)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가족과 함께	35.5	39.7	▲4.2
	4) 부모와의 교류(%)	만남- 한달 한두번	41.8	45.3	▲3.5
		전화통화-일주일 한두번	44.3	42.6	▼1.7

〈표4-15〉 가족관계 만족도

시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56.1	39.5	4.3	55.2	40.5	4.3	56.5	39.5	4.1	56.7	40.5	2.9
서울	54.2	41.3	4.4	57.5	38.3	4.2	54.7	40.4	4.9	53.5	43.4	3.0
부산	53.4	42.7	3.8	54.5	41.3	4.2	56.8	39.6	3.0	52.6	43.3	4.2
대구	49.3	46.5	4.2	49.9	44.9	5.1	54.0	42.2	3.3	46.6	49.2	4.1
인천	52.7	41.1	6.2	56.6	39.5	3.9	54.9	40.5	4.6	55.8	40.7	3.5
광주	53.6	42.3	4.2	55.9	40.3	3.8	61.9	34.9	2.3	58.5	38.8	2.7
대전	57.2	37.9	4.9	59.1	36.6	4.3	55.7	40.3	3.2	58.2	39.7	2.0
울산	52.9	42.8	4.4	49.8	46.8	3.5	54.9	41.4	3.3	57.6	40.5	2.0
세종							67.1	29.4	2.8	65.8	32.6	1.7
경기	56.8	38.5	4.8	51.9	43.1	4.9	56.2	39.6	4.3	56.5	40.5	3.0
강원	66.3	30.2	3.5	57.0	39.1	3.8	60.4	35.9	3.0	63.6	34.2	2.2
충북	56.1	38.1	5.7	57.9	37.5	4.6	61.0	35.2	3.0	60.7	36.9	2.4
충남	59.6	36.0	4.5	60.5	35.8	3.7	61.5	35.1	2.8	62.9	34.6	2.4
전북	60.1	36.4	3.4	54.0	42.0	4.1	59.8	37.6	0.0	57.5	40.4	2.0
전남	61.7	36.0	2.3	62.3	35.0	2.7	57.6	39.6	2.4	65.6	32.1	2.3
경북	59.1	37.6	3.3	53.6	42.5	3.9	54.7	40.9	3.8	60.2	38.2	1.6
경남	57.2	38.9	3.8	55.8	40.1	4.1	54.9	41.4	2.8	57.5	40.2	2.4
제주	63.7	32.6	3.7	56.2	40.7	3.1	57.2	38.7	3.4	61.2	36.9	1.9
전국	56.1	39.5	4.3	55.2	40.5	4.3	56.5	39.5	4.1	56.7	40.5	2.9
전북	60.1	36.4	3.4	54.0	42.0	4.1	59.8	37.6	0.0	57.5	40.4	2.0
비교	▲4.0	▼3.1	▼0.9	▼1.2	▲1.5	▼0.2	▲3.3	▼1.9	▼4.1	▲0.8	▼0.1	▼0.9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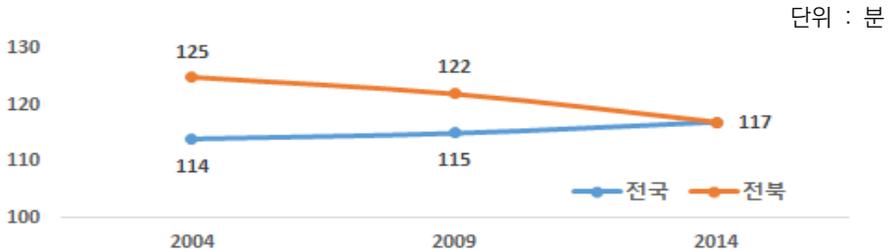
- 전북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8년 만족이 57.5%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 56.7%보다 약 0.8%p 더 높게 나타났다.

〈표4-16〉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지역별 평균시간)

시도	2004년			2009년			2014년		
	소계	가정관리 시간	가족돌봄 시간	소계	가정관리 시간	가족돌봄 시간	소계	가정관리 시간	가족돌봄 시간
전국	1:54	1:29	0:26	1:55	1:30	0:25	1:57	1:34	0:23
서울	1:47	1:23	0:24	1:50	1:26	0:24	1:50	1:27	0:23
부산	1:59	1:35	0:24	1:53	1:31	0:22	1:55	1:36	0:19
대구	1:51	1:23	0:28	1:53	1:29	0:24	1:56	1:35	0:21
인천	1:54	1:27	0:27	1:55	1:30	0:25	1:53	1:27	0:26
광주	1:48	1:24	0:24	1:51	1:22	0:29	1:52	1:30	0:22
대전	1:56	1:29	0:27	1:52	1:28	0:24	1:54	1:31	0:23
울산	1:55	1:30	0:25	1:57	1:30	0:27	2:05	1:33	0:32
경기	1:58	1:28	0:30	1:54	1:27	0:27	1:52	1:26	0:26
강원	1:55	1:31	0:24	1:50	1:34	0:16	1:57	1:35	0:22
충북	1:53	1:27	0:26	1:55	1:30	0:25	1:56	1:35	0:21
충남	2:01	1:32	0:29	1:53	1:28	0:25	2:04	1:41	0:23
전북	2:05	1:40	0:25	2:02	1:35	0:27	1:57	1:37	0:20
전남	1:55	1:33	0:22	1:53	1:29	0:24	2:00	1:44	0:16
경북	1:48	1:26	0:22	1:59	1:35	0:24	1:57	1:37	0:20
경남	1:55	1:31	0:24	2:03	1:37	0:26	2:02	1:38	0:24
제주	1:56	1:28	0:28	1:58	1:25	0:33	1:54	1:29	0:25
전국	1:54	1:29	0:26	1:55	1:30	0:25	1:57	1:34	0:23
전북	2:05	1:40	0:25	2:02	1:35	0:27	1:57	1:37	0:20
비교	▲0:11	▲0:11	▼0:1	▲0:7	▲0:5	▲0:2	-	▲0:3	▼0:3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각 연도)

〈그림4-21〉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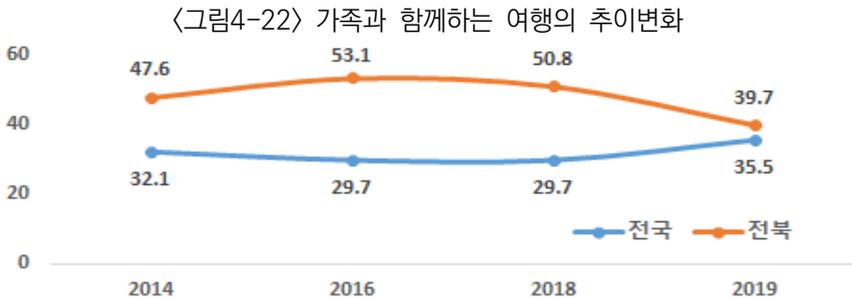


-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경우 전라북도도 전체적으로 1시간 57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으며 이중 1시간 37분은 가정을 관리하는 시간으로, 20분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2시간 5분에서 2014년 1시간 57분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17〉 여가활동 동반자의 가족 비중도

시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전국	32.1	29.7	29.7	35.5
서울	30.5	24.2	24.0	30.3
부산	27.9	29.9	33.0	43.5
대구	31.2	27.8	34.3	39.3
인천	28.0	23.7	24.5	32.4
광주	45.5	53.0	36.7	47.2
대전	25.7	19.1	28.0	31.2
울산	35.9	26.1	21.0	35.0
세종	20.1	25.3	23.7	51.6
경기	30.1	24.4	23.2	32.1
강원	29.0	23.4	36.7	44.9
충북	26.1	38.0	39.6	43.0
충남	25.1	26.6	29.0	40.4
전북	47.6	53.1	50.8	39.7
전남	51.5	56.4	50.8	44.2
경북	34.5	33.5	30.0	32.0
경남	35.4	36.9	41.9	36.6
제주	35.7	40.5	21.5	28.9
전국	32.1	29.7	29.7	35.5
전북	47.6	53.1	50.8	39.7
비교		▲15.5	▲23.4	▲4.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연도)



- 전라북도의 여가활동을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를 보면 2019년 39.7%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 35.5%보다 약 4.2%p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4년 47.6%에서 2018년 50.8%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39.7%로 급감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전국평균의 경우는 2014년 32.1%, 2019년 35.5%로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8〉 부모님과과의 교류

시도	만남					전화통화				
	거의 매일	일주일 한두번	한달 한두번	1년 몇번	거의 안함	거의 매일	일주일 한두번	한달 한두번	1년 몇번	거의 안함
전국	5.1	16.7	41.8	34.2	2.2	15.4	44.3	32.1	5.1	3.1
서울	4.0	13.6	40.1	40.0	2.3	16.7	47.1	28.8	4.6	2.8
부산	7.3	18.7	48.3	24.4	1.3	18.4	44.0	29.3	3.6	4.7
대구	6.1	22.1	48.4	21.9	1.6	14.9	45.9	30.7	6.1	2.3
인천	3.9	18.4	34.1	41.2	2.4	14.2	39.0	36.3	7.0	3.5
광주	4.5	19.6	44.9	29.1	2.0	14.6	39.6	37.8	5.1	2.8
대전	3.8	22.0	48.3	24.3	1.6	15.4	47.2	30.1	4.7	2.6
울산	3.2	16.6	44.8	34.0	1.4	13.2	46.6	30.4	6.6	3.2
경기	3.2	11.5	40.8	42.4	2.1	12.5	42.0	38.8	4.5	2.2
강원	8.5	23.2	40.0	26.1	2.2	23.9	44.8	20.6	6.1	4.6
충북	8.9	24.3	40.0	23.8	3.1	16.9	47.5	25.9	4.6	5.1
충남	5.4	18.9	38.8	35.7	1.3	14.9	48.8	26.8	6.6	2.9
전북	7.8	22.3	45.3	22.3	2.3	15.9	42.6	29.8	7.2	4.5
전남	10.3	20.9	41.6	26.3	0.9	18.5	48.2	25.2	4.4	3.7
경북	5.9	21.5	41.6	28.8	2.2	15.5	43.9	31.1	6.6	3.0
경남	8.0	18.4	45.2	24.4	4.0	15.0	44.6	32.0	4.4	4.0
제주	15.8	30.0	31.7	19.6	2.9	20.6	41.3	27.0	4.5	6.5
전국	5.1	16.7	41.8	34.2	2.2	15.4	44.3	32.1	5.1	3.1
전북	7.8	22.3	45.3	22.3	2.3	15.9	42.6	29.8	7.2	4.5
비교	▲2.7	▲5.6	▲3.5	▼11.9	▲0.1	▲0.5	▼1.7	▼2.3	▲2.1	▲1.4

자료 : 통계청. 부모와의 교류(가구주). 사회조사(2014)

- 전라북도의 부모와의 교류정도를 보면 2014년 기준 부모님과 만나는 정도는 한 달 한두번이 45.3%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국 평균 41.8%보다 약 3.5%p 더 많았으며, 전화통화의 경우는 일주일 한두번이 42.6%로 가장 많았고 전국평균 44.3% 보다 약 1.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님과 만나는 경우 한달 한두번에 이어 일주일에 한두번 (22.3%) 혹은 1년 몇 번(22.3%)이 많았고, 전화통화의 경우 한 달 한두번(29.8%), 거의 매일(15.9%) 등의 순으로 많았다.

4. 건강

건강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좋음	48.7	45.0	▼3.7
		보통	36.1	37.8	▲1.7
		나쁨	15.1	17.2	▲2.1
	2) 스트레스 정도	많이느낌	5.1	3.9	▼1.2
		느끼는편	49.3	43.3	▼6.0
		느끼지않음	45.7	52.8	▲7.1
3) 의료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	만족	57.8	49.0	▼8.8	
객관적 지표	4) 음주 및 흡연	음주	65.2	59.8	▼5.4
		흡연	20.3	21.0	▲0.7
	5) 건강관리 실천	아침식사	67.3	72.7	▲5.4
		적정수면	77.5	80.2	▲2.7
		규칙적운동	38.3	37.7	▼0.6
	6) 의료시설 수	인구 천명당 병상수	80.4	82.4	▲2.0
		의료시설 수	13.6	21.9	▲8.3
	7) 의료서비스 이용률	종합병원	81.0	81.0	-
	9) 규칙적 체육활동	하는 경우	72.0	79.1	▲7.1

- 전라북도의 건강만족 분야의 지표별 현황을 보면 전국평균과 비교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건강만족분야의 주관적 지표 중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정도 (52.8%)가 전국평균보다 7.1%p 더 높게 나타났고 객관적 지표에서는 건강관리를 위한 아침식사(▲5.4), 적정수면(▲2.7), 건강검진(▲2.0), 의료시설 수(▲8.3) 등의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긍정적 지표로 볼 수 있다.

〈표4-19〉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건강만족도)

시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좋음	보통	나쁨									
전국	45.4	38.6	16.1	48.7	36.2	15.2	47.2	37.8	15.1	48.7	36.1	15.1
서울	46.3	40.9	12.8	49.9	37.2	13.0	48.8	38.6	12.5	50.1	36.9	13.0
부산	44.6	38.9	16.5	49.6	33.6	16.7	46.3	38.9	14.9	50.2	32.9	16.9
대구	44.3	39.4	16.3	43.3	39.9	16.7	42.7	42.3	14.9	51.3	35.0	13.7
인천	45.7	39.3	14.9	51.8	35.6	12.5	46.0	38.8	15.2	45.8	38.9	15.4
광주	48.8	36.9	14.3	50.9	35.1	14.0	53.8	32.0	14.2	53.5	31.6	14.9
대전	47.3	38.6	14.2	54.0	33.1	12.8	50.0	35.8	14.3	49.6	37.1	13.2
울산	45.2	42.5	12.3	52.1	35.9	12.0	49.2	38.6	12.1	48.7	39.2	12.1
세종							57.8	29.7	12.5	55.2	34.0	10.7
경기	43.7	41.3	15.0	48.0	39.2	12.8	45.7	39.6	14.6	48.5	37.5	13.9
강원	46.0	31.8	22.1	48.2	33.8	18.0	49.1	33.7	17.2	48.1	33.3	18.6
충북	43.4	37.8	18.7	44.6	36.6	18.8	46.2	36.6	17.2	49.1	33.9	17.0
충남	45.5	33.7	20.8	50.0	31.2	18.8	49.4	34.2	16.4	50.9	32.6	16.5
전북	48.0	31.2	20.8	50.0	29.3	20.6	51.5	31.5	16.9	45.0	37.8	17.2
전남	47.1	31.1	21.9	46.0	30.4	23.6	44.5	32.6	22.9	46.9	31.0	22.1
경북	45.4	34.7	20.0	43.1	36.3	20.6	45.4	35.7	18.8	46.7	35.6	17.7
경남	45.2	37.9	16.9	50.3	34.5	15.1	44.7	39.4	15.9	47.4	36.3	16.4
제주	43.9	38.5	17.6	42.1	40.9	17.0	49.1	35.4	15.5	41.7	43.6	14.7
전국	45.4	38.6	16.1	48.7	36.2	15.2	47.2	37.8	15.1	48.7	36.1	15.1
전북	48.0	31.2	20.8	50.0	29.3	20.6	51.5	31.5	16.9	45.0	37.8	17.2
비교	▲2.6	▼7.4	▲4.7	▲1.3	▼6.9	▲5.4	▲4.3	▼6.3	▲1.8	▼3.7	▲1.7	▲2.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23〉 건강만족도의 추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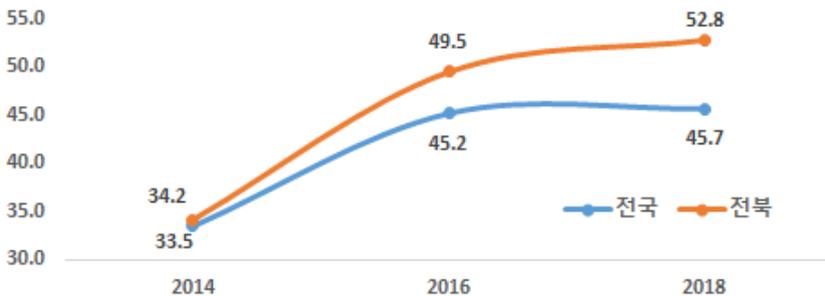
- 전북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2018년 기준 좋음이 45.0%로 이는 전국평균 48.7%보다 약 3.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건강상태 만족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2년은 좋음이 48.0%였으나 2018년 45.0%로 건강상태의 만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평균의 건강상태는 2012년 기준 좋음이 45.4%에서 2018년 48.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0〉 스트레스 정도

시도	2014년			2016년			2018년		
	많이 느낌	느끼는 편	느끼지 않음	많이 느낌	느끼는 편	느끼지 않음	많이 느낌	느끼는 편	느끼지 않음
전국	10.4	56.1	33.5	4.9	49.9	45.2	5.1	49.3	45.7
서울	11.9	56.3	31.8	5.5	51.1	43.3	5.3	49.9	44.8
부산	9.5	55.4	35.1	4.2	46.9	48.9	5.4	49.7	44.8
대구	10.1	56.6	33.3	3.4	49.9	46.7	2.3	49.7	48.0
인천	11.8	55.5	32.7	5.2	54.9	39.9	6.3	53.7	40.1
광주	8.2	57.5	34.2	4.4	51.1	44.5	5.4	50.6	44.0
대전	9.9	56.5	33.6	5.1	54.1	40.8	6.5	49.8	43.7
울산	8.2	58.4	33.4	5.3	45.8	48.8	4.5	46.8	48.7
세종				3.5	46.4	50.1	4.5	53.2	42.2
경기	12.2	59.4	28.3	4.8	51.0	44.2	5.8	51.6	42.6
강원	9.6	52.3	38.1	4.7	49.5	45.8	4.5	42.2	53.3
충북	11.1	57.5	31.3	6.5	52.4	41.1	5.3	45.0	49.7
충남	8.6	55.1	36.4	4.3	48.4	47.4	4.6	48.6	46.8
전북	8.5	57.3	34.2	4.6	45.9	49.5	3.9	43.3	52.8
전남	6.8	52.1	41.1	6.1	47.8	46.1	4.5	44.5	51.1
경북	5.7	50.7	43.6	4.0	45.3	50.7	4.6	44.5	50.9
경남	9.3	51.2	39.5	5.1	46.5	48.4	4.5	48.5	47.0
제주	10.2	53.2	36.6	4.1	48.0	47.9	4.2	49.6	46.2
전국	10.4	56.1	33.5	4.9	49.9	45.2	5.1	49.3	45.7
전북	8.5	57.3	34.2	4.6	45.9	49.5	3.9	43.3	52.8
비교	▼1.9	▲1.2	▲0.7	▼0.3	▼4.0	▲4.3	▼1.2	▼6.0	▲7.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24〉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음의 추이변화



- 전북의 스트레스 정도를 보면 2018년 기준 느끼지 않는 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전국평균 45.7%보다 약 7.1%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스트레스 정도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2년 기준 느끼지 않는 경우가 34.2%였으나 2018년 52.8%로 크게 증가하여 전북의 스트레스 정도의 지표는 매우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

〈표4-21〉 의료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

시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53.1	33.7	13.3	54.5	33.4	12.2	53.3	34.5	12.2	57.8	31.6	10.6
서울	53.2	33.4	13.5	51.8	33.6	14.7	52.3	36.9	9.2	62.2	28.3	9.5
부산	52.1	33.9	14.0	66.5	22.9	10.6	52.8	31.8	14.4	60.4	24.6	15.1
대구	48.5	33.8	17.8	49.1	38.3	12.7	56.3	32.5	10.3	57.4	32.0	10.6
인천	48.0	38.5	13.6	53.0	34.7	12.3	52.1	35.1	9.8	50.9	39.2	10.0
광주	49.6	35.3	15.2	48.5	39.7	11.8	53.4	35.5	11.0	55.6	34.7	9.6
대전	50.6	32.4	17.0	57.2	34.4	8.4	51.1	30.0	14.1	53.5	36.3	10.1
울산	53.2	31.9	14.9	47.3	40.0	12.7	47.6	35.7	15.5	54.2	36.2	9.6
세종							56.4	29.0	0.0	56.3	33.6	10.1
경기	50.5	35.5	14.0	50.1	37.8	12.1	51.2	35.3	11.7	53.9	33.8	12.3
강원	59.3	29.2	11.5	55.7	34.1	10.1	66.0	27.1	0.0	63.2	30.2	6.6
충북	59.8	31.6	8.5	61.8	29.0	9.2	56.4	31.6	11.3	61.5	30.6	7.9
충남	58.0	32.3	9.7	59.8	30.9	9.3	59.6	31.6	7.9	64.2	26.1	9.8
전북	50.9	27.2	21.9	63.8	27.3	9.0	57.2	33.2	0.0	49.0	40.5	10.6
전남	54.3	35.6	10.0	62.2	27.6	10.2	60.5	32.6	0.0	61.7	29.0	9.3
경북	59.4	31.4	9.2	58.6	29.5	11.8	52.5	35.5	11.4	63.1	26.4	10.5
경남	56.0	32.1	11.9	54.2	31.6	14.1	50.9	35.0	10.7	56.0	33.0	11.1
제주	50.6	35.2	14.3	47.8	39.3	12.9	51.3	39.2	7.4	55.8	34.5	9.6
전국	53.1	33.7	13.3	54.5	33.4	12.2	53.3	34.5	12.2	57.8	31.6	10.6
전북	50.9	27.2	21.9	63.8	27.3	9.0	57.2	33.2	0.0	49.0	40.5	10.6
비교	▼2.2	▼6.5	▲8.6	▲9.3	▼6.1	▼3.2	▲3.9	▼1.3	▼12.2	▼8.8	▲8.9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25〉 의료서비스 만족도 추이변화



-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종합병원의 만족도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전북의 만족도는 2018년 기준 49.0%로 전국평균 57.8% 보다 약 8.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추이 변화를 보면 2012년 기준 50.9%에서 2014년 63.8%로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국평균 만족도는 2012년 53.1%에서 2018년 57.8%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22〉 음주 및 흡연량

시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음주합	흡연합	음주합	흡연합	음주합	흡연합	음주합	흡연합
전국	69.3	24.0	64.4	22.8	65.4	20.8	65.2	20.3
서울	71.2	23.0	69.2	20.8	68.7	19.9	67.2	18.7
부산	71.4	22.6	61.4	21.8	62.5	18.6	63.1	19.6
대구	70.6	23.8	62.0	22.2	64.3	19.6	60.5	17.4
인천	70.2	27.3	64.5	25.0	67.8	24.4	66.5	19.7
광주	68.0	22.5	60.7	22.5	61.1	17.7	63.0	19.3
대전	72.7	22.9	65.7	20.6	67.6	18.0	64.8	18.9
울산	73.5	24.7	62.7	21.8	66.6	22.3	68.8	21.8
세종					69.5	18.9	70.7	16.0
경기	72.2	24.6	67.5	23.9	69.9	22.1	69.4	22.2
강원	64.8	24.7	64.1	24.2	64.4	20.5	63.0	22.3
충북	69.2	24.8	66.8	24.9	66.9	23.4	64.5	20.7
충남	66.2	25.7	59.4	22.5	58.6	20.5	60.8	21.1
전북	59.3	22.7	59.4	22.8	55.7	18.6	59.8	21.0
전남	55.6	20.8	49.2	20.0	52.5	20.4	53.8	16.6
경북	64.3	24.3	57.2	23.9	57.2	20.7	59.8	22.2
경남	67.5	25.1	64.4	25.3	64.9	21.2	65.4	20.9
제주	67.5	24.0	64.8	24.6	60.1	21.4	60.9	22.4
전국	69.3	24.0	64.4	22.8	65.4	20.8	65.2	20.3
전북	59.3	22.7	59.4	22.8	55.7	18.6	59.8	21.0
비교	▼10.0	▼1.3	▼5.0	-	▼9.7	▼2.2	▼5.4	▲0.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 전북의 음주 현황은 2018년 59.8%로 전국 평균 65.2%에 비해 약 5.4%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흡연 현황은 21.0%로 전국 평균 20.3%보다 약 0.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음주 현황 변화추이를 보면 2012년 59.3%에서 2018년 59.8%로 추이변화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흡연 현황의 추이변화 또한 2012년 22.7%에서 2018년 21.0%로 미미한 수준의 추이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4-23〉 건강관리 실천

시도	2014년				2016년				2018년			
	아침 식사	적정 수면	규칙적인 운동	정기 건강 검진	아침 식사	적정 수면	규칙적인 운동	정기 건강 검진	아침 식사	적정 수면	규칙적인 운동	정기 건강 검진
전국	70.1	76.1	36.9	58.3	67.2	77.2	38.0	60.7	67.3	77.5	38.3	80.4
서울	65.4	73.8	38.8	57.8	63.6	75.1	39.7	58.6	65.0	76.4	42.6	83.5
부산	66.9	73.3	37.5	59.6	69.6	78.4	40.9	62.0	68.4	74.4	38.2	76.7
대구	72.5	77.6	35.8	55.7	68.1	80.1	40.4	56.1	69.4	78.1	38.1	75.2
인천	66.0	74.4	36.4	58.1	62.0	76.9	36.1	58.6	63.8	77.1	37.7	77.3
광주	69.2	76.2	36.0	55.6	65.1	78.7	38.9	61.0	65.0	80.3	38.0	82.0
대전	70.1	79.1	38.2	62.8	66.9	76.2	36.4	59.4	66.2	75.6	39.5	82.1
울산	71.8	75.0	40.5	58.6	69.5	76.7	44.0	62.1	71.4	81.4	44.8	79.8
세종					68.1	79.1	38.6	60.8	65.8	78.9	43.2	89.8
경기	68.8	74.0	38.2	57.1	64.9	75.0	37.9	61.0	65.2	75.8	37.1	81.6
강원	75.1	77.2	37.6	64.3	72.0	82.1	40.1	68.5	69.8	82.3	37.5	80.2
충북	73.9	76.3	32.3	61.0	68.1	75.7	32.2	63.7	69.4	79.3	35.8	81.1
충남	75.7	79.5	34.1	58.6	70.9	78.0	34.4	64.5	71.5	78.1	35.2	80.5
전북	74.6	80.6	35.3	61.1	73.1	81.8	34.2	64.5	72.7	80.2	37.7	82.4
전남	81.4	83.9	35.8	62.4	73.9	78.6	34.0	67.0	73.0	81.3	39.0	80.8
경북	75.6	80.4	34.0	54.8	73.5	80.1	36.6	58.5	72.3	80.6	29.9	78.4
경남	73.7	80.5	33.9	59.3	72.7	79.8	38.5	59.4	69.9	79.9	39.2	75.5
제주	65.2	75.3	32.1	52.8	63.8	78.1	36.0	59.0	59.4	74.0	34.3	74.6
전국	70.1	76.1	36.9	58.3	67.2	77.2	38.0	60.7	67.3	77.5	38.3	80.4
전북	74.6	80.6	35.3	61.1	73.1	81.8	34.2	64.5	72.7	80.2	37.7	82.4
비교	▲4.5	▲4.5	▼1.6	▲2.8	▲5.9	▲4.6	▼3.8	▲3.8	▲5.4	▲2.7	▼0.6	▲2.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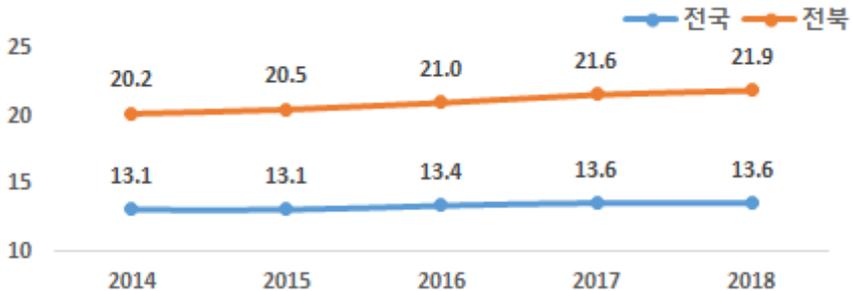
- 전북의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을 보면 2018년 기준 정기건강검진 실천률이 82.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적정수면시간 실천률 80.2%, 아침식사 실천률 72.7%, 규칙적 운동 실천률 3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과 비교시 아침식사(▲5.4)와 적정수면(▲2.7), 건강검진 실천률(▲2.0)에서 전북의 실천률이 높게 나타나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4-24〉 의료시설 수(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시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13.1	13.1	13.4	13.6	13.6
서울	8.8	8.5	8.7	8.8	8.9
부산	19.2	19.5	20.3	20.4	20.5
대구	14.3	14.6	14.8	14.7	15.0
인천	11.0	10.8	10.9	11.3	11.5
광주	23.6	25.5	26.7	28.2	27.9
대전	15.4	15.5	15.5	16.0	16.0
울산	12.5	12.2	13.1	13.3	13.4
세종	8.1	5.8	5.1	4.8	4.0
경기	10.2	10.1	10.2	10.2	10.2
강원	12.2	12.1	11.9	11.6	11.6
충북	12.8	12.8	13.4	13.5	14.1
충남	13.1	13.2	13.2	13.6	13.4
전북	20.2	20.5	21.0	21.6	21.9
전남	20.4	21.0	21.5	21.5	22.1
경북	15.4	15.9	16.3	16.7	16.6
경남	16.9	17.0	18.0	18.3	19.1
제주	8.0	7.8	7.9	7.4	7.4
전국	13.1	13.1	13.4	13.6	13.6
전북	20.2	20.5	21.0	21.6	21.9
비교	▲7.1	▲7.4	▲7.6	▲8.0	▲8.3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각 연도)

〈그림4-26〉 의료시설 수 추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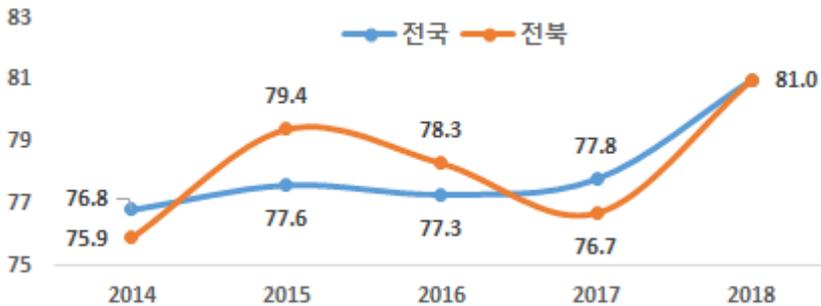
- 전북의 의료시설 수에 대한 지표로는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를 제시하였고 2018년 기준 전북이 21.9개로 전국 평균 13.6개 보다 약 8.3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의료기관 병상 수 변화추이를 보면 2012년 20.2개에서 2018년 21.9개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 과 비교격차 또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4-25〉 의료서비스 이용률(종합병원)

시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전국	76.8	77.6	77.3	77.8	81.0
서울	74.0	75.5	75.9	79.1	79.8
부산	76.9	73.3	79.3	77.4	79.5
대구	77.1	82.9	74.8	84.6	77.7
인천	73.9	74.3	86.5	75.7	82.5
광주	74.5	74.4	73.7	72.6	84.5
대전	75.6	82.3	77.7	78.9	85.0
울산	81.0	72.2	72.6	74.0	76.7
세종	-	-	-	75.8	83.9
경기	78.2	78.6	77.1	76.8	82.7
강원	77.3	74.8	72.1	73.5	82.2
충북	78.1	88.6	80.2	86.6	79.7
충남	73.7	77.2	78.3	77.0	80.1
전북	75.9	79.4	78.3	76.7	81.0
전남	79.5	77.4	75.8	80.1	84.4
경북	79.1	84.1	80.2	77.8	79.4
경남	80.5	75.0	75.4	76.3	79.8
제주	80.8	72.9	74.8	76.5	77.1
전국	76.8	77.6	77.3	77.8	81.0
전북	75.9	79.4	78.3	76.7	81.0
비교	▼0.9	▲1.8	▲1.0	▼1.1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27〉 의료서비스 이용률 추이변화



- 전북의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종합병원의 이용률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전북의 이용률은 2018년 기준 81.0%로 이는 전국평균 81.0%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의료서비스 이용률의 추이 변화를 보면 2010년 기준 75.9%에서 2018년 81.0%로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 이용률 또한 2010년 76.8%에서 2018년 81.0%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26〉 규칙적 체육활동 빈도

시도	2017년									2018년								
	하지 않음	월 2-3 회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매일	하지 않음	월 2-3 회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매일
전국	28.9	11.9	11.0	10.1	17.1	5.7	9.3	1.6	4.3	28.0	9.8	9.8	11.8	18.2	7.3	8.1	2.4	4.6
서울	26.8	14.5	9.3	8.1	22.8	5.5	6.9	0.8	5.3	31.0	8.6	8.8	12.1	23.2	8.0	5.2	1.0	2.3
부산	33.4	7.8	8.9	5.3	15.5	4.3	16.7	1.9	6.2	23.8	6.9	7.2	12.0	13.3	7.2	11.6	8.4	9.6
대구	17.2	5.6	17.7	9.9	26.8	7.0	10.2	0.9	4.8	10.6	9.0	9.5	12.4	22.6	10.7	13.0	4.4	7.9
인천	43.5	6.8	7.2	7.2	19.1	5.4	7.5	0.8	2.6	41.5	8.8	10.7	9.2	15.5	7.2	5.3	0.9	1.1
광주	13.3	18.5	19.1	13.0	14.8	7.3	8.1	1.5	4.4	17.2	11.7	13.8	17.0	20.1	10.5	6.1	1.2	2.5
대전	29.1	18.9	7.1	7.2	12.7	9.4	12.3	2.1	1.2	35.1	20.0	4.6	7.2	13.2	7.7	6.1	2.5	3.4
울산	35.9	3.4	8.8	7.7	20.3	6.6	10.7	2.5	4.1	28.1	5.3	6.9	8.3	16.3	6.5	17.7	2.7	8.2
세종	22.9	10.0	6.4	5.0	13.6	15.3	24.4	1.6	0.6	30.8	14.0	7.8	9.8	15.4	6.5	15.7	0.0	0.0
경기	31.3	10.8	11.1	12.8	17.0	5.3	6.1	2.0	3.6	28.9	11.5	10.3	11.7	20.3	5.7	6.3	1.1	4.3
강원	41.1	8.0	12.3	11.6	13.5	6.3	3.7	0.6	2.8	56.2	5.9	8.7	4.8	12.9	2.5	4.8	0.5	3.6
충북	22.1	18.2	12.4	9.7	15.0	7.2	13.9	0.9	0.7	41.1	12.8	6.2	6.6	11.8	9.4	7.6	2.3	2.2
충남	20.3	24.6	12.1	11.3	16.0	6.5	6.4	2.2	0.5	32.0	14.3	10.9	10.2	14.1	7.3	7.6	0.9	2.8
전북	17.5	21.4	17.1	9.8	9.7	8.4	7.8	0.7	7.7	20.9	10.0	15.1	14.5	18.6	9.7	7.3	0.5	3.4
전남	15.2	11.4	15.2	22.4	17.2	5.5	7.3	1.0	5.0	16.1	8.3	17.9	17.8	19.1	7.8	6.8	0.7	5.6
경북	29.3	10.7	10.1	7.6	13.4	3.1	16.5	0.5	8.8	12.0	10.2	10.3	14.9	17.3	11.3	10.4	4.4	9.2
경남	34.9	5.5	10.5	8.8	8.5	4.9	17.4	4.9	4.7	22.1	6.5	8.5	11.8	11.2	5.3	18.0	8.9	7.7
제주	52.5	5.9	4.1	9.0	5.5	5.7	11.9	3.1	2.3	36.7	6.0	7.0	17.3	15.3	3.7	7.0	0.6	6.3
전국	28.9	11.9	11.0	10.1	17.1	5.7	9.3	1.6	4.3	28.0	9.8	9.8	11.8	18.2	7.3	8.1	2.4	4.6
전북	17.5	21.4	17.1	9.8	9.7	8.4	7.8	0.7	7.7	20.9	10.0	15.1	14.5	18.6	9.7	7.3	0.5	3.4
비교	▼ 11.4	▲ 9.5	▲ 6.1	▼ 0.3	▼ 7.4	▲ 2.7	▼ 1.5	▼ 0.9	▲ 3.4	▼ 7.1	▲ 0.2	▲ 5.3	▲ 2.7	▲ 0.4	▲ 2.4	▼ 0.8	▼ 1.9	▼ 1.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각 연도)

- 전북의 규칙적인 체육활동은 2018년 기준 79.1%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 72.0%보다 약 7.1%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그 빈도로는 주 3회가 18.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주 1회(15.1%), 주 2회(14.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사회적관계

사회관계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도움제공 지인 여부	집안일부탁	79.6	78.0	▼1.6
		돈빌림	51.4	54.4	▲3.0
		이야기상대	83.3	82.0	▼1.3
	2) 이웃에 대한 신뢰도	믿을 수 있음	50.9	54.5	▲3.6
	3)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만족	41.6	39.2	▼2.4
	4) 친구관계 만족도	만족	76.6	70.2	▼6.4
객관적 지표	5) 학교생활만족도	만족	58.0	49.8	▼8.2
	6) 자원봉사 참여율		16.1	17.5	▲1.4
	7) 부모부양 태도	스스로해결	19.4	21.1	▲1.7
		가족	26.7	22.0	▼4.7
		가족정부사회	48.3	49.1	▲0.8
정부사회		5.7	7.8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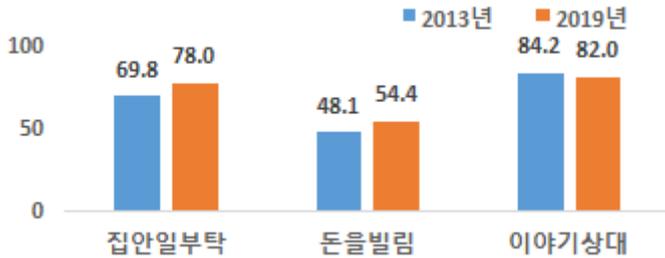
- 전북의 사회적 관계 만족 분야의 지표는 전국평균과 비교 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학교생활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8.2%p 낮은 49.8%를 보이며 전국 평균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표로는 이웃에 대한 신뢰도(54.5%)가 전국평균(50.9%)보다 3.6%p더 높게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표로 나타났으며 이외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의 여부, 자원봉사참여율 등의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긍정적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표4-27〉 사회적 관계망 정도

시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집안일 부탁	돈을 빌림	이야기 상대									
전국	74.7	47.0	81.1	76.8	50.1	82.4	78.4	51.9	83.6	79.6	51.4	83.3
서울	76.9	49.8	83.0	77.4	50.0	83.8	77.3	54.9	83.9	79.2	52.3	84.1
부산	74.6	45.9	79.5	75.5	47.9	79.8	80.5	54.5	86.6	82.5	53.6	86.0
대구	77.4	47.3	86.0	72.9	47.4	81.3	79.8	54.1	84.0	78.9	49.8	82.0
인천	70.1	45.4	75.3	77.1	53.8	82.1	77.0	49.7	81.1	80.6	54.7	83.5
광주	82.8	49.1	87.2	83.1	53.9	84.9	81.0	47.4	89.2	80.4	53.6	85.8
대전	83.4	51.6	86.3	77.8	48.4	82.8	81.5	52.2	86.9	78.1	52.6	82.7
울산	76.4	46.1	80.8	71.6	48.4	83.4	76.5	51.9	77.7	79.1	53.5	83.9
세종				72.9	51.7	82.6	75.2	52.9	85.4	79.6	58.0	87.2
경기	73.2	45.3	79.7	77.2	50.8	82.6	77.5	49.5	83.8	78.4	50.7	82.6
강원	76.8	46.1	80.0	77.1	51.1	83.3	78.5	49.5	78.8	79.8	48.0	82.7
충북	70.6	45.1	78.7	72.8	47.9	81.3	71.2	47.7	78.5	80.1	51.0	84.8
충남	75.2	42.2	79.7	73.2	50.3	77.6	83.9	55.8	82.6	77.9	50.2	79.6
전북	69.8	48.1	84.2	75.6	50.0	83.1	77.2	56.2	84.5	78.0	54.4	82.0
전남	73.4	45.2	79.1	86.1	51.6	85.5	82.8	55.4	82.7	80.5	50.1	83.2
경북	70.6	42.8	80.2	75.4	44.2	78.5	77.2	48.7	83.2	81.1	45.0	81.9
경남	73.7	51.8	80.5	77.5	52.8	84.0	79.4	49.9	84.3	81.4	51.1	84.5
제주	80.9	49.8	79.8	74.7	50.1	78.5	83.2	58.0	82.4	83.2	53.7	83.2
전국	74.7	47.0	81.1	76.8	50.1	82.4	78.4	51.9	83.6	79.6	51.4	83.3
전북	69.8	48.1	84.2	75.6	50.0	83.1	77.2	56.2	84.5	78.0	54.4	82.0
비교	▼4.9	▲1.1	▲3.1	▼1.2	▼0.1	▲0.7	▼1.2	▲4.3	▲0.9	▼1.6	▲3.0	▼1.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28〉 전북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도



- 전북의 사회적 관계망을 알 수 있는 지표로는 우울할 경우 이야기 상대가 있는 경우가 2019년 기준 82.0%로 가장 많았고,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 78.0%,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5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과 비교 시 돈을 빌릴 상대가 있는 경우가 3.0%p 더 높게 나타났고 집안일 부탁(▼1.6)과 이야기 상대(▼1.3)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표4-28〉 사회에 대한 신뢰도(이웃에 대한 신뢰도)

시도	2019년					
	매우 믿을 수 있음	약간 믿을 수 있음	별로 믿을 수 없음	전혀 믿을 수 없음	믿을 수 있음	믿을 수 없음
전국	3.2	47.7	43.1	5.9	50.9	49.0
서울	2.9	47.0	43.6	6.5	49.9	50.1
부산	2.1	49.9	41.7	6.3	52.0	48.0
대구	1.6	50.3	43.4	4.7	51.9	48.1
인천	3.5	44.2	45.9	6.4	47.7	52.3
광주	3.3	46.3	46.5	4.0	49.6	50.5
대전	3.6	46.2	43.8	6.4	49.8	50.2
울산	2.2	53.0	38.1	6.7	55.2	44.8
세종	3.5	49.8	40.8	5.8	53.3	46.6
경기	3.4	45.3	44.8	6.5	48.7	51.3
강원	2.7	56.9	34.9	5.5	59.6	40.4
충북	3.7	50.6	41.1	4.6	54.3	45.7
충남	4.6	44.3	45.4	5.7	48.9	51.1
전북	2.8	51.7	41.9	3.6	54.5	45.5
전남	4.6	57.3	33.7	4.3	61.9	38.0
경북	3.4	47.4	42.6	6.6	50.8	49.2
경남	3.7	45.4	45.4	5.6	49.1	51.0
제주	3.2	59.0	33.8	4.0	62.2	37.8
전국	3.2	47.7	43.1	5.9	50.9	49.0
전북	2.8	51.7	41.9	3.6	54.5	45.5
비교	▼0.4	▲4.0	▼1.2	▼2.3	▲3.6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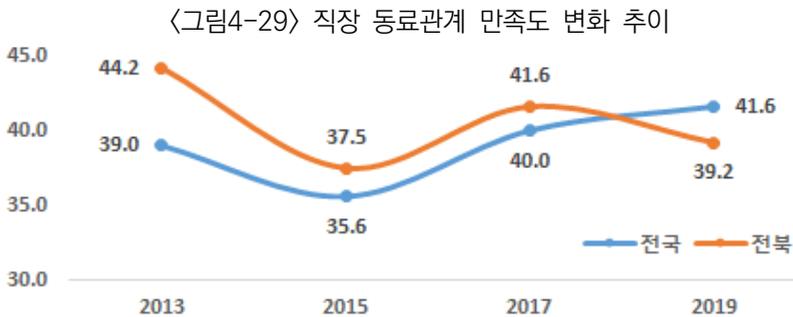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19)

- 전북의 이웃에 대한 신뢰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대표지표로 선정하였고 2019년 기준 이웃신뢰도는 54.5%로 전국 평균 50.9%보다 약 3.6%p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7개 시도 중 이웃신뢰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가 62.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전남(61.9%), 강원(59.6%), 울산(55.2%)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54.5%)의 이웃신뢰도는 울산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4-29〉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시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39.0	47.4	12.3	35.6	49.7	13.0	40.0	46.9	12.0	41.6	45.9	11.6
서울	40.1	45.9	12.7	36.1	48.2	13.7	41.6	43.2	14.6	41.6	44.9	12.5
부산	36.1	49.2	13.7	30.5	54.0	12.9	36.7	50.6	11.6	40.7	47.6	11.2
대구	34.2	53.2	11.0	27.2	58.2	12.9	37.4	52.1	9.7	32.9	53.0	13.2
인천	38.5	45.8	13.5	37.9	45.6	15.4	38.5	46.7	14.1	43.2	45.2	11.3
광주	37.6	48.7	13.1	32.5	50.5	16.0	39.8	49.1	9.3	42.3	47.6	9.7
대전	39.1	48.2	11.5	40.1	44.6	13.7	35.4	49.4	13.9	37.0	46.5	16.0
울산	40.7	47.9	8.9	33.2	52.1	12.6	36.1	52.4	10.7	38.3	49.5	10.5
세종				37.0	50.3	12.2	44.1	42.0	12.9	47.6	40.7	10.5
경기	36.2	48.7	13.6	34.8	50.0	13.4	41.7	45.6	11.1	41.8	44.2	12.9
강원	45.3	42.4	10.6	42.5	45.4	11.1	45.0	41.4	10.9	49.1	42.2	7.3
충북	47.0	40.4	10.5	36.5	50.8	11.7	38.1	49.0	12.0	41.8	47.8	9.5
충남	46.7	43.0	8.6	39.2	49.0	11.2	37.7	52.9	9.1	41.9	46.4	10.0
전북	44.2	45.6	9.6	37.5	47.0	14.4	41.6	46.8	11.5	39.2	51.5	7.6
전남	41.6	47.9	9.0	41.3	48.7	9.0	41.5	48.2	9.5	46.4	45.1	7.6
경북	37.0	49.4	12.7	34.5	52.4	11.4	38.4	47.5	12.9	40.3	48.5	10.7
경남	41.0	46.9	11.8	39.7	49.1	10.3	37.8	49.4	11.8	43.1	45.6	10.3
제주	32.0	53.2	13.4	35.6	50.7	11.3	42.3	48.7	8.1	46.4	40.6	11.5
전국	39.0	47.4	12.3	35.6	49.7	13.0	40.0	46.9	12.0	41.6	45.9	11.6
전북	44.2	45.6	9.6	37.5	47.0	14.4	41.6	46.8	11.5	39.2	51.5	7.6
비교	▲5.2	▼1.8	▼2.7	▲1.9	▼2.7	▲1.4	▲1.6	▼0.1	▼0.5	▼2.4	▲5.6	▼4.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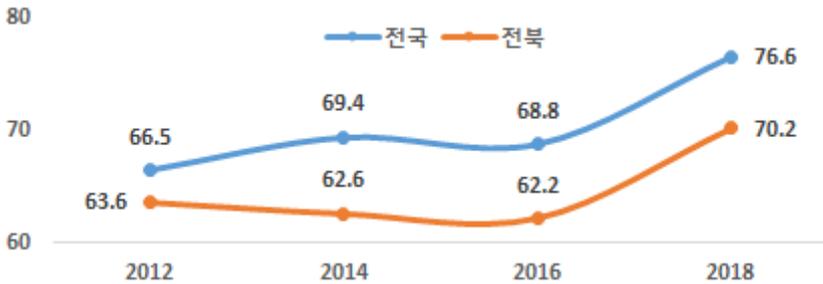
- 전북의 직장동료관계 만족도는 2019년 기준 39.2%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국 평균(41.6%)보다 약 2.4%p 더 낮았다. 한편, 전북의 직장동료관계 만족도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3년 기준 44.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9년 39.2%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국평균 직장동료관계 만족도는 2013년 39.0%에서 2019년 41.6%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30〉 친구관계 만족도

시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66.5	28.9	4.5	69.4	26.8	3.8	68.8	27.1	4.1	76.6	21.3	2.0
서울	64.2	30.4	5.3	67.1	28.5	4.4	67.3	28.9	3.8	75.8	22.3	1.9
부산	71.0	25.9	3.0	79.2	19.6	1.1	72.6	23.6	3.9	80.5	16.6	2.8
대구	67.3	27.7	5.1	64.2	31.5	4.3	68.6	29.0	2.4	80.8	19.1	0.0
인천	65.9	29.9	4.2	68.9	26.2	5.0	64.9	31.6	3.5	78.9	19.6	1.4
광주	66.2	31.1	2.7	67.7	28.9	3.3	63.2	32.3	4.5	81.6	17.1	1.2
대전	69.1	25.9	5.0	69.4	27.1	3.7	67.7	29.1	3.2	73.4	24.7	2.0
울산	61.6	34.7	3.8	71.1	26.1	2.8	66.3	28.9	4.7	80.9	17.1	2.1
세종							76.8	19.4	3.8	76.1	23.9	0.0
경기	66.1	28.9	5.1	69.7	26.6	3.7	68.9	25.7	5.4	76.0	21.2	2.7
강원	65.9	29.1	5.0	67.1	30.1	2.8	68.3	24.5	7.2	80.6	17.9	1.4
충북	61.0	32.0	7.1	69.6	25.1	5.3	66.6	28.6	4.9	72.8	24.6	2.5
충남	67.5	27.5	4.9	62.7	34.5	2.8	77.6	21.2	1.3	74.6	22.9	2.5
전북	63.6	29.4	7.0	62.6	31.8	5.6	62.2	31.6	6.3	70.2	24.7	5.0
전남	67.2	30.5	2.2	71.3	22.6	6.0	71.1	24.0	4.9	72.1	25.7	2.1
경북	70.3	25.4	4.2	70.0	26.1	4.0	73.0	24.3	2.7	80.2	19.2	0.6
경남	71.0	27.5	1.4	79.3	19.2	1.6	71.2	27.4	1.5	76.3	22.2	1.6
제주	69.5	25.8	4.7	73.5	21.8	4.8	68.3	30.3	1.4	70.7	28.8	0.5
전국	66.5	28.9	4.5	69.4	26.8	3.8	68.8	27.1	4.1	76.6	21.3	2.0
전북	63.6	29.4	7.0	62.6	31.8	5.6	62.2	31.6	6.3	70.2	24.7	5.0
비교	▼2.9	▲0.5	▲2.5	▼6.8	▲5.0	▲1.8	▼6.6	▲4.5	▲2.2	▼6.4	▲3.4	▲3.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30〉 친구관계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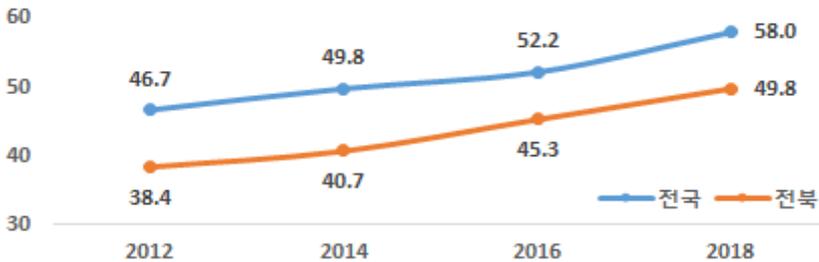
- 전북의 친구관계 만족도는 2018년 기준 70.2%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평균 76.6%에 비하면 약 6.4%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친구관계 만족도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2년 기준 63.6%에서 2018년 70.2%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 친구관계 만족도 또한 2012년 66.5%에서 2018년 76.6%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31〉 학교생활 만족도

시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46.7	45.8	7.5	49.8	43.8	6.5	52.2	41.8	6.0	58.0	37.3	4.6
서울	49.0	41.9	9.0	51.3	43.4	5.3	53.6	40.8	5.6	63.9	33.9	2.2
부산	48.4	45.1	6.6	53.8	39.3	6.9	54.7	39.1	6.2	61.2	34.4	4.4
대구	44.4	47.3	8.2	45.2	48.4	6.5	52.3	44.0	3.7	52.3	46.8	0.9
인천	42.5	50.3	7.2	53.7	40.7	5.7	50.8	43.9	5.3	62.2	33.1	4.6
광주	47.9	48.7	3.4	40.6	53.3	6.1	43.1	51.0	5.9	61.0	35.1	3.9
대전	46.4	44.4	9.2	53.8	39.1	7.1	45.0	47.3	7.7	56.4	40.7	2.9
울산	35.7	55.8	8.5	47.7	48.5	3.8	47.2	47.8	5.0	59.0	38.0	3.0
세종							53.2	43.1	3.7	68.3	30.8	0.9
경기	47.0	46.5	6.5	50.4	40.5	9.2	52.8	39.6	7.5	54.7	37.9	7.5
강원	46.2	43.4	10.4	46.7	45.8	7.5	54.5	36.8	8.7	52.7	42.3	5.0
충북	43.1	44.5	12.3	50.0	42.8	7.2	50.9	41.7	7.3	60.7	36.2	3.1
충남	43.2	47.2	9.7	48.0	48.4	3.7	65.2	32.3	2.5	59.7	34.9	5.4
전북	38.4	51.4	10.2	40.7	53.9	5.4	45.3	46.1	8.6	49.8	44.9	5.4
전남	44.2	51.7	4.1	41.4	50.5	8.2	52.5	42.8	4.7	58.0	35.2	6.8
경북	47.4	50.2	2.4	48.8	47.7	3.4	46.1	49.5	4.4	59.4	38.9	1.7
경남	54.7	37.5	7.7	53.3	43.0	3.7	54.7	42.3	3.0	56.6	38.0	5.5
제주	50.5	46.1	3.5	62.2	34.1	3.6	50.8	45.8	3.4	56.1	42.6	1.2
전국	46.7	45.8	7.5	49.8	43.8	6.5	52.2	41.8	6.0	58.0	37.3	4.6
전북	38.4	51.4	10.2	40.7	53.9	5.4	45.3	46.1	8.6	49.8	44.9	5.4
비교	▼8.3	▲5.6	▲2.7	▼9.1	▲10.1	▼1.1	▼6.9	▲4.3	▲2.6	▼8.2	▲7.6	▲0.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31〉 학교생활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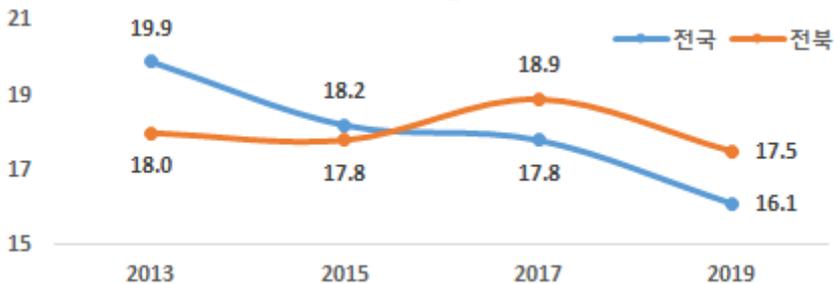
- 전북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8년 기준 49.8%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전국 평균 58.0%와 비교하면 약 8.2%p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학교생활 만족도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2년 기준 38.4%에서 2018년 49.8%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 학교생활 만족도 또한 2012년 46.7%에서 2018년 58.0%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32〉 자원봉사 참여율

시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전국	19.9	18.2	17.8	16.1
서울	17.7	17.9	18.0	15.8
부산	18.7	15.5	15.4	11.4
대구	19.0	17.2	17.0	14.5
인천	18.6	15.8	15.9	15.0
광주	23.5	18.9	18.4	16.3
대전	24.8	19.8	18.0	17.3
울산	21.5	16.8	18.8	18.4
세종		20.3	21.1	22.7
경기	19.7	17.3	17.6	15.1
강원	19.4	21.2	21.5	17.9
충북	21.7	21.0	16.6	16.7
충남	23.0	20.2	17.7	19.5
전북	18.0	17.8	18.9	17.5
전남	22.1	24.4	20.5	19.6
경북	18.5	16.3	16.7	17.9
경남	23.4	20.4	18.6	17.7
제주	24.2	24.9	25.8	18.5
전국	19.9	18.2	17.8	16.1
전북	18.0	17.8	18.9	17.5
비교	▼1.9	▼0.4	▲1.1	▲1.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32〉 자원봉사 참여율 변화



- 전북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9년 기준 17.5%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평균 16.1%와 비교하면 약 1.4%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자원봉사참여율은 2013년 19.9%에서 2019년 16.1%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의 자원봉사참여율은 2017년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4-33〉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

시도	2014년				2016년				2018년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전국	16.6	31.7	47.3	4.4	18.6	30.8	45.5	5.1	19.4	26.7	48.3	5.7
서울	16.4	31.3	48.0	4.2	19.2	29.6	45.6	5.6	19.1	25.3	49.2	6.4
부산	20.8	32.1	42.4	4.6	24.5	29.5	41.2	4.9	23.4	27.9	44.9	3.8
대구	14.6	30.0	50.9	4.4	19.3	30.3	47.3	3.1	19.9	27.5	47.5	5.2
인천	12.7	34.3	49.9	3.2	15.2	32.6	48.5	3.7	15.0	27.9	50.7	6.4
광주	20.5	22.7	52.1	4.7	20.7	27.8	46.4	5.1	18.5	22.8	50.6	8.1
대전	19.7	30.0	45.5	4.7	15.8	28.5	51.0	4.6	15.6	25.5	54.2	4.5
울산	18.4	30.5	47.3	3.8	19.9	30.1	47.3	2.7	23.2	31.2	40.7	4.9
세종					17.7	29.9	48.5	3.9	17.4	26.2	51.6	4.9
경기	15.2	30.0	50.0	4.7	15.1	31.4	48.0	5.6	17.2	26.1	51.2	5.6
강원	17.4	36.8	42.0	3.8	21.8	33.4	40.2	4.7	20.2	31.3	44.5	3.9
충북	16.2	33.6	45.7	4.5	21.0	29.0	45.2	4.8	21.5	32.9	41.2	4.3
충남	17.1	38.3	41.6	2.9	16.8	37.4	40.3	5.4	16.4	27.9	50.0	5.7
전북	16.6	29.8	45.8	7.9	24.3	22.7	46.8	6.1	21.1	22.0	49.1	7.8
전남	18.4	36.0	40.2	5.4	20.4	30.1	41.4	8.2	25.1	22.6	45.2	7.0
경북	18.0	33.9	45.1	3.0	18.7	36.2	38.9	6.1	23.7	27.9	42.5	5.9
경남	17.0	31.0	47.9	4.1	20.7	31.5	44.9	2.8	23.1	27.6	44.4	4.8
제주	13.2	40.6	43.5	2.7	16.9	29.7	48.1	5.4	15.4	31.2	49.5	3.9
전국	16.6	31.7	47.3	4.4	18.6	30.8	45.5	5.1	19.4	26.7	48.3	5.7
전북	16.6	29.8	45.8	7.9	24.3	22.7	46.8	6.1	21.1	22.0	49.1	7.8
비교	-	▼1.9	▼1.5	▲3.5	▲5.7	▼8.1	▲1.3	▲1.0	▲1.7	▼4.7	▲0.8	▲2.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 전북의 부모부양태도는 2018년 기준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한다가 49.1%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국 평균 48.3%보다 약 0.8%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부모부양태도의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한다의 경우 2014년 45.8%에서 2018년 49.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가족이 부양해야한다의 경우는 2014년 29.8%에서 2018년 22.0%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6. 문화여가

문화여가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만족	28.8	25.6	▼3.2
		일에 집중	32.6	42.6	▲10.0
	2)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보통	36.0	38.8	▲2.8
		여가에 집중	31.3	18.6	▼12.7
객관적 지표	3)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문화여가시설 이용함	46.3	50.3	▲4.0
		문화예술 활동 수	77.0	92.9	▲15.9
	4) 예술행사 만족도	공연 횟수	245.9	172.8	▼73.1
	5) 여가활동 빈도	매일	77.4	87.8	▲10.4
객관적 지표	6)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관람함	66.2	62.3	▼3.9
	7) 문화여가시설 수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5.45	8.60	▲3.15
	8) 문화여가비용	한달 평균(천원)	156	185	▲29

- 전북의 문화여가 만족 분야의 지표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가활동 빈도의 경우 전북이 87.8%로 전국 평균 77.4%보다 약 10.4%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표로는 인구 십만명당 문화예술 활동지표로 전북이 92.9회로 전국 평균 77.0회 보다 약 15.9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표로는 문화여가활동 만족도(▼3.2), 인구 십만명당 공연 횟수(▼73.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3.9) 등의 지표로 나타났다.

〈표4-34〉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시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27.0	47.8	25.1	26.0	48.9	25.1	27.2	46.6	26.2	28.8	47.0	24.2
서울	28.0	47.4	24.6	28.9	46.8	24.3	29.5	44.3	26.1	29.3	47.7	22.9
부산	25.3	47.5	27.2	22.6	52.0	25.4	23.9	49.0	27.2	24.5	44.5	31.0
대구	23.4	50.7	25.9	24.7	51.1	24.2	21.7	45.8	32.6	24.9	47.4	27.7
인천	26.6	45.3	28.1	23.2	48.8	28.0	25.8	47.8	26.5	31.3	44.8	23.9
광주	23.9	51.9	24.3	24.0	48.9	27.1	27.9	47.9	24.2	30.7	44.1	25.1
대전	30.0	44.3	25.7	25.8	48.3	25.9	29.4	42.8	27.8	28.9	45.2	25.9
울산	25.5	53.3	21.1	20.6	56.8	22.6	25.2	50.2	24.6	32.1	45.6	22.4
세종				33.1	45.4	21.4	33.0	44.0	23.0	39.3	42.0	18.7
경기	28.4	47.6	24.0	27.3	48.5	24.2	27.7	44.7	27.7	29.7	46.0	24.2
강원	29.1	47.2	23.7	26.6	49.5	24.0	28.9	50.0	21.1	30.5	46.8	22.6
충북	28.2	44.4	27.4	27.8	46.5	25.7	26.8	44.7	28.4	26.9	48.2	24.9
충남	25.7	48.9	25.5	26.8	45.5	27.8	24.2	51.7	24.1	28.2	48.2	23.6
전북	25.8	46.7	27.5	20.2	51.3	28.6	23.8	50.2	26.0	25.6	50.1	24.3
전남	22.9	51.0	26.1	26.2	47.6	26.2	28.2	45.5	26.3	28.7	49.2	22.1
경북	24.0	50.4	25.6	20.7	51.8	27.5	26.9	49.3	23.8	28.1	49.4	22.5
경남	29.0	46.4	24.7	27.0	50.6	22.5	29.0	49.1	21.9	28.9	49.8	21.4
제주	31.0	48.6	20.5	28.8	49.4	21.9	29.0	52.7	18.2	29.1	45.0	25.9
전국	27.0	47.8	25.1	26.0	48.9	25.1	27.2	46.6	26.2	28.8	47.0	24.2
전북	25.8	46.7	27.5	20.2	51.3	28.6	23.8	50.2	26.0	25.6	50.1	24.3
비교	▼1.2	▼1.1	▲2.4	▼5.8	▲2.4	▲3.5	▼3.4	▲3.6	▼0.2	▼3.2	▲3.1	▲0.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33〉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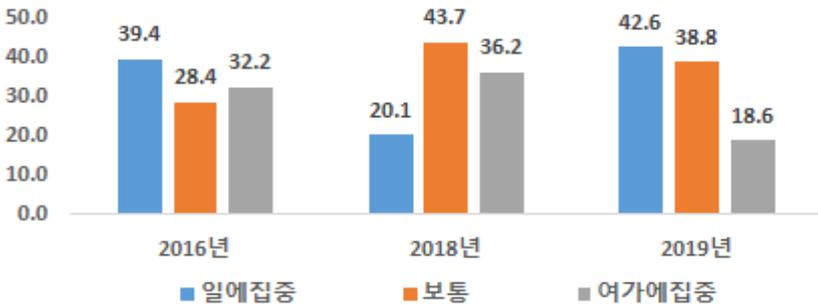
- 전북의 문화여가활동 만족도는 2019년 기준 25.6%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 28.8%와 비교하면 약 3.2%p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문화여가활동 만족도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3년 기준 25.8%에서 2017년 23.8%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25.6%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평균 문화여가활동 만족도의 추이변화는 2013년 27.0%에서 2019년 28.8%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표4-35〉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시도	2016년			2018년			2019년		
	일에 집중	보통 이다	여가에 집중	일에 집중	보통 이다	여가에 집중	일에 집중	보통 이다	여가에 집중
전국	30.6	35.5	33.9	36.8	37.3	25.9	32.6	36.0	31.3
서울	25.8	27.8	46.3	41.4	33.4	25.1	28.2	34.4	37.4
부산	23.5	32.9	43.7	28.5	40.4	31.1	20.9	35.7	43.4
대구	34.4	49.5	16.2	37.5	45.6	17.0	27.7	46.6	25.9
인천	22.7	38	39.3	33.7	29.4	36.8	34.2	42.6	23.2
광주	27.8	28.8	43.5	26.2	46.7	27.1	33.0	34.4	32.7
대전	32.1	38.2	29.6	19.7	48.4	31.9	27.2	38.2	34.6
울산	24.6	33.6	41.8	29.0	36.7	34.3	30.3	46.5	23.2
세종	32.4	19.2	48.3	27.7	32	40.5	38.6	32.9	28.5
경기	31.9	40.9	27.4	43.3	35.8	20.8	35.7	33.1	31.3
강원	40.5	39.4	20.1	41.2	41.6	17.2	47.6	32.7	19.6
충북	34.4	43.7	21.9	35.6	39.9	24.5	27.9	34.2	37.8
충남	41.6	28.3	30.0	27.7	42.9	29.4	44.7	27.4	27.9
전북	39.4	28.4	32.2	20.1	43.7	36.2	42.6	38.8	18.6
전남	38.8	33.1	28.1	43.7	38.6	17.6	44.9	30.4	24.7
경북	39.7	35.5	24.8	35.8	36.6	27.6	36.3	33.7	30.1
경남	21.3	37.1	41.5	33.1	34.5	32.4	25.6	47.1	27.2
제주	50.5	29.6	20.1	51.4	30.2	18.4	16.4	35.6	48.0
전국	30.6	35.5	33.9	36.8	37.3	25.9	32.6	36.0	31.3
전북	39.4	28.4	32.2	20.1	43.7	36.2	42.6	38.8	18.6
비교	▲8.8	▼7.1	▼1.7	▼16.7	▲6.4	▲10.3	▲10.0	▲2.8	▼12.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연도)

〈그림4-34〉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변화



- 전북의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은 2019년 기준 일에 집중이 42.6%로 가장 많았고 전국 평균 32.6%보다 약 10.0%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에 집중하는 경우는 전북이 18.6%로 전국 평균 31.3%에 비해 약 12.7%p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여가보다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4-36〉 문화여가시설만족도(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여부)

시도	2016년		2018년		2019년	
	이용함	이용안함	이용함	이용안함	이용함	이용안함
전국	41.4	58.6	47.4	52.6	46.3	53.7
서울	52.6	47.4	44.1	55.9	43.4	56.6
부산	23.7	76.3	63.6	36.4	48.4	51.6
대구	33.3	66.7	45.9	54.1	38.9	61.1
인천	47.1	52.9	44.6	55.4	49.4	50.6
광주	19.5	80.5	18.7	81.3	36.6	63.4
대전	34.0	66.0	63.7	36.3	66.7	33.3
울산	28.4	71.6	47.8	52.2	51.2	48.8
세종	38.1	61.9	59.9	40.1	59.4	40.6
경기	51.1	48.9	50.8	49.2	41.7	58.3
강원	40.2	59.8	51.5	48.5	43.0	57.0
충북	42.9	57.1	45.5	54.5	65.1	34.9
충남	39.4	60.6	52.3	47.7	57.3	42.7
전북	25.2	74.8	16.4	83.6	50.3	49.7
전남	18.3	81.7	33.6	66.4	44.5	55.5
경북	40.1	59.9	55.2	44.8	49.8	50.2
경남	33.3	66.7	48.7	51.3	47.9	52.1
제주	39.5	60.5	44.2	55.8	41.1	58.9
전국	41.4	58.6	47.4	52.6	46.3	53.7
전북	25.2	74.8	16.4	83.6	50.3	49.7
비교	▼16.2	▲16.2	▼31.0	▲31.0	▲4.0	▼4.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4-35〉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변화



- 전북의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지표는 공공문화여가시설의 이용률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였고 2019년 기준 50.3%로 전국 평균 46.3%보다 약 4.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문화여가시설 만족도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6년 기준 25.5%에서 2019년 50.3%로 매우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37〉 예술행사 만족도(인구 십만 명당 문화예술활동 현황)

시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문화예술 활동 수	공연 횟수	문화예술 활동 수	공연 횟수	문화예술 활동 수	공연 횟수	문화예술 활동 수	공연 횟수
전국	65.4	244.2	66.4	268.0	71.9	227.4	77.0	245.9
서울	126.4	713.0	124.4	733.2	134.1	642.8	144.3	717.6
부산	72.6	252.4	74.0	278.6	79.1	230.3	81.7	211.8
대구	77.8	215.4	87.1	339.7	88.0	297.8	90.3	277.0
인천	37.6	92.8	34.1	93.6	53.9	85.0	51.7	94.2
광주	76.9	212.6	87.4	206.0	97.6	170.6	104.4	159.9
대전	65.5	282.8	65.9	308.0	81.7	309.2	86.2	331.1
울산	77.7	203.7	60.1	182.1	68.3	68.9	70.2	73.6
세종	27.5	27.4	49.0	48.6	42.8	40.0	46.8	48.4
경기	30.8	65.0	30.9	96.9	31.3	92.3	35.5	96.9
강원	76.4	118.1	93.1	112.3	101.1	167.5	116.7	138.7
충북	39.9	65.1	43.2	75.1	44.3	58.5	55.2	97.4
충남	35.5	49.9	45.4	81.1	48.5	76.3	52.4	85.2
전북	79.1	100.3	79.3	248.8	85.4	132.2	92.9	172.8
전남	45.4	45.7	54.5	134.8	60.0	61.1	67.7	83.7
경북	38.5	47.3	38.3	106.8	43.2	54.9	47.0	49.8
경남	55.0	85.9	50.1	65.7	54.7	71.4	57.7	109.3
제주	117.2	1,400.2	133.3	867.7	131.9	596.0	130.1	634.8
전국	65.4	244.2	66.4	268.0	71.9	227.4	77.0	245.9
전북	79.1	100.3	79.3	248.8	85.4	132.2	92.9	172.8
비교	▲13.7	▼143.9	▲12.9	▼19.2	▲13.5	▼95.2	▲15.9	▼73.1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 전북의 예술행사 만족도 지표는 인구 십만명당 문화예술활동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였고 2018년 기준 문화예술 활동 수는 92.9 회로 이는 전국 평균 77.0회보다 약 15.9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연 횟수로는 전북이 172.8회로 전국 평균 245.9회 보다 73.1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예술행사 만족도의 추이변화를 보면 문화예술활동 수와 공연 횟수 모두 2015년(79.1회, 100.3회)에서 2018년(92.9회, 172.8회)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38〉 여가활동 빈도

시도	2018년					2019년				
	매일	일주일 몇 번	한달 2-3번	한달 1번	몇 달 1번	매일	일주일 몇 번	한달 2-3번	한달 1번	몇 달 1번
전국	84.2	13.1	2.1	0.6	0.1	77.4	21.2	1.2	0.1	0.0
서울	80.7	15.4	3.0	0.7	0.3	81.9	16.8	1.0	0.3	0.0
부산	79.8	18.3	1.9	0.0	0.0	87.4	12.2	0.2	0.1	0.0
대구	97.6	2.4	0.0	0.0	0.0	84.8	13.6	1.1	0.3	0.1
인천	83.9	8.7	4.9	2.5	0.0	79.7	19.2	1.1	0.0	0.0
광주	97.6	2.4	0.0	0.0	0.0	83.0	16.6	0.5	0.0	0.0
대전	75.1	20.1	4.1	0.7	0.0	72.4	26.6	1.1	0.0	0.0
울산	75.0	23.7	1.0	0.2	0.0	75.1	23.6	1.0	0.0	0.3
세종	80.8	15.2	4.0	0.0	0.0	82.3	17.4	0.3	0.0	0.0
경기	82.4	14.7	2.2	0.8	0.0	66.6	31.0	2.2	0.1	0.1
강원	78.0	17.9	3.0	1.0	0.1	70.9	27.7	1.2	0.2	0.0
충북	69.6	28.4	1.7	0.3	0.0	75.3	24.7	-	0.0	0.0
충남	78.2	19.1	2.6	0.2	0.0	78.2	21.1	0.7	0.0	0.0
전북	99.6	0.4	0.0	0.0	0.0	87.8	11.1	1.0	0.0	0.1
전남	99.6	0.4	0.0	0.0	0.0	92.0	7.9	0.1	0.0	0.0
경북	95.9	3.8	0.3	0.0	0.0	78.1	19.7	1.5	0.7	0.0
경남	90.8	7.2	1.8	0.2	0.0	76.3	22.5	1.2	0.0	0.0
제주	60.0	33.9	4.9	1.2	0.0	85.9	10.9	3.2	0.0	0.0
전국	84.2	13.1	2.1	0.6	0.1	77.4	21.2	1.2	0.1	0.0
전북	99.6	0.4	0.0	0.0	0.0	87.8	11.1	1.0	0.0	0.1
비교	▲15.4	▼12.7	▼2.1	▼0.6	▼0.1	▲10.4	▼10.1	▼0.2	▼0.1	▲0.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각 연도)

- 전북의 여가활동 현황은 매일 하는 경우가 87.8%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국 평균 77.4%에 비해 약 10.4%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여가활동 현황을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매일 하는 경우는 2018년 99.6%에서 2019년 87.8%로 감소하였고 반면 일주일 몇 번 하는 빈도가 2018년 0.4%에서 2019년 11.1%로 증가하였다.

〈표4-39〉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시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관람합	평균 횟수						
전국	63.4	8.9	66.8	8.4	66.5	9.0	66.2	8.4
서울	70.3	10.1	72.6	9.0	70.3	10.5	70.7	9.6
부산	65.4	8.8	64.4	8.2	68.1	8.4	64.0	8.4
대구	62.0	7.8	66.6	8.0	67.3	8.2	61.9	6.7
인천	64.3	8.8	69.2	8.1	69.4	8.4	67.1	8.2
광주	71.7	8.7	71.4	9.0	73.1	9.1	73.0	8.3
대전	73.8	8.9	69.5	8.4	70.0	9.6	69.5	7.7
울산	63.4	8.4	64.1	8.4	68.0	7.9	62.9	8.0
세종			71.0	9.3	77.7	9.7	75.5	8.7
경기	67.5	8.6	70.1	8.6	69.5	8.9	69.7	8.3
강원	52.5	8.7	58.5	8.1	60.1	9.0	57.9	8.4
충북	55.2	7.7	65.2	7.8	58.9	8.1	63.7	7.5
충남	53.1	9.3	58.3	8.3	59.0	7.6	61.4	8.0
전북	53.2	7.8	58.1	8.0	61.5	8.2	62.3	8.3
전남	48.3	8.4	52.5	7.3	55.3	7.9	56.5	7.4
경북	51.4	7.4	56.9	7.3	56.1	7.7	56.5	7.8
경남	57.4	8.5	65.4	8.4	62.6	8.8	63.0	7.8
제주	54.9	8.5	62.2	7.8	63.9	8.6	64.1	8.3
전국	63.4	8.9	66.8	8.4	66.5	9.0	66.2	8.4
전북	53.2	7.8	58.1	8.0	61.5	8.2	62.3	8.3
비교	▼10.2	▼1.1	▼8.7	▼0.4	▼5.0	▼0.8	▼3.9	▼0.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36〉 문화예술관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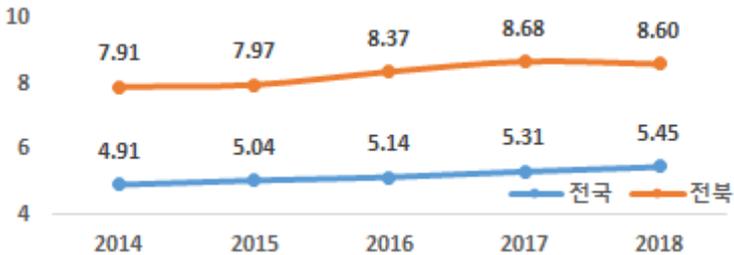
- 전북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2019년 62.3%로 전국 평균 66.2%에 비해 약 3.9%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관람 횟수로는 약 8.3회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3년 53.2%에서 2019년 62.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같은 기간 전국평균과의 격차 또한 2013년(-10.2%)에서 2019년 (-3.9%)로 나타나 전국평균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4-40〉 문화여가시설 개수(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4.91	5.04	5.14	5.31	5.45
서울	3.39	3.55	3.68	3.92	4.09
부산	2.24	2.48	2.77	2.97	3.11
대구	2.65	2.89	2.94	2.99	3.25
인천	3.03	3.32	3.26	3.43	3.52
광주	3.66	3.80	3.88	4.17	4.32
대전	3.53	3.69	3.76	3.66	3.69
울산	3.43	3.32	3.41	3.52	3.72
세종	6.41	5.69	5.35	5.00	6.05
경기	3.89	3.93	3.96	4.09	4.11
강원	12.82	13.29	13.61	14.06	13.93
충북	7.98	7.95	7.92	8.03	8.13
충남	7.23	7.41	7.54	7.56	7.81
전북	7.91	7.97	8.37	8.68	8.60
전남	9.39	9.48	10.03	10.55	10.94
경북	7.15	7.25	7.22	7.36	7.51
경남	5.58	5.65	5.72	5.83	6.14
제주	20.58	20.18	19.48	19.18	20.23
전국	4.91	5.04	5.14	5.31	5.45
전북	7.91	7.97	8.37	8.68	8.60
비교	▲3.0	▲2.9	▲3.23	▲3.37	▲3.15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각 연도)

〈그림4-37〉 문화여가시설 개수 변화



- 전북의 문화여가시설 개수는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였고 2018년 기준 8.60개로 전국 평균 5.45개 보다 약 3.15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문화여가시설 개수의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 7.91개에서 2018년 8.60개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북의 문화여가시설 개수 현황에 대해서는 긍정적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표4-41〉 문화여가비용(한 달 평균)

시도	2019년						평균(천원)
	3만원 미만	3-5만원	5-7만원	7-9만원	9-15만원	15만원 이상	
전국	9.8	8.1	17.4	2.9	20.3	41.5	156
서울	9.7	8.2	16.8	1.6	21.5	42.2	169
부산	7.2	5.2	16.3	3.1	22.5	45.6	169
대구	7.1	5.8	17.4	2.0	23.3	44.5	160
인천	8.9	7.2	11.5	3.1	17.3	51.9	168
광주	4.7	6.7	11.0	3.3	15.4	58.9	188
대전	4.1	9.4	15.1	3.8	18.5	49.0	162
울산	9.9	6.0	15.9	3.0	20.6	44.6	172
세종	8.4	8.6	26.5	5.6	19.8	31.1	134
경기	8.2	7.9	20.9	3.9	22.5	36.5	145
강원	19.1	10.7	23.1	3.4	19.8	23.9	97
충북	8.8	7.9	18.4	4.2	16.7	43.9	147
충남	14.5	12.9	14.3	5.7	24.4	28.2	118
전북	11.4	7.4	13.2	1.3	18.9	47.8	185
전남	12.2	9.1	14.4	1.7	11.3	51.2	173
경북	16.7	13.8	18.7	1.0	17.7	32.1	135
경남	10.7	6.1	16.4	2.0	16.2	48.6	175
제주	12.7	5.6	19.3	6.9	18.6	36.8	118
전국	9.8	8.1	17.4	2.9	20.3	41.5	156
전북	11.4	7.4	13.2	1.3	18.9	47.8	185
비교	▲1.6	▼0.7	▼4.2	▼1.6	▼1.4	▲6.3	▲2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 전북의 문화여가비용은 한달 평균 185천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 156천원 보다 약 29천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문화여가비용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5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47.8%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국 평균 41.5%보다 약 6.3%p 더 많은 수준이었다.
- 한편, 문화여가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지역은 광주가 18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전북(185천원), 경남(175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 복지

복지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사회보장만족도	사회보장여건 좋아짐	60.8	69.5	▲8.7
	2) 노후준비정도	준비됨	65.1	63.7	▼1.4
객관적 지표	3) 자살충동정도	십만명당 자살률	26.6	29.7	▲3.1
	4) 복지서비스만족도	십만명당 복지시설수	14.40	18.76	▲4.36
	5) 보육시설만족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16.35	17.88	▲1.53
	6) 노인복지서비스만족도	노인 천명당 노인시설수	6.08	13.84	▲7.76

- 전북의 복지서비스 만족 분야의 지표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 노후준비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약 1.4%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살충동정도(인구 십만명당 자살률)는 전북이 29.7%로 전국 평균 26.6%보다 약 3.1%p더 높게 나타나 부정적 지표로 나타났다.
-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표로는 사회보장여건변화의 지표로 전북이 69.5%로 전국 평균 60.8%보다 약 8.7%p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복지서비스의 만족도(▲7.76), 복지서비스 만족도(▲4.36) 지표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4-42〉 사회보장만족도(사회보장 여건변화)

시도	2015년			2017년			2019년		
	좋아짐	변화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없음	나빠짐
전국	48.5	42.5	9.0	45.9	47.1	7.0	60.8	35.2	3.9
서울	47.5	42.3	10.1	40.6	50.9	8.6	59.3	36.4	4.3
부산	52.7	40.0	7.3	50.8	44.0	5.2	60.7	34.1	5.2
대구	50.3	43.1	6.6	55.7	39.3	5.1	65.4	30.7	3.9
인천	46.3	44.7	9.0	41.7	49.0	9.3	60.4	36.3	3.3
광주	42.2	46.6	11.2	54.6	40.9	4.5	66.0	32.2	1.7
대전	50.1	41.6	8.2	48.8	45.0	6.2	58.7	37.5	3.8
울산	46.7	45.7	7.6	50.0	45.1	4.8	56.6	38.9	4.5
세종	42.5	48.7	8.9	43.2	49.5	7.3	64.6	31.2	4.2
경기	43.0	46.0	11.0	42.2	49.1	8.7	58.3	37.2	4.5
강원	52.2	40.6	7.1	45.4	49.1	5.5	62.0	34.5	3.4
충북	49.6	40.8	9.7	47.9	46.2	5.9	61.3	36.0	2.7
충남	52.1	40.6	7.3	45.8	49.3	5.0	59.1	37.4	3.5
전북	50.2	41.6	8.2	51.2	44.5	4.3	69.5	29.1	1.4
전남	59.4	33.8	6.8	57.8	36.4	5.7	71.1	27.2	1.7
경북	57.7	37.5	4.7	51.6	42.8	5.6	59.8	35.8	4.4
경남	52.1	39.6	8.2	48.2	46.6	5.3	62.1	33.5	4.4
제주	50.3	44.0	5.7	42.7	52.7	4.6	65.1	32.2	2.7
전국	48.5	42.5	9.0	45.9	47.1	7.0	60.8	35.2	3.9
전북	50.2	41.6	8.2	51.2	44.5	4.3	69.5	29.1	1.4
비교	▲1.7	▼0.9	▼0.8	▲5.3	▼2.6	▼2.7	▲8.7	▼6.1	▼2.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38〉 사회보장여건 좋아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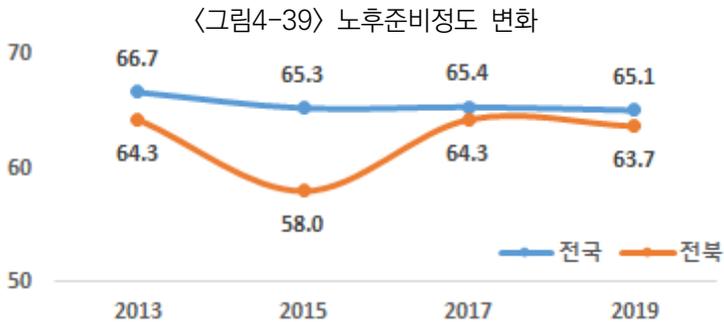


- 전북의 사회보장만족도는 사회보장 여건변화를 대표적으로 제시 하였으며 2019년 기준 69.5%로 전국평균 60.8%보다 약 8.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사회보장만족도의 추 이변화를 보면 2015년 기준 50.2%에서 2019년 69.5%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 사회보장만족도의 추이변화 또한 2015년 48.5%에서 2019년 60.8%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43〉 노후준비정도

시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준비됨	준비되지 않음	준비됨	준비되지 않음	준비됨	준비되지 않음	준비됨	준비되지 않음
전국	66.7	33.3	65.3	34.7	65.4	34.6	65.1	34.9
서울	71.9	28.1	68.4	31.6	61.1	38.9	65.2	34.8
부산	61.9	38.1	63.9	36.1	61.0	39.0	69.7	30.3
대구	63.0	37.0	54.5	45.5	66.9	33.1	62.9	37.1
인천	69.8	30.2	69.1	30.9	69.6	30.4	66.1	33.9
광주	70.0	30.0	66.1	33.9	68.0	32.0	70.8	29.2
대전	65.8	34.2	73.5	26.5	70.9	29.1	71.2	28.8
울산	76.3	23.7	66.1	33.9	67.4	32.6	60.3	39.7
세종			74.3	25.7	74.3	25.7	68.6	31.4
경기	66.9	33.1	65.5	34.5	66.4	33.6	63.6	36.4
강원	65.0	35.0	64.7	35.3	66.0	34.0	65.3	34.7
충북	56.0	44.0	68.7	31.3	61.1	38.9	64.5	35.5
충남	64.4	35.6	57.6	42.4	70.8	29.2	67.0	33.0
전북	64.3	35.7	58.0	42.0	64.3	35.7	63.7	36.3
전남	60.5	39.5	63.9	36.1	61.3	38.7	63.5	36.5
경북	64.9	35.1	64.2	35.8	70.1	29.9	63.3	36.7
경남	62.3	37.7	64.9	35.1	67.0	33.0	64.6	35.4
제주	79.1	20.9	68.1	31.9	67.5	32.5	63.8	36.2
전국	66.7	33.3	65.3	34.7	65.4	34.6	65.1	34.9
전북	64.3	35.7	58.0	42.0	64.3	35.7	63.7	36.3
비교	▼2.4	▲2.4	▼7.3	▲7.3	▼1.1	▲1.1	▼1.4	▲1.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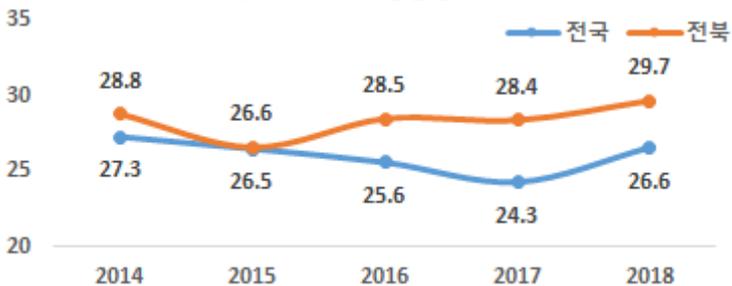
- 전북의 노후준비정도는 2019년 기준 63.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평균 65.1%보다 약 1.4%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노후준비도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3년 기준 64.3%에서 2019년 63.7%로 미미한 수준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 또한 2013년 66.7%에서 2019년 65.1%로 매우 미미한 수준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44〉 자살총동정도(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시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27.3	26.5	25.6	24.3	26.6
서울	24.7	23.2	23.0	21.3	22.5
부산	28.7	29.0	27.2	26.3	27.9
대구	25.2	26.8	24.2	24.9	26.8
인천	29.1	27.4	26.5	24.0	27.9
광주	23.8	21.4	23.2	22.6	25.7
대전	26.8	27.0	24.8	22.5	28.3
울산	25.4	24.3	23.5	24.4	27.1
세종	18.1	22.5	23.9	17.7	26.0
경기	25.7	25.3	23.0	22.9	24.2
강원	36.8	35.3	32.2	30.6	33.1
충북	31.5	30.4	32.8	28.2	31.1
충남	36.5	35.1	32.1	31.7	35.5
전북	28.8	26.6	28.5	28.4	29.7
전남	29.4	30.8	29.7	25.1	28.0
경북	28.4	27.5	28.8	26.0	29.6
경남	26.5	26.3	27.2	24.9	28.9
제주	27.2	24.5	24.0	26.7	30.6
전국	27.3	26.5	25.6	24.3	26.6
전북	28.8	26.6	28.5	28.4	29.7
비교	▲1.5	▲0.1	▲2.9	▲4.1	▲3.1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각 연도)

〈그림4-40〉 자살총동정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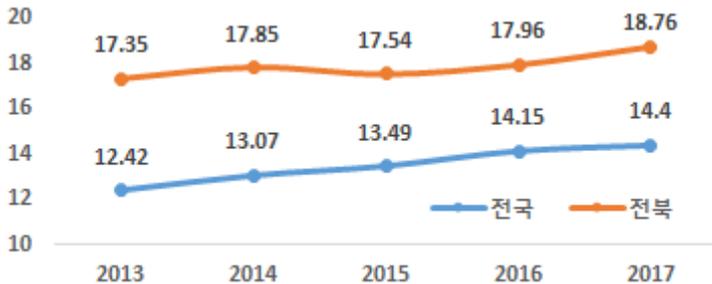
- 전북의 자살총동정도는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을 대표적으로 제시 하였으며 2018년 기준 29.7%로 전국 평균 26.6%보다 약 3.1%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자살총동정도(자살률)은 2014년 28.8%에서 2018년 29.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평균은 2014년 27.3%에서 2018년 26.6%로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표4-45〉 복지서비스 만족도(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12.42	13.07	13.49	14.15	14.40
서울	7.49	7.56	7.67	7.96	7.82
부산	5.75	5.80	5.83	5.72	6.51
대구	13.99	14.28	14.71	14.65	14.71
인천	12.19	14.54	16.17	16.79	16.48
광주	10.39	10.84	10.94	10.35	10.45
대전	9.92	10.71	11.06	11.42	11.52
울산	6.92	6.26	6.82	7.42	7.90
세종	26.20	20.50	15.65	8.64	7.50
경기	13.37	14.22	14.65	16.59	16.94
강원	23.86	25.58	26.52	27.34	28.19
충북	22.70	23.05	23.55	24.50	24.90
충남	17.19	18.81	19.30	19.70	20.31
전북	17.35	17.85	17.54	17.96	18.76
전남	20.66	22.09	22.94	23.37	23.31
경북	15.60	16.59	17.80	18.07	18.54
경남	9.69	9.88	9.75	9.78	9.94
제주	15.66	15.64	15.86	15.27	14.91
전국	12.42	13.07	13.49	14.15	14.40
전북	17.35	17.85	17.54	17.96	18.76
비교	▲4.93	▲4.78	▲4.05	▲3.81	▲4.36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각 연도)

〈그림4-41〉 사회복지시설 수 변화



- 전북의 복지서비스만족도는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2017년 기준 18.76개소로 전국 평균 14.40개소 보다 약 4.36개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3년 17.35개소에서 2017년 18.76개소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46〉 보육시설 만족도(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시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15.52	15.33	15.67	16.22	16.35
서울	13.96	14.04	14.51	15.24	15.40
부산	12.13	12.11	12.59	13.23	13.78
대구	12.55	12.28	12.62	12.89	12.85
인천	13.98	14.06	14.52	15.16	15.38
광주	15.22	15.46	16.21	16.71	16.64
대전	19.49	19.07	19.29	19.53	19.43
울산	13.21	12.88	13.26	14.06	14.56
세종	12.08	12.09	12.26	13.44	13.38
경기	17.18	16.62	16.75	17.23	17.36
강원	17.19	17.09	17.51	17.69	17.53
충북	14.53	14.58	14.96	15.42	15.93
충남	16.91	17.04	17.40	18.05	18.19
전북	17.42	17.37	17.71	17.92	17.88
전남	13.11	13.61	14.26	14.97	15.18
경북	15.72	15.80	16.25	16.75	16.68
경남	17.65	17.08	17.39	18.06	17.99
제주	15.60	14.63	14.38	14.58	14.95
전국	18.76	18.64	15.67	16.22	16.35
전북	21.24	21.37	17.71	17.92	17.88
비교	▲2.48	▲2.73	▲2.04	▲1.70	▲1.53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각 연도)

〈그림4-42〉 보육시설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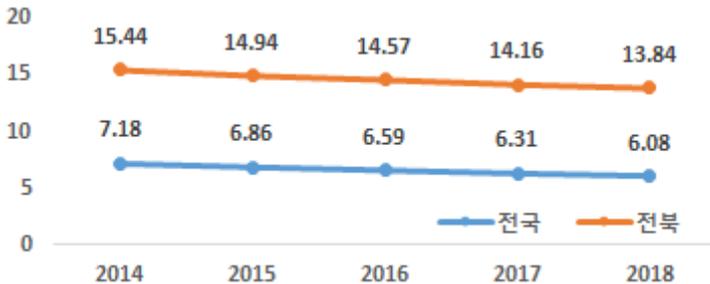
- 전북의 보육시설 만족도는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2019년 기준 17.88개소로 전국 평균 16.35개소 보다 약 1.53개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5년 21.24개소에서 2019년 17.88개소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47〉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노인 천명당 노인복지시설 수)

시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7.18	6.86	6.59	6.31	6.08
서울	2.13	2.04	1.98	1.90	1.86
부산	3.30	3.19	3.06	2.95	2.87
대구	3.40	3.25	3.12	3.00	2.93
인천	3.47	3.26	3.09	2.91	2.76
광주	5.96	5.72	5.46	5.25	5.01
대전	3.56	3.39	3.20	3.07	2.93
울산	5.20	4.91	4.67	4.39	4.18
세종	15.00	13.75	12.95	11.73	11.06
경기	5.26	4.95	4.67	4.42	4.19
강원	8.92	8.59	8.34	8.01	7.75
충북	12.98	12.46	11.96	11.43	10.95
충남	12.94	12.45	12.04	11.62	11.26
전북	15.44	14.94	14.57	14.16	13.84
전남	17.88	17.54	17.26	16.83	16.50
경북	12.43	12.05	11.68	11.35	11.03
경남	11.68	11.18	10.71	10.21	9.79
제주	3.92	3.78	3.66	3.52	3.31
전국	7.18	6.86	6.59	6.31	6.08
전북	15.44	14.94	14.57	14.16	13.84
비교	▲8.26	▲8.08	▲7.98	▲7.85	▲7.76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각 연도)

〈그림4-43〉 노인복지시설 수 변화



- 전북의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는 노인 천명당 노인시설수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2018년 기준 13.84개소로 전국 평균 6.08개소 보다 약 7.76개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노인 천명당 노인시설수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4년 15.44개소에서 2019년 13.84개소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안전

사회관계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안전시설 만족도	안전하다	23.9	26.1	▲2.2
	2)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	안전하다	17.2	17.3	▲0.1
	3)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만족도	안전하다	22.7	26.2	▲3.5
객관적 지표	4) 범죄 및 재해재난 안전성	범죄 안전등급	3	2	▲1
		재해재난 안전등급	3	2	▲1
	5) 지역안전등급	교통사고	3	4	▼1
		화재	3	3	-
		범죄	3	2	▲1
		자연재해	3	2	▲1
		감염병	3	3	-
	6) 범죄 검거율	검거율	84.0	88.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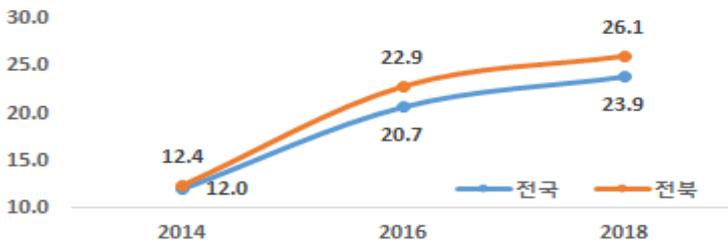
- 전북의 지역사회안전 만족 분야의 지표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범죄 검거율에 있어서는 전북이 88.3%로 전국 평균 84.0%보다 약 4.3%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만족도 지표(▲3.5)와 안전시설 만족도 지표(▲2.2) 등의 경우도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표로는 지역안전등급 중 교통사고 분야의 안전등급이 4등급으로 전국평균 3등급에 비해 1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48〉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시도	2014년			2016년			2018년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국	12.0	36.7	51.3	20.7	45.5	33.8	23.9	43.3	32.7
서울	12.0	34.0	54.0	20.7	43.2	36.0	23.8	44.2	32.0
부산	16.1	38.3	45.6	29.2	47.0	23.7	27.0	48.2	24.8
대구	10.9	41.7	47.4	21.6	45.1	33.3	17.7	46.8	35.6
인천	11.3	40.3	48.4	18.6	45.6	35.8	20.3	39.7	40.0
광주	7.5	34.0	58.6	15.3	48.0	36.9	19.5	46.9	33.7
대전	17.4	38.0	44.5	23.7	43.9	32.4	27.0	41.3	31.7
울산	8.1	39.0	52.9	14.6	46.7	38.8	21.8	47.3	30.8
세종	-	-	-	28.4	42.2	29.4	29.0	40.6	30.3
경기	10.1	36.5	53.4	19.2	45.5	35.3	24.3	40.8	35.0
강원	11.9	36.8	51.3	18.6	42.2	39.3	23.8	44.2	32.1
충북	15.8	38.8	45.4	22.5	42.3	35.3	25.4	40.2	34.4
충남	13.0	39.2	47.8	24.6	44.4	31.0	30.6	42.2	27.1
전북	12.4	37.4	50.1	22.9	44.9	32.2	26.1	45.9	28.0
전남	16.6	34.6	48.9	19.4	46.9	33.8	29.9	43.4	26.7
경북	14.1	35.9	50.0	21.6	49.9	28.4	20.7	43.2	36.1
경남	10.7	34.4	55.0	17.8	49.9	32.4	21.7	44.1	34.3
제주	14.8	40.8	44.3	19.4	49.0	31.6	21.4	45.6	33.0
전국	12.0	36.7	51.3	20.7	45.5	33.8	23.9	43.3	32.7
전북	12.4	37.4	50.1	22.9	44.9	32.2	26.1	45.9	28.0
비교	▲0.4	▲0.7	▼1.2	▲2.2	▼0.6	▼1.6	▲2.2	▲2.6	▼4.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44〉 안전시설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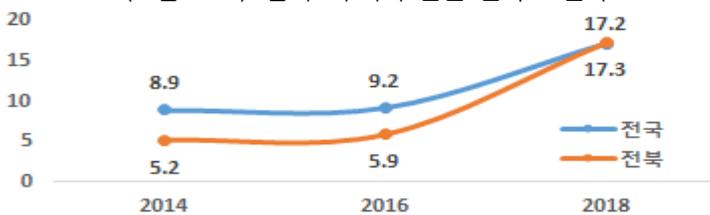
- 전북의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 기준 26.1%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 23.9%와 비교하면 약 2.2%p 더 낮았다. 전북의 안전시설 만족도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4년 기준 12.4%에서 2018년 26.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과의 격차 또한 2014년(▲0.4)에 비해 2018년(▲2.2)격차가 더 벌어지며 만족도가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4-49〉 범죄로부터의 안전 만족도

시도	2014년			2016년			2018년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국	8.9	26.6	64.5	9.2	23.7	67.1	17.2	32.0	50.8
서울	10.6	27.3	62.1	10.7	24.4	64.9	22.1	34.8	43.1
부산	7.7	27.3	65.0	10.7	23.4	66.0	16.6	39.4	43.9
대구	8.6	29.4	62.0	6.9	22.2	70.9	12.3	28.4	59.4
인천	9.5	29.0	61.5	8.7	23.2	68.0	15.9	26.2	57.8
광주	4.7	26.0	69.2	5.8	20.9	73.3	12.8	30.0	57.2
대전	9.5	28.0	62.5	10.1	25.0	64.9	19.6	34.8	45.7
울산	9.1	26.1	64.8	7.5	24.6	67.9	18.3	38.1	43.6
세종	0.0	-	0.0	13.3	26.3	60.4	23.5	29.2	47.3
경기	7.9	25.8	66.3	9.5	23.0	67.5	15.6	28.7	55.8
강원	11.3	27.7	61.0	10.6	21.1	68.3	18.2	30.6	51.1
충북	11.4	27.0	61.7	8.9	21.4	69.7	16.4	31.9	51.7
충남	7.4	21.6	71.0	8.5	26.9	64.6	18.9	33.7	47.4
전북	5.2	24.1	70.7	5.9	19.9	74.2	17.3	36.3	46.4
전남	9.0	27.1	63.9	8.1	26.8	65.2	18.2	32.5	49.3
경북	12.1	29.7	58.3	9.2	27.4	63.4	12.0	31.4	56.6
경남	7.6	22.1	70.3	9.1	23.5	67.3	17.0	31.6	51.4
제주	10.0	30.8	59.2	7.3	24.2	68.5	14.3	32.6	53.2
전국	8.9	26.6	64.5	9.2	23.7	67.1	17.2	32.0	50.8
전북	5.2	24.1	70.7	5.9	19.9	74.2	17.3	36.3	46.4
비교	▼3.7	▼2.5	▲6.2	▼3.3	▼3.8	▲7.1	▲0.1	▲4.3	▼4.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45〉 범죄로부터의 안전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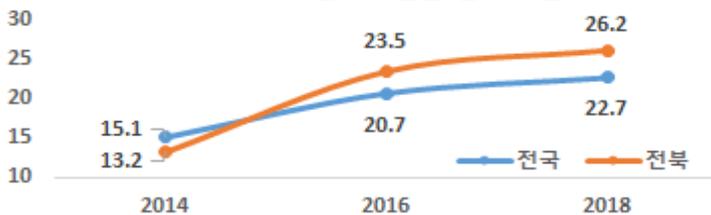
- 전북의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는 2018년 기준 17.3%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 17.2%와 비교하면 약 0.1%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범죄안전만족도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4년 기준 5.2%에서 2018년 17.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과의 격차는 2014년에는 -3.7%p였으나 2018년은 +0.1%p로 범죄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평균보다 높아지는 추세이다.

〈표4-50〉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만족도

시도	2014년			2016년			2018년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국	15.1	40.6	44.3	20.7	43.4	35.9	22.7	39.6	37.6
서울	15.6	39.0	45.3	21.2	44.3	34.5	24.9	43.2	31.9
부산	19.2	41.3	39.6	28.3	43.5	28.2	25.2	40.0	34.8
대구	16.2	44.6	39.2	21.5	44.5	34.0	15.9	34.3	49.9
인천	15.9	43.6	40.6	19.3	45.2	35.5	21.0	36.9	42.1
광주	9.1	39.2	51.7	14.9	43.8	41.2	20.6	41.5	37.9
대전	20.7	40.4	38.9	25.4	41.5	33.1	25.6	38.0	36.4
울산	10.6	42.2	47.3	14.5	44.1	41.4	19.0	37.1	43.9
세종	0.0	-	0.0	28.7	40.1	31.3	30.0	36.7	33.3
경기	13.1	41.6	45.3	20.1	43.0	36.8	23.7	40.9	35.4
강원	13.1	38.4	48.4	18.2	35.4	46.4	23.5	40.2	36.3
충북	18.7	39.7	41.6	20.3	38.7	41.1	20.4	36.5	43.2
충남	15.9	39.0	45.1	24.0	41.9	34.1	29.1	38.3	32.6
전북	13.2	42.7	44.1	23.5	40.6	35.9	26.2	41.6	32.2
전남	16.8	34.1	49.1	18.5	42.7	38.8	25.8	37.3	36.9
경북	17.3	43.6	39.0	20.3	46.3	33.5	15.1	32.0	53.0
경남	13.3	38.6	48.1	16.8	46.4	36.9	17.8	38.8	43.5
제주	14.2	42.5	43.2	17.9	41.6	40.5	19.7	44.8	35.5
전국	15.1	40.6	44.3	20.7	43.4	35.9	22.7	39.6	37.6
전북	13.2	42.7	44.1	23.5	40.6	35.9	26.2	41.6	32.2
비교	▼1.9	▲2.1	▼0.2	▲2.8	▼2.8	-	▲3.5	▲2.0	▼5.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그림4-46〉 자연재해 안전 만족도 변화



- 전북의 자연재해안전만족도는 2018년 기준 26.2%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 22.7%와 비교하면 약 3.5%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자연재해안전만족도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4년 기준 13.2%에서 2018년 26.2%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과의 격차는 2014년에는 -1.9%p였으나 2018년은 +3.5%p로 자연재해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평균보다 높아지는 추세이다.

〈표4-51〉 범죄 및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범죄 안전등급	재해재난 안전등급	범죄 안전등급	재해재난 안전등급	범죄 안전등급	재해재난 안전등급
전국	3	3	3	3	3	3
서울	5	1	5	1	5	1
부산	4	5	4	3	4	2
대구	3	2	3	2	2	3
인천	2	4	2	4	3	5
광주	4	2	3	2	3	4
대전	3	4	4	4	4	4
울산	2	3	2	5	2	3
세종	1	3	1	3	1	2
경기	3	2	3	2	4	4
강원	4	3	4	5	4	3
충북	4	3	4	4	3	1
충남	3	3	3	3	3	3
전북	2	1	1	2	2	2
전남	1	4	2	3	1	3
경북	2	2	2	3	2	5
경남	3	4	3	4	3	4
제주	5	5	5	1	5	2
전국	3	3	3	3	3	3
전북	2	1	1	2	2	2
비교	▲1	▲2	▲2	▲1	▲1	▲1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안전등급현황

*주 :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안전

- 전북의 범죄 및 재해재난의 안전등급현황은 범죄안전등급의 경우 2등급으로 안전등급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재해재난의 경우 또한 2등급으로 나타났다.
- 17개 시도 중 범죄안전등급이 1등급인 지역은 세종시와 전남 등 2개 지역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해재난안전등급이 1등급인 지역은 서울과 충북 단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4-52〉 지역안전등급현황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교통 사고	화재	범죄	자연 재해	감염병	교통 사고	화재	범죄	자연 재해	감염병	교통 사고	화재	범죄	자연 재해	감염병
전국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서울	1	2	5	1	3	1	2	5	1	3	1	2	5	1	2
부산	2	3	4	5	5	2	4	4	3	5	2	4	4	2	4
대구	3	3	3	2	4	4	3	3	2	4	3	3	2	3	5
인천	2	4	2	4	3	2	3	2	4	2	2	1	3	5	3
광주	4	1	4	2	4	4	2	3	2	4	5	3	3	4	4
대전	3	2	3	4	2	3	1	4	4	3	4	4	4	4	3
울산	4	4	2	3	2	3	4	2	5	2	3	2	2	3	1
세종	5	5	1	3	1	5	5	1	3	1	4	5	1	2	2
경기	1	1	3	2	1	1	2	3	2	1	1	1	4	4	1
강원	3	5	4	3	4	3	5	4	5	3	3	4	4	3	4
충북	2	4	4	3	2	2	3	4	4	3	2	5	3	1	3
충남	4	4	3	3	3	4	3	3	3	3	3	3	3	3	3
전북	3	2	2	1	3	3	4	1	2	4	4	3	2	2	3
전남	5	3	1	4	5	5	4	2	3	4	5	4	1	3	4
경북	4	3	2	2	4	4	2	2	3	5	4	3	2	5	5
경남	2	3	3	4	3	2	3	3	4	2	2	2	3	4	2
제주	3	2	5	5	2	3	1	5	1	2	3	2	5	2	2
전국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전북	3	2	2	1	3	3	4	1	2	4	4	3	2	2	3
비교	-	▲1	▲1	▲2	-	-	▼1	▲2	▲1	▼1	▼1	-	▲1	▲1	-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안전등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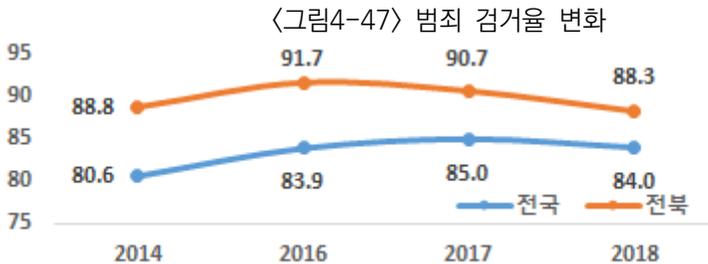
*주 :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안전

- 전북의 지역안전등급현황은 2018년 기준 범죄안전과 자연재해 안전이 2등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이어서 화재안전과 감염병 안전이 3등급, 교통사고안전이 4등급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교통사고안전등급의 경우 2017년 3등급에서 2018년 4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이 하락하였으나 감염병안전등급은 같은 기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등급 상승하였다.

〈표4-53〉 범죄발생건수 및 검거율

시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발생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율
전국	1,861,657	80.6	1,849,450	83.9	1,662,341	85.0	1,580,751	84.0
서울	356,575	74.5	343,104	77.9	320,193	79.0	308,997	77.4
부산	140,700	77.3	129,211	81.9	116,449	85.7	110,628	84.4
대구	98,897	80.9	86,150	84.6	75,016	86.6	72,341	85.0
인천	99,915	81.8	100,387	84.7	91,385	86.2	86,391	85.5
광주	61,234	82.8	54,271	85.5	48,213	88.5	43,569	89.1
대전	49,593	80.5	49,038	86.3	46,988	88.2	45,527	86.7
울산	44,569	84.0	39,799	87.0	34,912	87.3	32,764	84.4
경기	430,790	82.1	476,348	85.4	417,066	85.7	388,938	84.1
강원	56,928	82.0	58,814	84.2	53,171	85.6	45,233	87.5
충북	53,703	82.8	56,179	86.4	50,387	85.6	48,315	86.3
충남	73,409	79.0	72,072	82.3	67,276	82.2	68,577	81.1
전북	57,342	88.8	53,375	91.7	48,979	90.7	47,944	88.3
전남	66,643	81.4	62,794	85.4	53,892	87.6	50,993	88.5
경북	91,876	83.0	88,059	85.3	80,061	86.7	74,356	86.4
경남	118,843	82.9	114,410	86.1	100,775	87.5	90,267	86.1
제주	33,819	77.7	35,003	78.8	31,368	82.3	27,427	83.7
전국	1,861,657	80.6	1,849,450	83.9	1,662,341	85.0	1,580,751	84.0
전북	57,342	88.8	53,375	91.7	48,979	90.7	47,944	88.3
비교	-	▲8.2	-	▲7.8	-	▲5.7	-	▲4.3

자료 : 경찰청.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각 연도)



- 전북의 범죄발생건수는 2018년 기준 47,944건이었으며 검거율은 88.3%로 이는 전국 평균 검거율 84.0%보다 약 4.3%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 중 2018년 기준 범죄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가 388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308천 건), 부산(110천 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범죄 검거율의 경우 광주가 89.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전남(88.5%), 전북(88.3%) 등의 순으로 검거율이 높게 나타났다.

9. 주거

주거여건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주거환경 만족도	만족	85.9	88.2	▲2.3
	2) 주택 만족도	만족	86.0	88.1	▲2.1
객관적 지표	3) 주택가격	전세가격지수	96.9	97.9	▲1.0
		매매가격지수	100.9	98.7	▼2.2
	4) 대중교통접근성	대중교통접근 5분~10분	43.5	43.0	▼0.5

- 전북의 주거여건 만족 분야의 지표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환경과 주택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약 2%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주택가격지표에서 전세가격지수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1.0p 높은 97.9p로 나타났고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2.2p 낮은 98.7p로 나타나 전북의 경우 매매가격지수보다 전세가격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지에서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접근성으로는 전국평균보다 0.5%p 낮은 43.0%를 보이고 있다(대중교통까지의 접근시간 5~10분 기준).

〈표4-54〉 주거환경의 전반적 만족도

시도	2016년						2018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국	1.3	14.8	73.7	10.2	16.1	83.9	1.1	13.0	76.6	9.3	14.1	85.9
서울	1.4	11.7	75.3	11.7	13.1	86.9	1.6	9.8	77.7	10.9	11.4	88.6
부산	0.6	15.8	79.5	4.1	16.4	83.6	1.1	10.7	71.7	16.4	11.8	88.1
대구	0.6	14.8	78.1	6.5	15.4	84.6	0.4	12.5	82.9	4.2	12.9	87.1
인천	0.9	18.4	62.9	17.8	19.4	80.6	1.9	18.7	69.5	9.9	20.6	79.4
광주	0.2	6.7	83.4	9.6	6.9	93.1	0.0	11.4	84.1	4.4	11.4	88.5
대전	0.1	20.0	68.7	11.2	20.1	79.9	0.3	13.8	75.5	10.5	14.1	86.0
울산	0.0	20.2	73.6	6.2	20.2	79.8	0.8	11.9	71.5	15.8	12.7	87.3
세종	0.1	16.0	61.6	22.3	16.1	83.9	0.0	8.4	83.2	8.3	8.4	91.5
경기	2.1	14.9	70.2	12.8	17.0	83.0	1.1	14.4	76.6	7.9	15.5	84.5
강원	1.8	9.8	83.4	4.9	11.7	88.3	0.8	9.9	83.6	5.7	10.7	89.3
충북	0.8	11.1	67.1	21.1	11.9	88.1	1.2	8.6	82.1	8.1	9.8	90.2
충남	1.0	29.9	68.0	1.1	30.9	69.1	0.6	19.1	76.2	4.0	19.7	80.2
전북	0.2	11.6	82.5	5.7	11.8	88.2	0.5	11.3	79.1	9.1	11.8	88.2
전남	2.7	15.4	70.2	11.6	18.1	81.9	0.6	15.0	77.4	7.1	15.6	84.5
경북	3.0	21.5	65.4	10.1	24.5	75.5	1.9	16.8	73.0	8.4	18.7	81.4
경남	0.0	10.0	85.8	4.1	10.0	90.0	1.3	13.7	73.2	11.7	15.0	84.9
제주	0.8	8.5	74.2	16.5	9.3	90.7	0.5	11.2	77.2	11.1	11.7	88.3
전국	1.3	14.8	73.7	10.2	16.1	83.9	1.1	13.0	76.6	9.3	14.1	85.9
전북	0.2	11.6	82.5	5.7	11.8	88.2	0.5	11.3	79.1	9.1	11.8	88.2
비교	▼1.1	▼3.2	▲8.8	▼4.5	▼4.3	▲4.3	▼0.6	▼1.7	▲2.5	▼0.2	▼2.3	▲2.3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보고서(각 연도)

- 전북의 주거환경만족도는 2018년 기준 88.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 85.9%와 비교하면 약 2.3%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17개 시도 중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 91.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충북(90.2%), 강원(89.3%), 서울(88.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은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4-55〉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시도	2016년						2018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국	1.6	12.8	70.3	15.3	14.4	85.6	1.0	13.0	73.4	12.6	14.0	86.0
서울	1.5	12.8	71.4	14.2	14.4	85.6	1.8	12.8	74.1	11.3	14.6	85.4
부산	0.4	12.6	77.2	9.8	13.1	86.9	0.8	10.3	65.7	23.1	11.1	88.8
대구	0.8	17.2	69.4	12.7	18.0	82.0	0.4	10.1	83.5	6.0	10.5	89.5
인천	1.9	18.0	60.2	19.9	19.9	80.1	1.8	20.0	65.2	13.0	21.8	78.2
광주	0.1	7.6	76.7	15.6	7.7	92.3	0.6	12.5	81.3	5.7	13.1	87.0
대전	0.6	11.9	72.0	15.4	12.6	87.4	0.7	11.5	76.1	11.7	12.2	87.8
울산	1.0	7.6	85.3	6.1	8.6	91.4	0.7	11.8	65.7	21.8	12.5	87.5
세종	0.0	12.7	61.2	26.1	12.7	87.3	0.0	3.6	84.4	12.0	3.6	96.4
경기	2.4	12.1	65.2	20.3	14.5	85.5	0.8	12.8	74.1	12.4	13.6	86.5
강원	0.7	8.9	84.4	6.0	9.6	90.4	0.7	12.4	79.8	7.1	13.1	86.9
충북	1.8	13.9	61.0	23.4	15.6	84.4	0.4	6.6	78.6	14.4	7.0	93.0
충남	0.8	10.1	80.6	8.6	10.9	89.1	0.8	10.7	79.6	8.9	11.5	88.5
전북	1.0	10.8	69.9	18.3	11.8	88.2	0.8	11.2	70.6	17.5	12.0	88.1
전남	3.3	14.6	72.1	10.0	17.9	82.1	1.1	19.6	69.2	10.2	20.7	79.4
경북	3.0	16.3	65.6	15.1	19.3	80.7	1.8	16.8	70.4	11.0	18.6	81.4
경남	0.7	13.0	72.4	13.9	13.7	86.3	0.6	13.5	71.5	14.4	14.1	85.9
제주	2.1	12.6	68.7	16.6	14.7	85.3	1.4	15.8	67.9	14.9	17.2	82.8
전국	1.6	12.8	70.3	15.3	14.4	85.6	1.0	13.0	73.4	12.6	14.0	86.0
전북	1.0	10.8	69.9	18.3	11.8	88.2	0.8	11.2	70.6	17.5	12.0	88.1
비교	▼0.6	▼2.0	▼0.4	▲3.0	▼2.6	▲2.6	▼0.2	▼1.8	▼2.8	▲4.9	▼2.0	▲2.1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보고서(각 연도)

- 전북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 기준 88.1%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 86.0%와 비교하면 약 2.1%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17개 시도 중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 96.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충북(93.0%), 대구(89.5%), 부산(88.8%), 충남(88.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은 그 뒤를 이어 6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4-56〉 주택가격(전세, 매매가격지수)

시도	전세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98.1	99.3	100.0	98.2	96.9	98.0	98.7	100.1	101.2	100.9
서울	96.3	98.2	100.2	100.4	100.0	95.0	97.1	100.6	106.8	108.2
부산	96.4	99.2	100.0	97.9	96.1	94.7	97.7	100.0	98.5	97.2
대구	101.6	100.0	100.0	100.2	101.3	100.8	98.9	100.2	103.9	105.1
인천	96.4	98.5	99.9	98.9	98.4	97.8	98.6	100.0	100.7	101.3
광주	98.0	98.9	100.1	101.1	100.8	98.4	98.7	100.1	103.9	104.5
대전	97.2	98.6	100.0	100.1	102.3	98.3	98.6	100.1	102.6	109.6
울산	100.4	100.8	99.8	90.8	86.9	100.5	100.9	99.8	92.9	90.2
세종	104.2	108.4	100.7	103.4	101.3	95.2	95.9	100.1	102.2	101.3
경기	97.0	99.0	99.9	97.0	96.0	97.6	98.4	100.1	101.9	101.8
강원	96.9	98.2	100.0	97.3	93.7	96.4	97.7	100.0	98.4	95.5
충북	97.3	99.0	100.0	97.3	94.1	101.0	100.3	99.9	97.4	94.4
충남	102.0	101.0	99.9	97.3	96.4	102.0	100.5	99.9	98.1	96.6
전북	97.7	98.6	100.1	99.6	97.9	98.1	98.2	100.1	100.1	98.7
전남	97.5	98.6	100.0	101.2	101.6	96.9	97.9	100.1	102.9	104.9
경북	102.2	101.1	99.9	97.0	94.8	102.5	100.8	99.8	98.0	95.7
경남	101.9	102.5	99.8	95.1	91.1	102.0	101.5	99.8	95.0	91.7
제주	98.1	99.9	100.0	98.2	95.4	94.2	98.5	100.2	101.1	98.3
전국	98.1	99.3	100.0	98.2	96.9	98.0	98.7	100.1	101.2	100.9
전북	97.7	98.6	100.1	99.6	97.9	98.1	98.2	100.1	100.1	98.7
비교	▼0.4	▼0.7	▲0.1	▲1.4	▲1.0	▲0.1	▼0.5	-	▼1.1	▼2.2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각 연도)

주 : 2017.11=100

- 전북의 주택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전세가격지수와 매매가격지수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전세가격지수의 경우 2019년 기준 97.9p로 이는 전국 평균 96.9p보다 약 1.0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매매가격지수는 전북이 98.7p로 전국평균 100.9p보다 2.2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이 102.3p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전남(101.6p), 대구(101.3p)등의 순이었으며 매매가격지수가 높은 지역은 대전 (109.6p), 서울(108.2p), 대구(105.1p)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4-57〉 대중교통접근성(대중교통접근시간)

시도	2017년					2018년				
	5분 미만	5~10분	10~20분	20~30분	30분 이상	5분 미만	5~10분	10~20분	20~30분	30분 이상
전국	14.8	43.6	36.4	3.2	2.0	15.3	43.5	35.4	3.6	2.1
서울	13.8	42.6	39.1	2.7	1.8	15.9	43.1	35.2	3.4	2.3
부산	15.0	44.8	35.2	3.2	1.8	13.9	43.3	36.3	4.2	2.4
대구	14.7	44.0	36.3	3.0	2.0	15.1	42.9	35.5	4.3	2.1
인천	10.8	46.0	36.9	3.6	2.7	15.1	43.3	36.3	3.2	2.2
광주	13.9	41.7	36.5	4.5	3.4	16.1	44.3	34.2	3.9	1.5
대전	14.7	44.2	34.1	4.3	2.7	15.7	42.9	36.7	2.9	1.8
울산	16.0	47.2	32.7	2.0	2.1	13.1	45.3	35.8	3.6	2.3
세종	18.2	41.1	35.0	4.5	1.2	14.0	44.4	35.2	4.2	2.2
경기	16.2	43.4	35.3	3.3	1.9	15.2	44.1	35.3	3.4	1.9
강원	1.0	34.1	55.7	7.4	1.7	14.9	44.6	34.3	4.1	2.1
충북	20.0	44.7	30.4	3.4	1.4	16.6	42.1	35.9	3.6	1.9
충남	17.9	44.4	31.3	4.3	2.1	16.1	44.0	34.5	3.5	2.0
전북	16.6	48.8	30.5	2.6	1.5	14.7	43.0	35.7	4.1	2.5
전남	20.0	48.4	27.3	2.7	1.7	14.0	44.5	35.8	3.5	2.1
경북	17.9	46.6	30.2	3.3	1.8	14.5	44.6	35.5	3.6	1.8
경남	17.6	44.8	31.2	3.9	2.5	15.5	43.1	35.4	3.6	2.4
제주	14.6	47.8	33.8	1.6	2.2	14.9	44.9	35.9	2.7	1.7
전국	14.8	43.6	36.4	3.2	2.0	15.3	43.5	35.4	3.6	2.1
전북	16.6	48.8	30.5	2.6	1.5	14.7	43.0	35.7	4.1	2.5
비교	▲1.8	▲5.2	▼5.9	▼0.6	▼0.5	▼0.6	▼0.5	▲0.3	▲0.5	▲0.4

자료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각 연도)

- 전북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2018년 기준 5~10분 접근성이 43.0%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국 평균 43.5%보다 약 0.5%p 낮은 수준이었다.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10분 미만까지의 접근성이 전북보다 전국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 전국평균에 비해 전북의 대중교통접근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0. 환경

환경 만족분야	지표 내용		지표비교		
			전국	전북	비교
주관적 지표	1)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 만족도	만족	77.4	77.9	▲2.5
	2) 환경에 대한 만족도	생활환경 만족도	35.8	36.0	▲0.2
		환경의 변화 만족도	25.4	25.5	▲0.1
	3) 현재 체감환경 만족도	녹지환경	50.2	45.1	▼5.1
		대기	28.6	32.8	▲4.2
		소음진동	29.9	31.9	▲2.0
		수질	29.3	32.1	▲2.8
		토양	29.4	31.6	▲2.2
	4) 환경문제 인식	기후변화 불안	49.3	47.2	▼2.1
		농약화학비료 불안	45.6	49.4	▲3.8
		유해화학 불안	53.4	48.8	▼4.6
		방사능 불안	54.9	54.2	▼0.7
		수돗물 불안	30.3	30.2	▼0.1
		미세먼지유입 불안	82.5	82.5	-
객관적 지표	5) 생활폐기물 청결도	폐기물 발생량	2750.0	1895.1	▼854.9
	6) 미세먼지	미세먼지 좋음 일수	135	121	▼14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	127	117	▼10

- 전북의 환경 만족 분야의 지표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만족도, 환경과 체감환경에 대한 만족도, 환경문제인식의 만족도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표로는 체감환경만족도 중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5.1), 농약 및 화학비료사용에 대한 불안도(▲3.8), 미세먼지의 좋음 일수(미세먼지▼14, 초미세먼지▼10) 등의 지표로 나타났다.

〈표4-58〉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에 대한 만족도

시도	2016년						2018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전국	3.8	19.8	57.2	19.2	23.6	76.4	3.2	19.4	59.9	17.5	22.6	77.4
서울	4.6	17.4	57.6	20.4	22.0	78.0	4.8	17.6	57.5	20.1	22.4	77.6
부산	2.7	22.7	60.8	13.8	25.4	74.6	2.0	16.4	59.5	22.0	18.4	81.5
대구	0.9	24.3	57.7	17.1	25.3	74.7	0.9	14.2	70.5	14.3	15.1	84.8
인천	5.0	22.5	43.0	29.5	27.4	72.6	3.6	25.9	50.0	20.5	29.5	70.5
광주	5.6	25.0	53.9	15.5	30.7	69.3	0.2	27.4	57.8	14.6	27.6	72.4
대전	2.9	18.6	58.0	20.5	21.5	78.5	1.9	16.6	59.8	21.7	18.5	81.5
울산	0.1	15.3	75.6	9.0	15.5	84.5	0.9	13.3	66.7	19.1	14.2	85.8
세종	4.2	25.9	38.4	31.5	30.1	69.9	0.8	12.7	62.2	24.3	13.5	86.5
경기	2.9	16.4	56.4	24.3	19.3	80.7	3.2	18.6	58.9	19.3	21.8	78.2
강원	6.5	13.9	65.9	13.6	20.4	79.6	2.4	16.1	73.9	7.5	18.5	81.4
충북	1.9	20.2	44.3	33.6	22.1	77.9	4.6	10.9	68.0	16.4	15.5	84.4
충남	5.8	31.1	55.8	7.3	36.9	63.1	2.9	24.8	60.2	12.1	27.7	72.3
전북	2.4	22.7	66.2	8.7	25.1	74.9	1.3	18.8	68.0	11.9	20.1	79.9
전남	9.2	19.7	56.5	14.6	28.8	71.2	4.5	20.9	57.8	16.8	25.4	74.6
경북	7.3	24.1	51.5	17.1	31.4	68.6	4.1	31.6	54.8	9.4	35.7	64.2
경남	0.9	20.8	64.6	13.8	21.6	78.4	3.1	21.5	59.2	16.1	24.6	75.3
제주	3.6	12.1	61.9	22.5	15.6	84.4	2.5	16.2	66.1	15.2	18.7	81.3
전국	3.8	19.8	57.2	19.2	23.6	76.4	3.2	19.4	59.9	17.5	22.6	77.4
전북	2.4	22.7	66.2	8.7	25.1	74.9	1.3	18.8	68.0	11.9	20.1	79.9
비교	▼1.4	▲2.9	▲9.0	▼10.5	▲1.5	▼1.5	▼1.9	▼0.6	▲8.1	▼5.6	▼2.5	▲2.5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보고서, 각연도

- 전북의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만족도는 2018년 기준 79.9%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77.4%와 비교하면 약 2.5%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17개 시도 중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 86.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울산(85.8%), 대구(84.8%), 충북(84.4%)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은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4-59〉 환경에 대한 만족도

시도	전반적 생활환경 만족도							5년 전과 비교한 환경의 변화						
	매우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나쁨	매우 좋아짐	약간 좋아짐	변화 없음	약간 나빠짐	매우 나빠짐	좋아짐	나빠짐
전국	7.5	28.3	48.0	14.0	2.1	35.8	16.1	2.4	23.0	38.2	28.4	8.1	25.4	36.5
서울	5.0	25.9	48.7	17.3	3.0	30.9	20.3	2.2	24.2	37.6	25.4	10.6	26.4	36.0
부산	6.9	29.6	47.9	14.5	1.1	36.5	15.6	2.4	23.7	47.2	22.3	4.4	26.1	26.7
대구	2.3	21.2	54.9	19.1	2.6	23.5	21.7	0.7	23.1	38.1	31.8	6.4	23.8	38.2
인천	4.8	20.4	48.7	22.4	3.7	25.2	26.1	2.4	24.1	34.2	28.7	10.6	26.5	39.3
광주	4.9	21.9	55.4	15.6	2.2	26.8	17.8	2	23.3	31.3	37.8	5.5	25.3	43.3
대전	4.6	26.8	54.0	12.9	1.6	31.4	14.5	2.1	19.3	39.5	30.9	8.3	21.4	39.2
울산	4.3	27.3	52.0	14.1	2.3	31.6	16.4	2.8	30.1	37.3	24.5	5.3	32.9	29.8
세종	9.4	36.8	41.0	10.7	2.1	46.2	12.8	7.5	29.6	31.2	23.9	7.7	37.1	31.6
경기	5.8	28.8	50.4	13.0	2.0	34.6	15.0	2.7	22.3	37.0	28.7	9.3	25.0	38.0
강원	16.5	40.7	36.9	5.3	0.7	57.2	6.0	4.3	24.0	35.8	30.1	5.8	28.3	35.9
충북	10.6	28.1	45.6	13.8	1.8	38.7	15.6	1.6	20.3	42.4	28.0	7.7	21.9	35.7
충남	12.1	28.4	46.1	10.6	2.9	40.5	13.5	1.7	21.0	38.5	32.1	6.7	22.7	38.8
전북	9.9	26.1	51.1	11.2	1.6	36.0	12.8	2.3	23.2	35.0	30.6	8.9	25.5	39.5
전남	18.4	34.2	36.2	9.5	1.7	52.6	11.2	3.7	27.1	36.7	27.0	5.6	30.8	32.6
경북	11.2	32.3	42.0	12.5	2.0	43.5	14.5	1.6	18.5	39.3	34.3	6.2	20.1	40.5
경남	12.0	34.8	42.5	9.9	0.8	46.8	10.7	2.6	22.0	43.1	26.9	5.5	24.6	32.4
제주	10.5	38.0	44.8	5.8	0.8	48.5	6.6	2.2	25.3	35.3	30.0	7.3	27.5	37.3
전국	7.5	28.3	48.0	14.0	2.1	35.8	16.1	2.4	23.0	38.2	28.4	8.1	25.4	36.5
전북	9.9	26.1	51.1	11.2	1.6	36.0	12.8	2.3	23.2	35.0	30.6	8.9	25.5	39.5
비교	▲2.4	▼2.2	▲3.1	▼2.8	▼0.5	▲0.2	▼3.3	▼0.1	▲0.2	▼3.2	▲2.2	▲0.8	▲0.1	▲3.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18)

- 전북의 전반적인 생활환경만족도는 2018년 기준 36.0%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35.8%와 비교하면 약 0.2%p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5년 전과 비교한 환경의 변화만족도의 경우 전북이 25.5%로 전국 평균 25.4%보다 약 0.1%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17개 시도 중 전반적 생활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이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전남(52.6%), 제주(48.5%), 경남(46.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은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4-60〉 현재 체감환경(좋은만 표시)

시도	2014년					2016년					2018년				
	녹지 환경	대기	소음 진동	수질	토양	녹지 환경	대기	소음 진동	수질	토양	녹지 환경	대기	소음 진동	수질	토양
전국	41.2	36.0	26.9	34.8	30.5	41.2	31.7	27.5	33.1	29.3	50.2	28.6	29.9	29.3	29.4
서울	35.6	23.0	18.4	25.0	21.4	37.5	20.9	20.3	26.2	21.8	45.8	20.6	25.4	24.0	24.7
부산	39.4	35.2	26.3	33.6	29.6	39.4	35.2	28.4	35.1	31.8	49.6	32.1	29.0	31.8	31.9
대구	31.2	21.5	17.3	23.8	21.4	38.9	22.1	21.7	26.4	22.8	37.0	21.3	17.5	21.1	20.5
인천	33.4	24.1	22.2	23.6	21.8	29.8	14.0	17.5	19.1	16.9	40.3	17.7	25.2	16.7	19.6
광주	37.8	34.1	20.7	32.3	28.0	39.9	34.8	20.3	36.5	29.3	47.2	26.0	21.4	19.7	23.0
대전	39.5	35.2	27.2	34.1	31.7	40.1	29.1	27.0	32.0	29.9	44.4	24.0	25.6	24.7	25.9
울산	37.9	25.3	20.3	27.3	21.7	34.5	22.1	19.2	25.0	20.3	44.8	23.8	24.6	29.2	26.8
세종						57.9	43.7	36.4	44.0	44.7	58.9	30.6	39.2	37.4	41.1
경기	41.0	33.0	23.8	31.3	28.2	44.5	29.4	27.2	29.2	28.3	50.6	24.3	27.4	26.9	27.1
강원	52.8	61.5	41.5	55.5	46.3	52.0	57.9	42.6	57.5	49.6	67.0	55.0	45.4	52.1	50.9
충북	46.5	49.0	35.1	44.1	40.4	41.4	40.3	33.7	38.3	35.1	49.6	32.7	34.3	33.6	33.7
충남	42.8	51.7	41.1	44.5	41.5	38.3	36.4	32.6	34.9	31.7	53.2	32.2	40.1	32.0	34.7
전북	51.0	50.4	38.0	48.7	42.4	45.6	43.1	36.2	45.3	38.3	45.1	32.8	31.9	32.1	31.6
전남	54.0	57.8	44.1	53.8	45.6	47.1	49.5	38.7	47.9	42.0	68.7	49.9	47.5	47.0	43.1
경북	48.7	50.8	37.3	47.6	41.1	47.8	49.3	41.6	48.5	42.7	59.1	40.0	37.6	37.8	35.9
경남	49.7	50.1	35.5	49.0	40.1	42.4	40.7	32.4	39.6	33.5	60.7	41.1	39.6	39.4	37.9
제주	51.4	62.0	41.6	63.4	49.2	44.5	51.8	35.2	56.5	41.5	56.1	50.9	38.7	42.2	38.9
전국	41.2	36.0	26.9	34.8	30.5	41.2	31.7	27.5	33.1	29.3	50.2	28.6	29.9	29.3	29.4
전북	51.0	50.4	38.0	48.7	42.4	45.6	43.1	36.2	45.3	38.3	45.1	32.8	31.9	32.1	31.6
비교	▲ 9.8	▲ 14.4	▲ 11.1	▲ 13.9	▲ 11.9	▲ 4.4	▲ 11.4	▲ 8.7	▲ 12.2	▲ 9.0	▼ 5.1	▲ 4.2	▲ 2.0	▲ 2.8	▲ 2.2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 전북의 현재 체감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 기준 녹지환경 만족도가 45.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기환경 만족도(32.8%), 수질환경 만족도(3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 녹지환경만족도의 경우 전국 평균 50.2%보다 5.1%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대기환경, 소음진동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체감환경의 만족도가 전국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4-61〉 환경문제 인식

시도	기후변화		농약화학비료 사용		유해화학		방사능		수돗물		미세먼지 유입	
	불안 하지 않음	불안										
전국	19.1	49.3	16.0	45.6	14.3	53.4	14.7	54.9	25.7	30.3	4.5	82.5
서울	19.4	46.8	14.8	47.8	12.3	56.6	13.7	55.5	24.4	29.8	3.7	85.3
부산	24.4	41.7	22.4	40.2	20.9	43.7	18.0	48.7	26.5	30.1	8.8	70.8
대구	15.4	52.1	14.7	40.1	14.1	45.7	14.1	48.4	20.9	31.9	4.2	82.1
인천	15.0	54.0	13.8	50.1	10.4	63.0	12.6	60.3	21.6	33.8	3.2	87.2
광주	16.4	52.7	17.5	45.4	13.9	50.9	15.7	52.4	26.9	28.2	3.0	86.6
대전	18.4	50.8	14.3	48.3	12.5	54.0	12.9	57.1	24.6	31.8	4.8	82.0
울산	17.3	47.3	14.6	41.9	14.6	48.2	11.2	61.1	20.1	30.8	5.1	77.2
세종	19.2	55.0	17.4	48.3	13.5	60.8	13.7	60.2	24.9	34.4	5.3	85.4
경기	20.3	49.6	16.4	44.6	13.0	58.0	13.8	57.0	25.5	31.0	3.2	86.2
강원	17.9	49.6	15.0	46.6	14.8	51.6	15.4	53.2	29.1	28.3	5.9	76.1
충북	15.6	55.4	15.0	48.4	14.8	53.8	15.0	55.4	25.4	29.6	5.0	81.5
충남	21.3	48.1	16.8	45.9	16.3	50.6	18.8	49.7	30.6	28.7	3.9	80.8
전북	18.7	47.2	13.0	49.4	14.2	48.8	15.5	54.2	25.6	30.2	4.9	82.5
전남	20.0	51.1	19.8	44.3	22.4	44.2	20.7	49.9	38.0	27.1	7.9	74.6
경북	20.7	48.5	17.6	40.2	19.5	45.0	16.5	54.7	30.4	24.1	6.1	80.5
경남	17.3	52.7	14.8	47.8	14.2	52.9	14.7	56.7	24.5	34.1	6.0	79.4
제주	15.0	52.9	9.0	54.3	10.2	54.6	12.7	51.3	21.5	33.1	4.5	75.8
전국	19.1	49.3	16.0	45.6	14.3	53.4	14.7	54.9	25.7	30.3	4.5	82.5
전북	18.7	47.2	13.0	49.4	14.2	48.8	15.5	54.2	25.6	30.2	4.9	82.5
비교	▼0.4	▼2.1	▼3.0	▲3.8	▼0.1	▼4.6	▲0.8	▼0.7	▼0.1	▼0.1	▲0.4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18)

- 전북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불안도가 82.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방사능 불안(54.2%), 농약·화학비료 사용 불안(49.4%), 유해화학 불안(48.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수돗물 불안도(30.2%)와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도(47.2%)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4-62〉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결도(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전국	2,674.1	380.3	728.8	1,565.0	2,647.6	366.4	706.9	1,574.3	2,750.0	385.0	731.1	1,633.8
서울	8,750.9	729.2	2,120.1	5,901.6	8,431.5	769.4	2,066.4	5,595.7	8,586.9	839.9	2,020.5	5,726.5
부산	2,847.1	207.7	355.6	2,283.8	2,841.0	200.1	349.1	2,291.8	2,795.8	70.1	309.3	2,416.4
대구	2,407.9	589.3	301.0	1,517.6	2,396.4	360.9	245.2	1,790.3	2,556.8	410.5	255.5	1,890.8
인천	1,837.8	199.6	600.3	1,037.9	1,838.3	242.6	587.1	1,008.6	1,985.1	293.3	584.1	1,107.7
광주	1,086.6	247.0	189.6	650.0	1,071.4	117.9	0.0	953.5	1,096.5	486.6	0.0	609.9
대전	1,406.7	244.1	245.3	917.3	1,440.4	343.6	201.8	895.0	1,396.0	192.6	205.7	997.7
울산	1,420.5	258.2	444.3	718.0	1,333.5	217.5	416.7	699.3	1,344.2	238.5	434.7	671.0
세종	128.5	9.9	38.5	80.1	154.6	16.1	59.3	79.2	319.7	18.3	85.2	216.2
경기	9,476.5	865.7	3,394.4	5,216.4	9,229.8	720.8	3,415.1	5,093.9	9,861.3	847.2	3,612.9	5,401.2
강원	1,858.9	456.5	394.1	1,008.3	1,981.3	509.6	372.9	1,098.8	2,007.6	488.2	415.4	1,104.0
충북	1,969.9	299.9	626.4	1,043.6	1,857.7	334.4	635.4	887.9	1,914.7	415.1	589.2	910.4
충남	1,968.5	139.6	812.3	1,016.6	2,107.3	138.8	859.8	1,108.7	2,267.7	125.5	993.8	1,148.4
전북	1,599.5	327.2	342.8	929.5	1,615.6	353.9	352.5	909.2	1,895.1	327.2	457.0	1,110.9
전남	1,742.1	538.3	353.7	850.1	1,742.1	594.9	322.8	824.4	1,743.2	643.4	344.8	755.0
경북	2,503.4	627.8	846.3	1,029.3	2,561.7	637.6	832.5	1,091.6	2,594.4	594.5	811.3	1,188.6
경남	3,445.1	573.9	1,089.8	1,781.4	3,380.2	541.2	1,063.1	1,775.9	3,420.1	491.4	1,090.6	1,838.1
제주	1,010.4	151.6	234.5	624.3	1,026.1	129.8	237.0	659.3	964.2	62.9	219.3	682.0
전국	2,674.1	380.3	728.8	1,565.0	2,647.6	366.4	706.9	1,574.3	2,750.0	385.0	731.1	1,633.8
전북	1,599.5	327.2	342.8	929.5	1,615.6	353.9	352.5	909.2	1,895.1	327.2	457.0	1,110.9
비교	▼ 1,074.6	▼ 53.1	▼ 386.0	▼ 635.5	▼ 1,032.0	▼ 12.5	▼ 354.4	▼ 665.1	▼ 854.9	▼ 57.8	▼ 274.1	▼ 522.9

자료 :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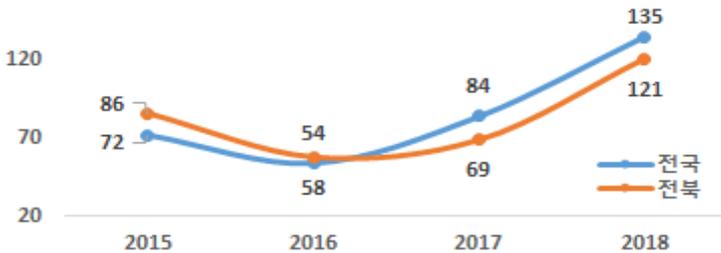
- 전북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결도는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2018년 기준 전북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895.1톤으로 전국 평균 2,750.0톤에 비해 약 854.9톤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폐기물의 처리방식에 있어서는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양이 1,110.9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각(457.0톤), 매립(327.2톤) 등의 순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63〉 미세먼지(PM10) 등급별 일수

시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국	72	267	25	1	54	297	13	2	84	265	14	2	135	209	21	0
서울	97	243	21	4	65	277	23	1	113	230	20	2	140	204	21	0
부산	102	242	20	1	89	259	16	2	86	269	10	0	136	212	16	1
대구	90	248	26	1	103	246	16	1	111	244	10	0	155	196	13	1
인천	67	256	40	2	49	299	16	2	78	264	21	2	140	207	18	0
광주	122	220	21	2	151	200	11	4	134	216	12	3	149	193	21	2
대전	111	225	28	1	92	255	17	2	83	268	12	2	121	219	24	1
울산	101	242	21	1	101	252	11	2	104	250	10	1	162	184	18	1
세종	0	0	0	0	65	285	15	1	69	279	15	2	130	215	19	1
경기	65	261	35	4	45	285	34	2	59	269	35	2	123	216	26	0
강원	77	260	25	3	65	285	14	2	108	241	15	1	150	199	16	0
충북	90	236	38	1	99	243	23	1	106	242	15	2	117	220	27	1
충남	94	244	25	2	65	286	13	2	74	271	18	2	144	202	19	0
전북	86	239	37	3	58	274	31	3	69	269	24	3	121	212	32	0
전남	142	214	8	1	166	191	9	0	160	201	1	3	191	164	10	0
경북	101	246	17	1	123	235	7	1	124	232	9	0	129	214	21	1
경남	76	271	17	1	75	274	15	2	93	264	8	0	136	215	13	1
제주	84	259	20	2	138	211	17	0	166	192	5	2	202	147	14	0
전국	72	267	25	1	54	297	13	2	84	265	14	2	135	209	21	0
전북	86	239	37	3	58	274	31	3	69	269	24	3	121	212	32	0
비교	▲14	▼28	▲12	▲2	▲4	▼23	▲18	▲1	▼15	▲4	▲10	▲1	▼14	▲3	▲11	-

자료 :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연보(2018)

〈그림4-48〉 미세먼지 좋음 일수 변화



- 전북의 미세먼지의 등급별 일수를 보면 2018년 기준 좋음의 일수는 121일로 전국평균 135일에 비해서는 14일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미세먼지 등급이 좋음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5년 86일에서 2018년 121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미세먼지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64〉 초미세먼지(PM2.5) 등급별 일수

시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국	63	240	62	0	47	257	62	0	95	210	58	2	127	179	58	1
서울	84	237	44	0	57	236	73	0	101	200	61	3	130	174	57	4
부산	76	222	67	0	55	240	71	0	72	231	61	1	132	173	60	0
대구	80	209	76	0	75	233	58	0	113	207	43	2	146	161	58	0
인천	63	203	96	3	69	220	77	0	94	206	64	1	132	184	47	2
광주	88	205	69	3	104	211	51	0	101	199	63	2	125	174	63	3
대전	94	166	101	4	99	227	40	0	127	206	32	0	135	185	44	1
울산	104	185	76	0	107	201	58	0	95	199	71	0	142	150	73	0
세종	0	0	0	0	57	164	24	0	116	198	50	1	136	181	48	0
경기	86	204	74	1	50	230	86	0	87	190	82	6	126	165	69	5
강원	94	181	90	0	54	226	86	0	99	194	70	2	138	180	47	0
충북	82	109	76	5	91	188	87	0	90	182	87	6	106	156	99	4
충남	41	98	63	9	57	225	83	1	88	225	52	0	145	170	49	1
전북	41	124	93	11	43	200	120	3	67	200	94	4	117	161	86	1
전남	84	223	57	1	82	236	48	0	133	212	20	0	151	177	37	0
경북	51	107	51	4	86	197	79	4	108	209	46	2	112	176	76	1
경남	67	244	54	0	67	248	51	0	91	240	34	0	163	163	39	0
제주	133	175	47	3	137	184	43	2	113	216	36	0	160	182	21	0
전국	63	240	62	0	47	257	62	0	95	210	58	2	127	179	58	1
전북	41	124	93	11	43	200	120	3	67	200	94	4	117	161	86	1
비교	▼22	▼116	▲31	▲11	▼4	▼57	▲58	▲3	▼28	▼10	▲36	▲2	▼10	▼18	▲28	-

자료 :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연보(2018)

〈그림4-49〉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 변화



- 전북의 초미세먼지의 등급별 일수를 보면 2018년 기준 좋음의 일수는 117일로 전국평균 127일에 비해서는 10일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초미세먼지 등급이 좋음의 추이변화를 보면 2015년 41일에서 2018년 117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초미세먼지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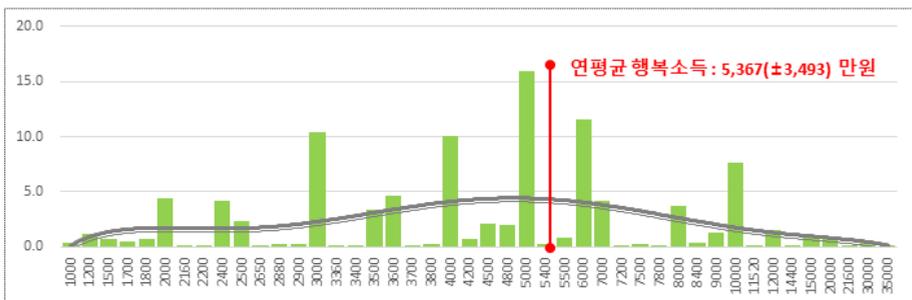
11. 비교지표

- 연 평균 가구소득이 어느 정도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5,36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9세의 경우가 평균 6350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행복을 위한 요구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행복을 위해 더 높은 소득을 원하는 반면 4천만원~6천만원 미만 소득구간의 경우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평균 소득이 5240만원으로 소득구간의 평균수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65〉 행복을 위한 연평균 소득 정도

단위 : 만원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성별	남성	5,716	1,000	30,000	3,179
	여성	5,135	1,000	35,000	3,672
연령	20세 미만	5,663	1,200	30,000	4,027
	20-39세	5,360	1,500	30,000	3,006
	40-59세	6,350	1,000	35,000	4,226
	60세 이상	4,199	1,200	15,000	2,220
소득	2천만원 미만	2,674	1,000	8,000	1,432
	2천-4천만원 미만	4,851	2,000	30,000	3,490
	4천-6천만원 미만	5,240	1,500	21,600	2,444
	6천만원 이상	7,291	2,000	35,000	4,427
전체		5,367	1,000	35,000	3,493



〈표4-66〉 행복을 위한 가족과의 시간

단위 : 시간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성별	남성	6.0	1	12	3.3
	여성	6.1	0	12	3.1
연령	20세 미만	6.0	1	12	3.2
	20-39세	6.6	0	12	3.4
	40-59세	6.3	1	12	3.3
	60세 이상	5.4	1	12	2.8
소득	2천만원 미만	5.3	1	12	3.1
	2천-4천만원 미만	5.7	0	12	3.2
	4천-6천만원 미만	6.3	1	12	3.3
	6천만원 이상	6.5	1	12	3.2
전체		6.1	0	12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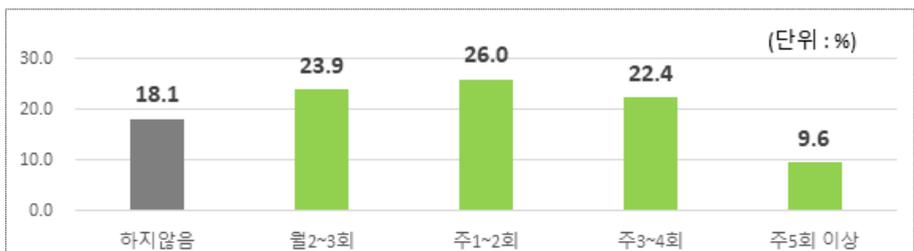
- 하루 24시간 중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6.1시간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경우는 평균 5.4시간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평균 시간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구간별로는 6천만원 이상의 경우가 6.5시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2천만원 미만 구간은 5.3시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 건강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6.0%가 「주1~2회」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8.1%가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주3~4회」가 25.5%, 여성은 「주1~2회」가 27.7%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경우 「월2~3회」가 가장 많았으나 20세~59세는 「주1~2회」, 60세 이상은 「주 3~4회」가 많아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활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67〉 건강관리를 위한 규칙적 체육활동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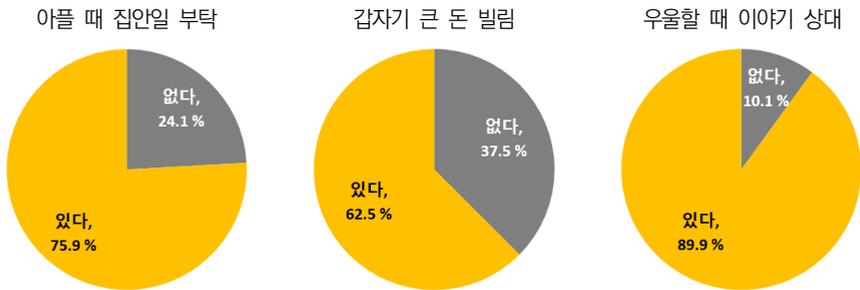
구분		하지않음	월2-3회	주1-2회	주3-4회	주5회 이상
성별	남성	15.3	21.9	24.5	25.5	12.8
	여성	20.0	25.1	27.0	20.4	7.5
연령	20세 미만	24.0	25.3	18.7	22.7	9.3
	20-39세	22.5	23.7	28.4	16.6	8.9
	40-59세	19.6	22.1	31.7	19.6	7.1
	60세 이상	11.6	25.5	19.9	30.1	13.0
소득	2천만원 미만	7.0	37.2	23.3	11.6	20.9
	2천-4천만원 미만	17.6	22.2	23.9	29.5	6.8
	4천-6천만원 미만	16.5	19.3	25.0	27.8	11.4
	6천만원 이상	22.9	24.7	30.6	16.5	5.3
전체		18.1	23.9	26.0	22.4	9.6



〈표4-68〉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단위 : %

구분		아플 때 집안일 부탁		갑자기 큰 돈 빌림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성별	남성	19.8	80.2	40.5	59.5	15.3	84.7
	여성	26.9	73.1	35.4	64.6	6.8	93.2
연령	20세 미만	8.0	92.0	27.0	73.0	2.7	97.3
	20-39세	20.0	80.0	27.6	72.4	9.5	90.5
	40-59세	25.4	74.6	40.4	59.6	6.3	93.8
	60세 이상	31.5	68.5	45.8	54.2	17.1	82.9
소득	2천만원 미만	33.3	66.7	56.8	43.2	22.7	77.3
	2천-4천만원 미만	30.7	69.3	48.9	51.1	17.6	82.4
	4천-6천만원 미만	22.0	78.0	32.2	67.8	9.0	91.0
	6천만원 이상	25.9	74.1	27.1	72.9	2.9	97.1
전체		24.1	75.9	37.5	62.5	10.1	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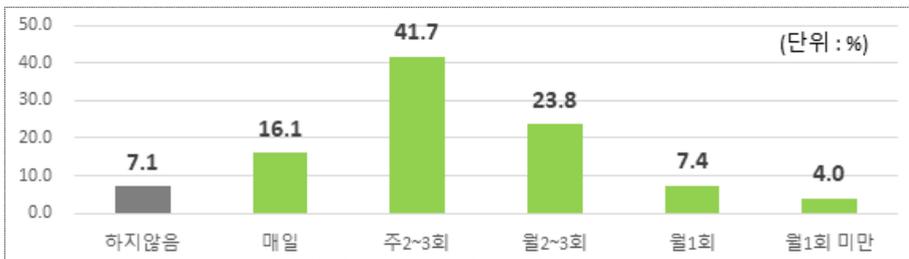


-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60%이상을 상회하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75.9%,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62.5%,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있는 경우 89.9%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4-69〉 여가활동 정도

단위 : %

구분		하지 않음	매일	주2~3회	월2~3회	월1회	월1회 미만
성별	남성	4.0	16.5	47.6	22.3	5.9	3.7
	여성	9.2	15.7	38.0	24.6	8.2	4.2
연령	20세 미만	2.7	28.0	60.0	6.7	2.7	
	20~39세	6.5	27.1	39.4	16.5	7.1	3.5
	40~59세	7.5	11.3	34.2	30.8	12.1	4.2
	60세 이상	8.4	8.4	46.0	27.4	4.2	5.6
소득	2천만원 미만		17.8	22.2	37.8	17.8	4.4
	2천~4천만원 미만	10.2	15.3	40.9	18.8	9.7	5.1
	4천~6천만원 미만	4.5	16.4	48.6	20.9	4.5	5.1
	6천만원 이상	7.6	12.9	38.0	32.7	6.4	2.3
전체		7.1	16.1	41.7	23.8	7.4	4.0



- 행복을 위한 여가활동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주2~3회가 41.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월2~3회 23.8%, 매일 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주2~3회 여가활동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에 따라서는 2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월2~3회가 37.8%로 많았으나 소득이 2천만원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주2~3회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70〉 사회보장제도의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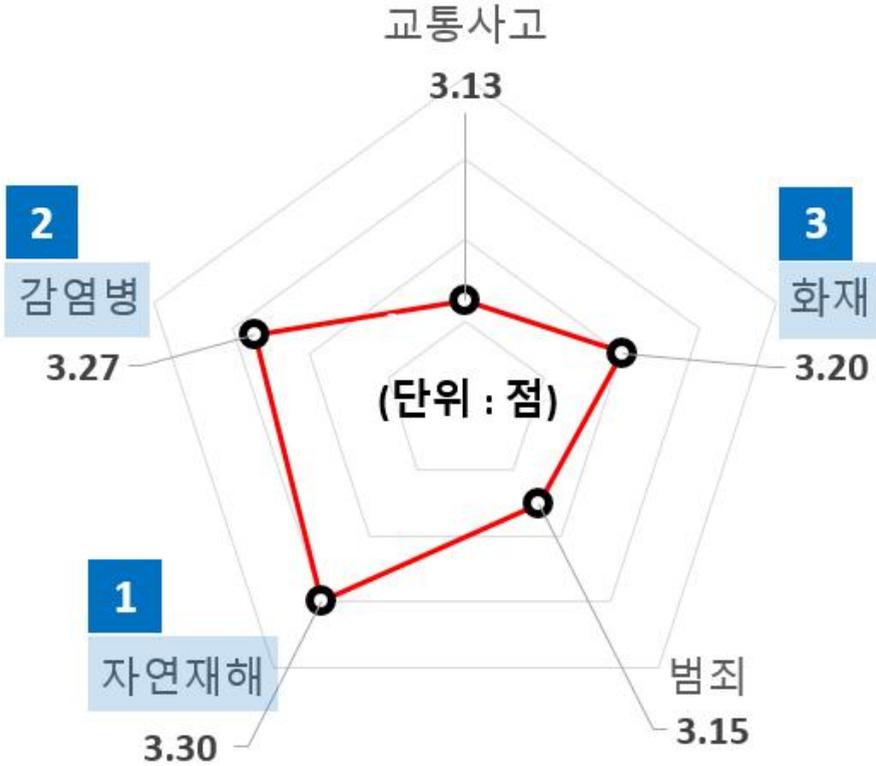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매우 나빠짐	약간 나빠짐	변화 없음	약간 좋아짐	매우 좋아짐	나빠짐	좋아짐
성별	남성	1.1	3.3	20.9	54.9	19.8	4.4	74.7
	여성	1.2	3.8	16.4	59.4	19.2	5.0	78.6
연령	20세 미만	4.0	1.3	45.3	40.0	9.3	5.3	49.3
	20-39세	1.8	5.9	28.4	51.5	12.4	7.7	63.9
	40-59세	0.8	2.1	10.8	60.0	26.3	2.9	86.3
	60세 이상		4.2	8.4	66.0	21.4	4.2	87.4
소득	2천만원 미만			16.3	62.8	20.9	0.0	83.7
	2천-4천만원 미만	1.1	4.0	20.9	59.3	14.7	5.1	74.0
	4천-6천만원 미만		4.5	14.1	55.9	25.4	4.5	81.3
	6천만원 이상	1.2	1.8	7.6	60.8	28.7	3.0	89.5
전체		1.2	3.6	18.1	57.6	19.5	4.8	77.1



- 사회보장제도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좋아졌다가 57.6%로 가장 많았고, 매우 좋아졌다가 19.5%로 나타나 좋아졌다는 응답이 7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은 좋아졌다는 응답이 49.3%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세 이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보장제도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60%를 상회하며 높게 나타났다.

〈그림4-50〉 5가지 사항별 안전도 현황



구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감염병
평균점수	3.13	3.20	3.15	3.30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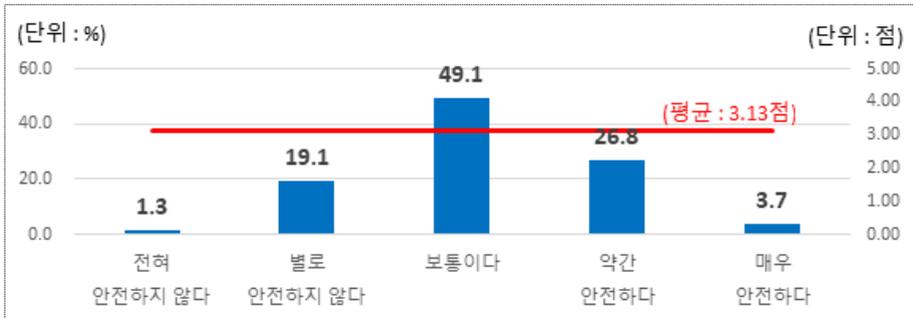
주. 5점 척도 사용 < 매우 불만족(1점) ~ 매우 만족(5점) >

- 안전환경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안전도가 보통 이상(3.17점)으로 평가되었고, 각 항목별로는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가 3.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는 감염병(3.26점), 화재(3.20점), 범죄(3.15점), 교통사고(3.13)점의 순으로 나타나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71〉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교통사고

단위 : %

구분		전혀 안전하지 않다	별로 안전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성별	남성	1.8	16.4	49.6	25.9	6.2	18.2	32.1
	여성	0.9	20.8	48.7	27.4	2.1	21.7	29.5
연령	20세 미만	1.4	20.3	44.6	27.0	6.8	21.7	33.8
	20-39세	3.5	24.7	45.9	23.5	2.4	28.2	25.9
	40-59세	0.8	18.0	51.9	24.7	4.6	18.8	29.3
	60세 이상		15.7	50.0	31.5	2.8	15.7	34.3
소득	2천만원 미만		8.9	40.0	46.7	4.4	8.9	51.1
	2천-4천만원 미만	1.7	22.7	53.4	15.9	6.3	24.4	22.2
	4천-6천만원 미만		25.0	51.1	22.7	1.1	25.0	23.8
	6천만원 이상	1.2	11.7	45.0	37.4	4.7	12.9	42.1
전체		1.3	19.1	49.1	26.8	3.7	20.4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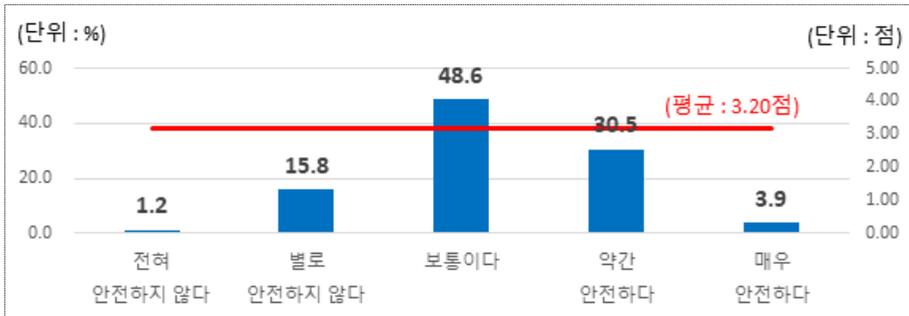


-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5%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2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평균점수가 3.13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 소득구간이 2천만원 미만의 경우 안전하다가 51.1%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4.3%, 성별로는 남성이 32.1%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4-72〉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화재

단위 : %

구분		전혀 안전하지 않다	별로 안전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성별	남성	2.2	12.7	46.9	32.7	5.5	14.9	38.2
	여성	0.5	17.9	49.6	29.2	2.8	18.4	32.0
연령	20세 미만	1.3	13.3	46.7	32.0	6.7	14.6	38.7
	20-39세	3.0	17.2	46.7	27.8	5.3	20.2	33.1
	40-59세	0.8	14.6	53.3	30.0	1.3	15.4	31.3
	60세 이상		17.1	45.8	32.9	4.2	17.1	37.1
소득	2천만원 미만		8.9	33.3	44.4	13.3	8.9	57.7
	2천-4천만원 미만	1.7	15.4	50.9	27.4	4.6	17.1	32.0
	4천-6천만원 미만	1.1	22.0	45.2	31.6		23.1	31.6
	6천만원 이상	0.6	9.4	50.0	34.7	5.3	10.0	40.0
전체		1.2	15.8	48.6	30.5	3.9	17.0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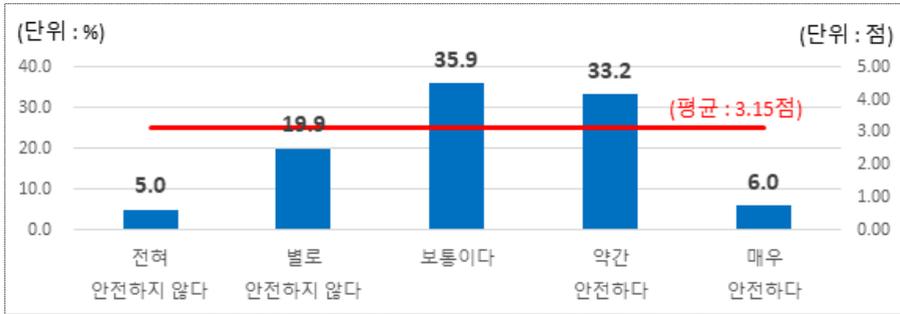


- 화재에 대한 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4%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17.0%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평균점수가 3.20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 소득구간이 2천만원 미만의 경우 안전하다가 52.7%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경우가 38.7%, 성별로는 남성이 38.2%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4-73〉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범죄

단위 : %

구분		전혀 안전하지 않다	별로 안전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성별	남성	1.1	15.3	34.7	38.3	10.6	16.4	48.9
	여성	7.5	22.8	36.7	29.9	3.1	30.3	33.0
연령	20세 미만	6.7	22.7	34.7	22.7	13.3	29.4	36.0
	20-39세	8.2	26.5	34.1	25.9	5.3	34.7	31.2
	40-59세	2.9	17.1	42.5	34.2	3.3	20.0	37.5
	60세 이상	4.2	17.2	30.2	41.4	7.0	21.4	48.4
소득	2천만원 미만		9.1	45.5	36.4	9.1	9.1	45.5
	2천-4천만원 미만	5.1	19.9	30.7	37.5	6.8	25.0	44.3
	4천-6천만원 미만	3.4	20.3	37.3	32.8	6.2	23.7	39.0
	6천만원 이상	5.3	15.3	38.2	35.3	5.9	20.6	41.2
전체		5.0	19.9	35.9	33.2	6.0	24.9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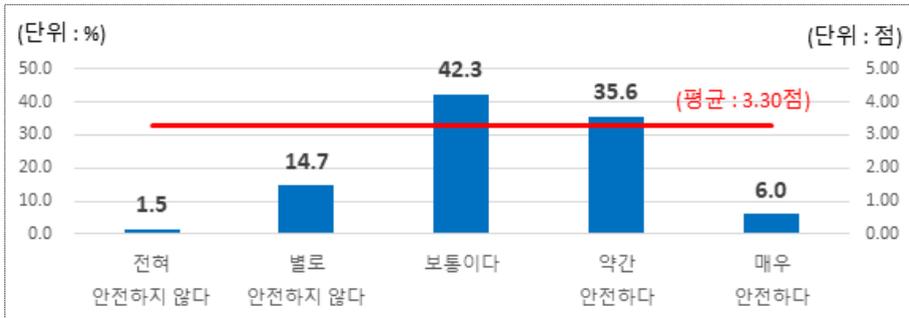


- 범죄에 대한 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2%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24.9%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평균점수가 3.15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 소득구간이 2천만원 미만의 경우 안전하다가 45.5%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48.4%, 성별로는 남성이 48.9%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4-74〉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자연재해

단위 : %

구분		전혀 안전하지 않다	별로 안전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성별	남성	1.5	10.2	38.7	39.8	9.9	11.7	49.7
	여성	1.4	17.6	44.5	33.0	3.5	19.0	36.5
연령	20세 미만		14.9	44.6	31.1	9.5	14.9	40.6
	20-39세	3.0	14.2	42.6	32.0	8.3	17.2	40.3
	40-59세	2.1	13.8	47.5	30.4	6.3	15.9	36.7
	60세 이상		15.7	35.6	45.8	2.8	15.7	48.6
소득	2천만원 미만		9.1	40.9	38.6	11.4	9.1	50.0
	2천-4천만원 미만		13.6	43.2	34.7	8.5	13.6	43.2
	4천-6천만원 미만	2.3	15.9	38.6	40.9	2.3	18.2	43.2
	6천만원 이상	1.2	15.1	44.2	33.7	5.8	16.3	39.5
전체		1.5	14.7	42.3	35.6	6.0	16.2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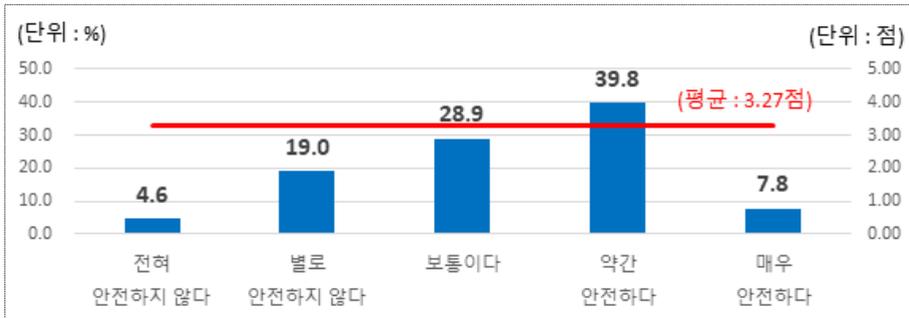


-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6%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16.2%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평균점수가 3.30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 성별로는 남성이 49.7%로 여성(36.5%)보다 안전도가 높게 나타났고 소득구간이 2천만원 미만의 경우 안전하다가 50.0%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48.6%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4-75〉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감염병

단위 : %

구분		전혀 안전하지 않다	별로 안전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성별	남성	3.3	11.7	31.5	40.7	12.8	15.0	53.5
	여성	5.4	23.7	27.2	39.3	4.4	29.1	43.7
연령	20세 미만	5.3	10.5	31.6	28.9	23.7	15.8	52.6
	20-39세	5.9	18.9	28.4	36.1	10.7	24.8	46.8
	40-59세	3.8	20.8	28.7	41.7	5.0	24.6	46.7
	60세 이상	4.2	19.9	28.7	44.4	2.8	24.1	47.2
소득	2천만원 미만		11.4	15.9	63.6	9.1	11.4	72.7
	2천-4천만원 미만	2.8	19.9	29.0	40.3	8.0	22.7	48.3
	4천-6천만원 미만	4.0	23.3	31.3	36.9	4.5	27.3	41.4
	6천만원 이상	5.3	14.0	29.2	40.9	10.5	19.3	51.4
전체		4.6	19.0	28.9	39.8	7.8	23.6	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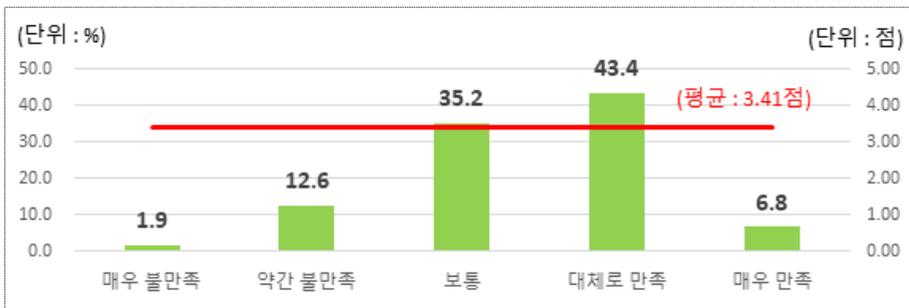


- 감염병에 대한 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6%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23.6%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평균점수가 3.27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 성별로는 남성이 53.5%로 여성(43.7%)보다 안전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52.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구간이 2천만원 미만의 경우 안전하다가 72.7%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4-76〉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성별	남성	1.1	10.2	39.1	43.1	6.6	11.3	49.7
	여성	2.4	14.1	32.7	43.8	7.1	16.5	50.9
연령	20세 미만		10.7	32.0	41.3	16.0	10.7	57.3
	20-39세	4.1	18.2	33.5	38.8	5.3	22.3	44.1
	40-59세	1.3	10.4	39.6	44.2	4.6	11.7	48.8
	60세 이상	1.4	11.6	32.9	47.2	6.9	13.0	54.1
소득	2천만원 미만		9.1	20.5	68.2	2.3	9.1	70.5
	2천-4천만원 미만	2.8	11.9	39.8	43.2	2.3	14.7	45.5
	4천-6천만원 미만	2.3	14.7	33.9	36.2	13.0	17.0	49.2
	6천만원 이상	1.8	11.7	33.9	47.4	5.3	13.5	52.7
전체		1.9	12.6	35.2	43.4	6.8	14.5	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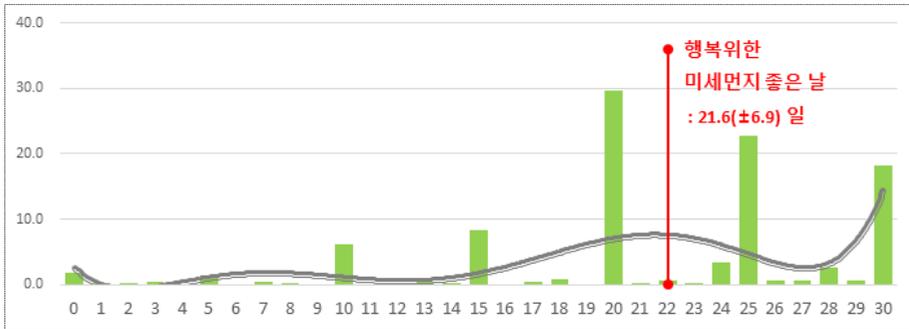


-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14.5%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결론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에서 만족한다가 57.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소득구간에 따라서는 2천만원 미만의 경우가 만족한다는 응답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4-77〉 행복을 위한 미세먼지 좋은 날

단위 : 일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성별	남성	21.6	0.0	30.0	6.4
	여성	21.5	0.0	30.0	7.1
연령	20세 미만	22.4	2.0	30.0	5.5
	20-39세	21.9	0.0	30.0	6.4
	40-59세	21.7	0.0	30.0	7.0
	60세 이상	20.9	0.0	30.0	7.5
소득	2천만원 미만	23.2	10.0	30.0	5.5
	2천-4천만원 미만	21.8	3.0	30.0	6.4
	4천-6천만원 미만	21.7	0.0	30.0	7.3
	6천만원 이상	20.7	0.0	30.0	7.3
전체		21.6	0.0	30.0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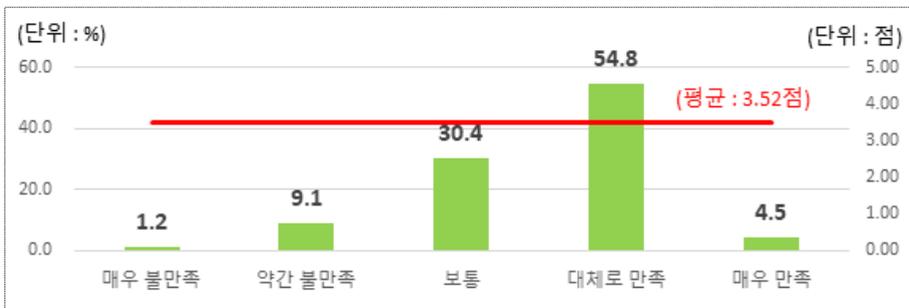


- 미세먼지가 좋은 날이 어느 정도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 달 30일 중 21.6일이 좋아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에 따라서는 20세 미만의 경우가 평균 22.4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평균 일수가 높게 나타났고, 소득구간별로는 2천만원 미만의 구간에서 23.2일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평균일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78〉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성별	남성	1.5	8.8	34.7	48.9	6.2	10.3	55.1
	여성	0.9	9.4	27.7	58.7	3.3	10.3	62.0
연령	20세 미만	1.3	8.0	21.3	58.7	10.7	9.3	69.4
	20-39세	1.2	8.3	31.4	53.3	5.9	9.5	59.2
	40-59세	2.1	7.9	29.5	56.4	4.1	10.0	60.5
	60세 이상		11.6	34.3	52.8	1.4	11.6	54.2
소득	2천만원 미만		6.8	22.7	68.2	2.3	6.8	70.5
	2천-4천만원 미만	1.7	11.9	36.4	47.7	2.3	13.6	50.0
	4천-6천만원 미만	1.7	11.3	28.2	53.7	5.1	13.0	58.8
	6천만원 이상	1.2	2.9	29.8	59.6	6.4	4.1	66.0
전체		1.2	9.1	30.4	54.8	4.5	10.3	59.3



-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가 59.3%로 나타났고, 불만족은 10.3%로 나타나 결론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62.0%)이 남성(55.1%)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69.4%, 소득 구간별로는 2천만원 미만의 경우에서 69.4%로 다른 특성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12. 2017년-2020년 전북의 행복도 비교

가. 2017년-2020년 주관적 행복감 비교

- 전라북도 도민의 행복현황의 변화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도민의 행복정도 조사결과와 2020년 행복정도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표4-79〉 주관적 행복감 비교

구분	10년 전 행복감	현재 행복감	10년 후 행복감
2017년	75.0	74.0	77.9
2020년	67.6	70.4	76.7
비교	▼7.4	▼3.6	▼1.2

- 현재의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2020년 기준 70.4점 이었으나 2017년 74.0점으로 약 3.6점이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10년 전의 행복도 역시 2017년(75.0점)에 비해 7.4점 낮은 67.6점으로 나타났고, 10년 후 행복감 또한 2017년(77.9점)보다 1.2점 낮은 76.7점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전북도민의 주관적 행복감은 2017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4-80〉 난처한일 당했을 때 도움 지인 비교

구분	없다	있다	평균(명)
2017년	2.4	97.6	9.0
2020년	5.5	94.5	8.8
비교	▲3.1	▼3.1	▼0.2

- 난처한 일을 당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지인이 있는 경우 2020년 기준 94.5%로 이는 2017년(97.6%)보다 약3.1%p 더 낮아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평균사람 수 또한 2019년(9.0명)에 비해 0.2명이 적은 8.8명으로 나타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인에 대해서도 2017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4-81〉 사항별 주관적 만족감

구분	나의 가치도	삶의 성취도	미래 희망도	전북도민 자긍심	이웃 신뢰도	취업 기회	안전 수준	생활 환경
2017년	7.9	7.4	7.5	6.7	6.6	6.6	6.9	7.2
2020년	7.5	7.1	7.5	6.7	6.4	6.7	6.9	7.2
비교	▼0.4	▼0.3	-	-	▼0.2	▲0.1	-	-

- 마지막으로 사항별 주관적 만족감을 비교한 결과 2017년 보다 만족감이 높아진 사항은 취업기회 만족감으로 2020년 6.7점으로 2017년 6.6점 보다 약 0.1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보다 낮아진 만족감으로는 나의 가치도(-0.4점), 삶의 성취도(-0.3점), 이웃 신뢰도(-0.2점) 등의 만족감이 낮게 나타났고, 미래 희망도, 전북도민 자긍심 등의 지표는 2017년과 비교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사항별 주관적 만족감은 2017년과 비교시 낮아지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4-82〉 전북도민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구분		2017년	2020년	비교
주관적 행복감	10년 전	75.0	67.6	▼7.4
	현재	74.0	70.4	▼3.6
	10년 후	77.9	76.7	▼1.2
도움 지인	없다	2.4	5.5	▲3.1
	있다	97.6	94.5	▼3.1
	평균(명)	9.0	8.8	▼0.2
주관적 만족감	나의 가치	7.9	7.5	▼0.4
	삶의 성취	7.4	7.1	▼0.3
	미래 희망	7.5	7.5	-
	전북도민 자긍심	6.7	6.7	-
	이웃 신뢰도	6.6	6.4	▼0.2
	취업기회	6.6	6.7	▲0.1
	안전수준	6.9	6.9	-
	생활환경	7.2	7.2	-

나. 2017년-2020년 분야별 행복감 변화

1) 경제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비교
1) 고용의 안정성	고용불안 느끼지 않음	39.7	44.6	▲4.9
2) 소득만족도	만족	10.1	14.7	▲4.6
3) 직업만족도	만족	26.7	28.8	▲2.1
4) 좋은 일자리 인식	명예명성	2.6	2.6	-
	안정성	31.8	32.6	▲0.8
	수입	37.7	35.7	▼2.0
	적성·흥미	13.7	14.9	▲1.2
	보람·자아성취	4.8	4.3	▼0.5
	발전·장래성	5.9	5.4	▼0.5
5) 주관적 소득수준	여유	7.2	10.1	▲2.9
	적정	30.2	31.9	▲1.7
	모자람	62.6	58.1	▼4.5
6) 계층의식	상	0.7	2.2	▲1.5
	중	54.5	58.8	▲4.3
	하	44.8	39.0	▼5.8
7) 계층이동성	높음	24.8	22.5	▼2.3
	낮음	56.7	64.4	▲7.7
	모름	18.5	13.1	▼5.4
8)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	가구소득	4,111	5,156	▲1,045
	가계부채	4,254	4,973	▲719
9) 소비자 물가지수	2015년=100	100.54	104.48	▲3.9
10) 고용률 및 실업률	고용률	59.4	59.3	▼0.1
	실업률	2.1	2.7	▲0.6

○ 전북의 경제분야 지표의 2017년과 2020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의 안정성의 경우 2017년(39.7%)보다 4.9%p 상승한 44.6%로 나타났고, 소득만족도 또한 2020년 14.7%로 2017년(10.1%)보다 4.6%p 높아졌으며 가구소득 또한 2020년 기준 5156만원으로 2017년(4111만원)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북의 경제분야의 지표는 2017년 대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족관계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비교
1) 가족관계만족도	만족	59.8	57.5	▼2.3
2)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가정관리 시간	1시간35분	1시간37분	▲2분
	가족돌봄 시간	27분	20분	▼7분
3) 여가활동 동반자의 가족비중	가족과 함께	53.1	39.7	▼13.4
4) 부모와의 교류	만남- 한달 한두번	44.2	45.3	▲1.1
	전화통화-일주일 한두번	45.1	42.6	▼2.5

○ 가족관계만족도의 경우 2017년 전복의 만족도는 59.8%였으나 2020년 만족도는 57.5%로 약 2.3%p가 감소하였고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또한 2020년 39.7%로 2017년 (53.1%)대비 1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계 만족 분야의 지표는 2017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건강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비교
1)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좋음	51.5	45.0	▼6.5
	많이느낌	4.6	3.9	▼0.7
2) 스트레스 정도	느끼는편	45.9	43.3	▼2.6
	느끼지않음	49.5	52.8	▲3.3
3) 의료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	만족	57.2	49.0	▼8.2
4) 음주 및 흡연	음주	55.7	59.8	▲4.1
	흡연	18.6	21.0	▲2.4
5) 건강관리 실천	아침식사	73.1	72.7	▼0.4
	적정수면	81.8	80.2	▼1.6
	규칙적운동	34.2	37.7	▲3.5
	건강검진	64.5	82.4	▲17.9
6) 의료시설 수	인구 천명당 병상수	19.46	21.9	▲2.4
7) 의료서비스 이용율	종합병원	76.7	81.0	▲4.3
8) 규칙적 체육활동	하는 경우	82.5	79.1	▼3.4

- 건강분야에서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정도가 2017년 대비 3.3%p 상승한 52.8%로 나타났고 건강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3.5)과 건강검진(▲17.9), 의료시설 수(▲2.4), 의료서비스 이용율(▲4.3) 등의 지표가 2017년 대비 상승한 지표로 나타났다.

4) 사회적관계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비교
1) 도움제공 지인 여부	집안일부탁	75.6	78.0	▲2.4
	돈빌림	50.0	54.4	▲4.4
	이야기상대	83.1	82.0	▼1.1
2) 이웃에 대한 신뢰도	믿을 수 있음	-	54.5	-
3) 직장동료관계 만족도	만족	37.5	39.2	▲1.7
4) 친구관계 만족도	만족	62.2	70.2	▲8.0
5) 학교생활만족도	만족	45.3	49.8	▲4.5
6) 자원봉사 참여율		17.8	17.5	▼0.3
	스스로해결	24.3	21.1	▼3.2
	가족	22.7	22.0	▼0.7
	가족정부사회	46.8	49.1	▲2.3
	정부사회	6.1	7.8	▲1.7

- 사회적관계 분야 중 2017년 대비 2020년에 만족감이 상승한 지표로는 물리적 도움 지인(▲2.4), 금전적 도움 지인(▲4.4) 등 도움제공 지인 여부의 지표가 상승하였고, 직장동료관계(▲1.7), 친구관계(▲8.0), 학교생활만족도(▲4.5) 등의 지표도 상승지표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적관계분야는 2017년 대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5) 문화여가

- 문화여가분야의 경우는 문화여가활동만족도를 비롯하여 문화여가시설만족도, 예술행사만족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등의 지

표등 전반적으로 2017년 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 대비 감소한 지표로는 일 보다 여가에 집중하는 지표(▼13.6), 여가활동 빈도의 지표(▼8.7)로 나타났다.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비교
1)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만족	20.2	25.6	▲5.4
	일에 집중	39.4	42.6	▲3.2
2)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보통	28.4	38.8	▲10.4
	여가에 집중	32.2	18.6	▼13.6
3)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문화여가시설 이용함	25.2	50.3	▲25.1
4) 예술행사 만족도	문화예술 활동 수	79.1	92.9	▲13.8
	공연 횟수	100.3	172.8	▲72.5
5) 여가활동 빈도	매일	96.5	87.8	▼8.7
6)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관람함	58.1	62.3	▲4.2
7) 문화여가시설 수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7.97	8.60	▲0.6
8) 문화여가비용	한달 평균(천원)	131	185	▲54.0

6) 복지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비교
1) 사회보장만족도	사회보장여건 좋아짐	50.2	69.5	▲19.3
2) 노후준비정도	준비됨	58.0	63.7	▲5.7
3) 자살충동정도	십만명당 자살률	26.6	29.7	▼3.1
4) 복지서비스만족도	십만명당 복지시설수	17.54	18.76	▲1.2
5) 보육시설만족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21.37	17.88	▼3.5
6) 노인복지서비스만족도	노인 천명당 노인시설수	14.94	13.84	▼1.1

- 복지서비스 만족 분야의 경우 2017년 대비 상승한 지표로는 사회보장여건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2017년(50.2%)보다 19.3%p 상승한 69.5%로 가장 큰 차이로 만족도가 높아진 지표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의 경우 2017년 26.6%에서 2020년 29.7%로 나타나 수치상으로는 상승하였지만 부정적인 지표로 분류할 수 있다.

7) 안전

- 지역사회안전분야는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가 2017년 5.9%에서 2020년 17.3%로 약 11.4%p만큼 상승하였다. 이외 안전시설 만족도(▲3.2)와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만족도(▲2.7)등의 지표가 2017년 대비 상승지표로 나타나 전북의 지역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비교
1) 안전시설 만족도	안전하다	22.9	26.1	▲3.2
2)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	안전하다	5.9	17.3	▲11.4
3)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만족도	안전하다	23.5	26.2	▲2.7
4) 범죄 및 재해재난 안전성	범죄 안전등급	1	2	▲1.0
	재해재난 안전등급	2	2	-
5) 지역안전등급	교통사고	3	4	▲1
	화재	4	3	▼1
	범죄	1	2	▲1
	자연재해	2	2	-
6) 범죄 검거율	감염병	4	3	▼1
	검거율	88.8	88.3	▼0.5

8) 주거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비교
1) 주거환경 만족도	만족	88.2	88.2	-
2) 주택 만족도	만족	88.2	88.1	▼0.1
3) 주택가격	전세가격지수	101.4	97.9	▲3.5
	매매가격지수	100.5	98.7	▲1.8
4) 대중교통접근성	대중교통접근 5분~10분	49.3	43.0	▼6.3

- 주거여건 만족분야의 경우 주택 만족도의 경우 2020년 88.1%로 2017년 대비 약 0.1%p가 상승하였고, 전세가격지수와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대비 100보다 낮게 나타나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9) 환경

- 환경만족분야의 경우는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 만족도가 2017년 74.9%에서 2020년 79.9%로 약5.0%p 만큼 상승하였고, 이외 미세먼지의 좋음 일수(▲52)와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50)가 2017년 대비 상승한 지표로 나타났다.

지표 내용		2017년	2020년	비교
1) 공원 및 녹지공간 접근 만족도	만족	74.9	79.9	▲5.0
2) 환경에 대한 만족도	생활환경 만족도	-	36.0	
	환경의 변화 만족도	26.3	25.5	▼0.8
3) 현재 체감환경 만족도	녹지환경	45.6	45.1	▼0.5
	대기	43.1	32.8	▼10.3
	소음진동	36.2	31.9	▼4.3
	수질	45.3	32.1	▼13.2
	토양	38.3	31.6	▼6.7
4) 환경문제 인식	기후변화 불안	61.7	47.2	▼14.5
	농약화학비료 불안	55.5	49.4	▼6.1
	유해화학 불안	-	48.8	-
	방사능 불안	-	54.2	-
	수돗물 불안	-	30.2	-
	미세먼지유입 불안	-	82.5	-
5) 생활폐기물 청결도	폐기물 발생량	1,615.6	1895.1	▼279.5
6) 미세먼지	미세먼지 좋음 일수	69	121	▲52.0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	67	117	▲50.0

- 그 외 체감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도,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 등이 2017년 대비 감소한 지표로 나타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5

장

전북 행복지표 시사점

Jeonbuk Institute

-
1. 전라북도민 행복요인 분석
 2. 행복정책 연계방안 모색

제5장 전북 행복지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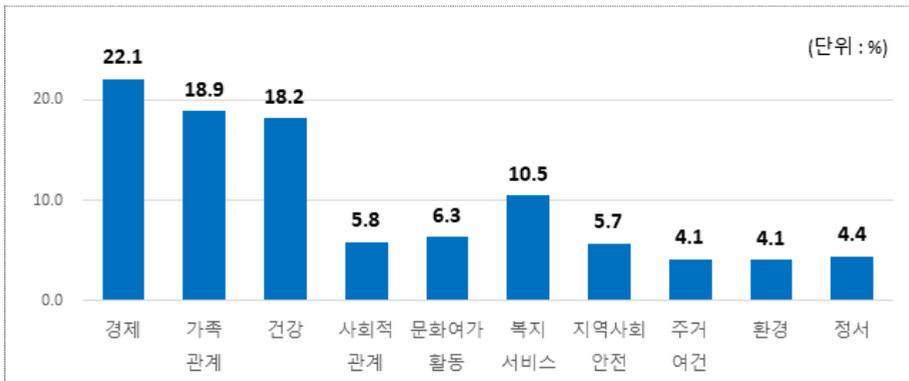
1. 전라북도민 행복요인 분석

가. 2020년형 행복지표 10대 영역별 우선순위

1) 10대 영역의 중요도

○ 전라북도 행복지표의 10대 영역에 대한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1%가 「경제적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가족관계 만족(18.9%)」, 「건강 만족(18.2%)」, 「복지서비스 만족(10.5%)」, 「문화여가활동 만족(6.3%)」, 「사회적관계 만족(5.8%)」, 「지역사회안전 만족(5.7%)」, 「정서적 만족(4.4%)」, 「주거여건 만족·환경 만족(4.1%)」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그림5-1〉 2020년형 행복지표 10대 영역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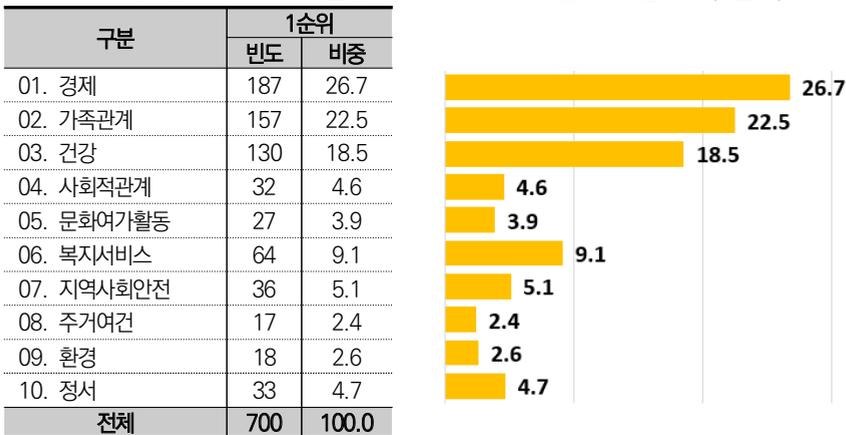


구분	가중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01. 경제	928	22.1	187	26.7	125	17.8	117	16.8
02. 가족관계	794	18.9	157	22.5	126	17.9	71	10.1
03. 건강	763	18.2	130	18.5	137	19.5	101	14.4
04. 사회적관계	244	5.8	32	4.6	47	6.8	53	7.6
05. 문화여가활동	266	6.3	27	3.9	56	8.1	72	10.3
06. 복지서비스	440	10.5	64	9.1	69	9.9	111	15.8
07. 지역사회안전	238	5.7	36	5.1	40	5.8	50	7.2
08. 주거여건	172	4.1	17	2.4	37	5.3	47	6.7
09. 환경	171	4.1	18	2.6	39	5.5	40	5.7
10. 정서	184	4.4	33	4.7	24	3.4	38	5.5
전체	4,200	100.0	700	100.0	700	100.0	700	100.0

주. 가중합계 : (1순위)×3+(2순위)×2+(3순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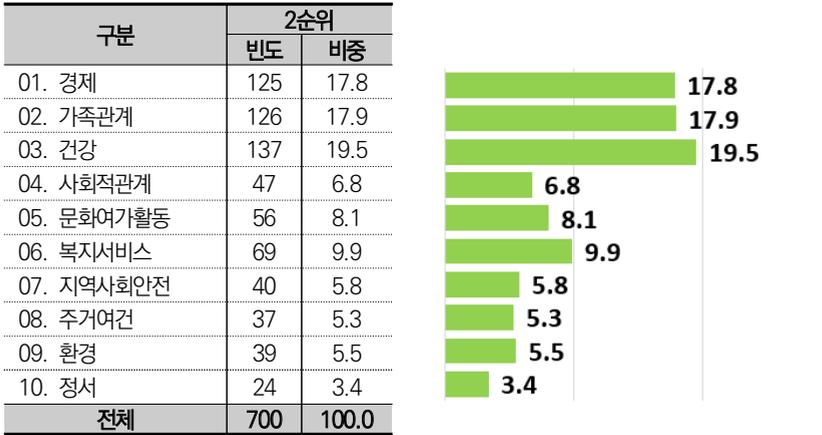
- 10대 영역별 중요도의 1순위는 「경제적 만족」이 26.7%로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가족관계 만족(22.5%)」, 「건강 만족(18.5%)」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그림5-2〉 2020년형 행복지표 10대 영역별 중요도(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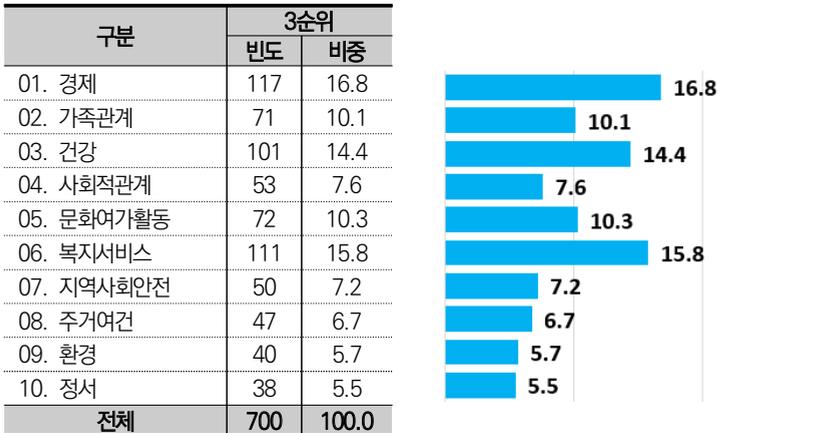
- 2순위의 중요도는 「건강 만족(19.5%)」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가족관계 만족(17.9%)」, 「경제적 만족(17.8%)」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그림5-3〉 2020년형 행복지표 10대 영역별 중요도(2순위)



○ 10대 영역별 중요도 3순위는 「복지서비스 만족(15.8%)」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제적 만족(16.8%)」, 「건강 만족(14.4%)」 등의 순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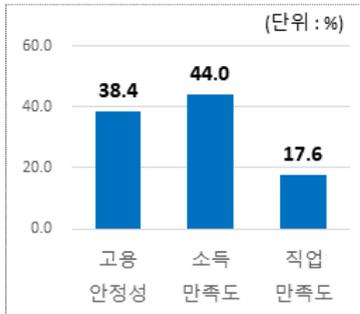
〈그림5-4〉 2020년형 행복지표 10대 영역별 중요도(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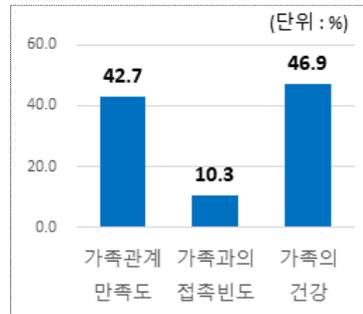
2) 영역별 세부지표의 중요도

- 경제적 만족 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0%가 「소득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고용 안정성(38.4%)」, 「직업 만족도(1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 지표에 대한 중요도는 응답자의 46.9%가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족의 건강(42.7%)」, 「가족과의 접촉빈도(10.3%)」 순이었다.

〈그림5-5〉 경제적 만족지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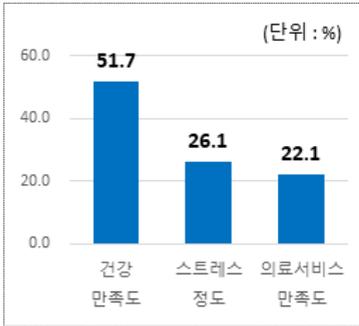


〈그림5-6〉 가족관계 만족지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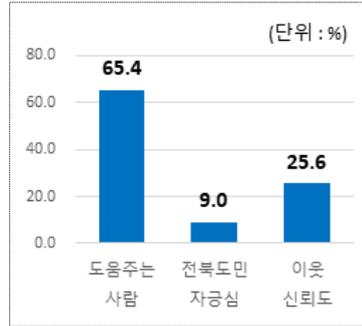


- 건강 만족 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7%가 「건강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스트레스 정도(26.1%)」, 「의료서비스 만족도(2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사회적관계 만족 지표의 중요도는 「도움주는 사람」의 중요도가 6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웃 신뢰도(25.6%)」, 「전북도민 자긍심(9.0%)」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5-7〉 건강 만족지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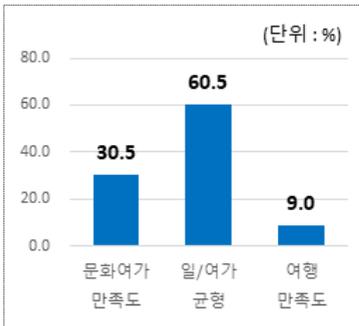


〈그림5-8〉 사회적관계 만족지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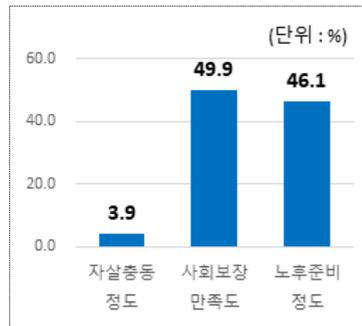


- 문화여가활동 만족 지표에 대한 중요도는 응답자의 60.5%가 「일/여가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복지서비스의 만족지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9%가 「사회보장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5-9〉 문화여가 만족지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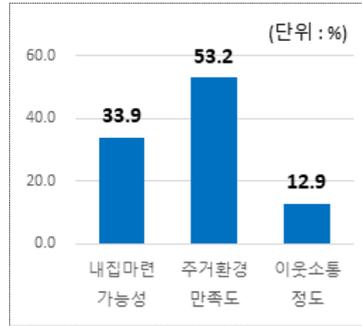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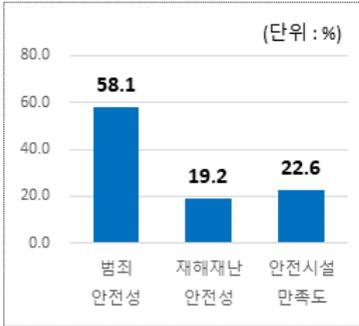


〈그림5-10〉 복지서비스 만족지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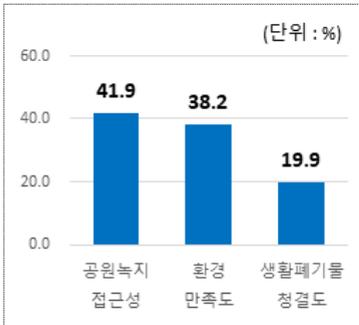
- 지역사회안전 만족 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1%가 「범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주거여건 만족 지표에 대한 중요도는 응답자의 53.2%가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5-11〉 지역사회안전 만족지표 중요도 〈그림5-12〉 주거여건 만족지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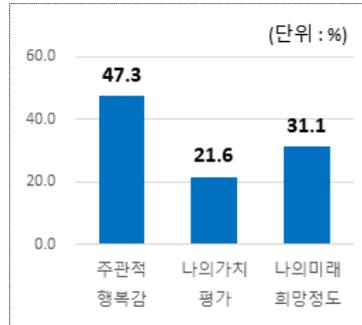


○ 환경 만족 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9%가 「공원녹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 만족도(38.2%)」, 「생활폐기물 청결도(19.9%)」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만족 지표에 대한 중요도는 응답자의 47.3%가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나의 미래 희망정도(31.1%)」, 「나의 가치 평가(2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5-13〉 환경 만족지표 중요도



〈그림5-14〉 정서적 만족지표 중요도



나. 2017년-2020년 영역별 우선순위 변화

- 행복지표의 영역별 우선순위의 비교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대영역지표와 영역별 세부지표의 우선순위를 비교하였다.
- 먼저 대영역지표의 경우 2017년은 7대 영역으로 선정하였고 1순위는 건강영역, 2순위는 경제영역, 3순위는 사회문화여가영역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분석되었다.
- 2020년 행복지표는 2017년의 대영역지표의 내용에 포함되어있던 지표 중 가족관계영역과 주거여건, 환경, 정서의 영역을 대영역으로 분리하여 10대 영역으로 선정하였으며 10대 영역지표 중 1순위는 경제영역, 2순위는 가족관계영역, 3순위는 건강 영역으로 우선순위가 분석되었다.

〈표5-1〉 2017년-2020년 행복지표 대영역의 우선순위 비교

대영역 지표	2017년	2020년	비고
경제	2순위	1순위	
사회문화여가	3순위	5순위	20년-문화여가
건강	1순위	3순위	
사회적관계	4순위	6순위	
보건/복지	5순위	4순위	
지역사회안전	7순위	7순위	20년-환경
근로/교육	6순위		
가족관계		2순위	20년 추가
주거여건		9순위	20년 추가
정서		8순위	20년 추가
환경		10순위	20년 추가

- 2017년과 2020년 모두 중요영역으로 나타난 영역은 경제영역(2017년-2순위, 2020년-1순위)과 건강영역(2017년-1순위, 2020년-3순위)으로 나타났고, 2020년에 대영역으로 새롭게 추가한 영역 중 가족관계영역이 2순위로 중요영역으로 분석되었다.

〈표5-2〉 2017년-2020년 행복지표 영역별 세부지표 우선순위 비교

대영역 지표	우선순위	영역별 세부지표	
		2017년	2020년
경제	1순위	가구소득	소득만족도
	2순위	생활비	고용안정성
	3순위	소득만족도	직업만족도
사회문화여가	1순위	여가활동 빈도	일과여가의 균형
	2순위	문화여가활동만족도	문화여가만족도
	3순위	문화여가비용	여행만족도
건강	1순위	스트레스정도	건강만족도
	2순위	건강관리실천	스트레스정도
	3순위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서비스만족도
사회적관계	1순위	가족관계만족도	도움지인
	2순위	친구관계만족도	이웃신뢰도
	3순위	직장관계만족도	전북도민자금심
보건/복지	1순위	의료서비스만족도	사회보장만족도
	2순위	복지서비스만족도	노후준비정도
	3순위	사회보장만족도	자살충동정도
지역사회안전	1순위	주거만족도	범죄안전성
	2순위	현재체감환경	안전시설만족도
	3순위	주택가격	재해재난안전성
근로/교육	1순위	고용안정성	
	2순위	월평균 근로소득	
	3순위	좋은일자리 인식	
가족관계	1순위		가족의 건강
	2순위		가족관계만족도
	3순위		가족과의 접촉빈도
주거여건	1순위		주거환경만족도
	2순위		내집마련가능성
	3순위		이웃소통정도
정서	1순위		주관적행복감
	2순위		나의미래희망정도
	3순위		나의가치평가
환경	1순위		공원녹지 접근성
	2순위		환경만족도
	3순위		생활폐기물 청결도

- 영역별 세부지표의 우선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과 2020년 모두 중요지표로 분석된 지표로는 소득만족도, 고용안정성, 문화여가만족도, 스트레스정도, 의료서비스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사회보장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등 8개 지표로 분석되었다.
- 각 지표의 대영역별로 보면 경제영역에서는 소득만족도와 고용안정성지표가 중요지표로 분석되었고 이중 소득만족도는 2017년에는 3순위였으나 2020년은 1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안정성지표의 경우는 2017년에는 근로 및 교육영역의 1순위 지표였으나 2020년형 행복지표체계에서는 경제영역으로 분류되어 2순위로 나타났다.
- 사회문화여가영역에서는 문화여가만족도가 2017년과 2020년 모두 2순위로 나타났고, 건강영역에서는 스트레스정도지표가 2017년 1순위, 2020년 2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서비스만족도의 경우 2017년에는 보건복지영역의 1순위 지표로 나타났으나 2020년형 행복지표에서는 건강영역으로 분류되어 3순위로 나타났다.
- 사회보장만족도의 경우 2020년형 행복지표에서는 복지영역의 1순위 지표였으나 2017년은 보건복지영역의 3순위 지표로 나타났고, 가족관계만족도는 2017년 사회적관계영역의 1순위 지표였으나 2020년에는 가족관계영역의 2순위 지표로 나타났고, 주거환경만족도는 2017년에는 지역사회안전영역의 1순위 지표였으며, 2020년형 행복지표체계에서는 주거여건영역의 1순위로 나타났다.
- 2017년형 행복지표의 대영역에 포함된 세부지표 일부를 2020년의 대영역 지표로 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부지표의 영역이 새롭게 구성되었고 그 중 고용안정성, 가족관계만족도, 의료서비스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의 지표는 2017년과 2020년의 대영역은 달라졌으나 중요세부지표로 분석되었다.

2. 행복정책 연계방안 모색

가. 행복지표 정책활용

1) 전북행복지표 공개와 관리

- 부산시는 민선7기 4대 분야 10개 영역 64개로 구성된 시민행복지표를 구성한 후 매년 지표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지표를 통해 매년 개인과 가족, 공동체, 도시 분야 별 지표의 개선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영국 또한 매년 행복지표를 분야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전체지표와 개선된 지표, 후퇴한 지표, 변화없는 지표로 나누어 전체지표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부산시민행복지표 - 부산광역시 통합해역·정보공개·부산소계 분야별정보

개인 D-37개 영역 15개 지표
건강관 7개영 (5개)

구분	연속유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건강지표(%)	연속유기	44.7	49.4	55.7				
건강관리(%)	연속유기	70.36	76.14	77.16				
건강관리(%)	연속유기	21.25	21.8	26.6				
행복지표(%)	연속유기	3.001	3.269		21.5	20.0		
행복지표(%)	연속유기	62.1	-	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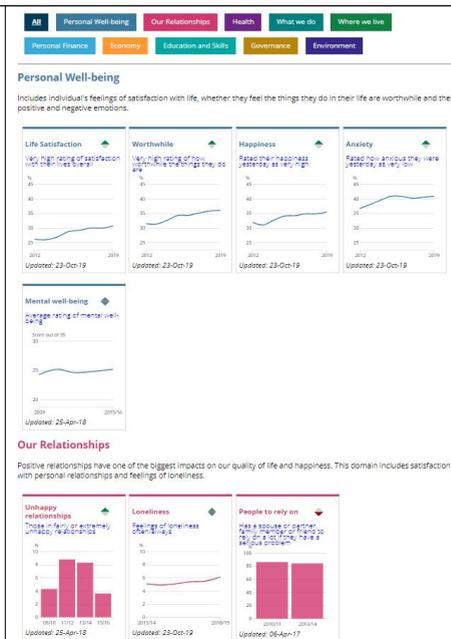
마음의 행복 (4개)

구분	연속유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행복지표(%)	연속유기	65.76						
행복지표(%)	연속유기	62.83						
행복지표(%)	연속유기	35.18						
행복지표(%)	연속유기	6.1	6.4	6.7	6.1			
행복지표(%)	연속유기	23.1	22.4	22.4	23.0			

즐거움 4개 (6개)

구분	연속유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행복지표(%)	연속유기	4.5	-	4.5				
행복지표(%)	연속유기	4.8						
행복지표(%)	연속유기	56.1	55.8	69.3	69.7			
행복지표(%)	연속유기	3.32	-	3.54				
행복지표(%)	연속유기	-	-	3.76				

<그림5-15> 부산시 홈페이지 행복지표 공개



<그림5-16> 영국 통계청 행복지표 공개

- 이렇게 행복지표를 공개하는 이유는 매년 행복지표의 현황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전체적인 행복현황을 알리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 개선되거나 후퇴한 지표의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이웃과 개인의 행복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행복지표의 공개를 통해 시민행복현황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후퇴한 지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정책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인 시민의 행복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전라북도는 행복지표를 연구적 차원에서만 공개할 뿐 정책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행복지표를 공개하는 것은 도정의 방향을 행복과 삶의 질에 두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의미도 있다. 그런 점에서 행복지표의 공개와 지속적인 관리는 전라북도 행복관리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전라북도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영국의 경우 지역웰빙지표 분석결과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한 비영리기관인 행복도시(Happy City)담당자, 공공보건(Public Health)중앙부처, 통계청(Oggice for National Statistics), 학계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원탁회의를 실시한다(서울연구원, 2017).
- 대전시는 자발적으로 시민 500명으로 대전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2016년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시민행복위원회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운영위원회(20명)를 두고 매년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인 시민행복위원회는 대전시의 갈등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 대전시 홈페이지, 2020
 <그림5-17> 대전시민행복위원회 모집공고

○ 행복지표는 측정을 한 후 정보의 공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화와 정책의 행복연 관성을 검토해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연구원에서 행복지 표를 조사한 결과와 행 복정책에 대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전라북도행복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토대를 만들고 전라북도행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행복지표와 행복정책을 점검하고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행복영향평가 제도도입

○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삶의 질의 관점에서 도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계획의 수정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행복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위주의 정책은 어느 정도 도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의 파괴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의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와 실행자들이 스스로 행복의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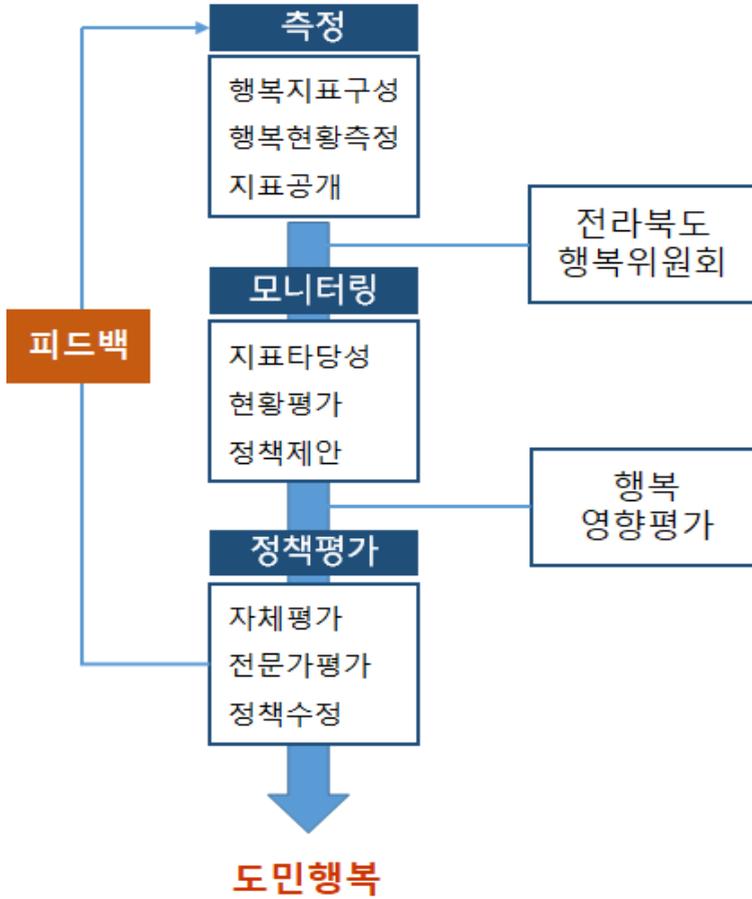
〈표5-3〉 행복영향평가 방식

평가 구분	형식	자체평가		전문평가		
	심도	진단평가	약식평가	기본평가	심층(전략)평가	
피평가 기관 (지자체) 역할	평가교육	• 행복영향평가 안내 및 교육 참석				
	평가서	• 진단평가서 제출	• 약식평가서(+증빙) 제출			
	참고자료 현장조사		• 1회 이상의 현장조사 참여 및 협조	• 평가 참고자료 제공	• 3회 이상의 현장조사 참여 및 협조	
	중간/최종			• 중간 및 최종보고회 참석과 의견제시		
	결과환류		• 평가결과 환류(평가반영(예정) 결과 제출)			
	지속환류				• 모니터링 진행 협조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문화영향평가를 기반으로 수정

- 행복영향평가는 주관적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처럼 양적평가를 통해 추진하기 어렵다. 오히려 컨설팅형식을 띄고 있는 인구영향평가나 문화영향평가가 행복영향평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 문화적 관점의 분석과 평가를 시행하고 해당 정책이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행복영향평가는 정책입안자가 스스로 도민행복관점에서 구성된 지표별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심층평가를 통한 전문평가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복영향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행복의 가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5-18〉 전라북도 행복정책 환류체계



나. 분야별 정책적 시사점

- 전라북도 도민의 객관적 행복지표를 실증할 수 있도록 도민의 실질적이고 주관적인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분야별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사회조사를 비롯한 각 통계데이터와 비교하고자 한다.

〈표5-4〉 소득분야 지표 비교

구분		연평균 가구소득
지역	시 지역	5,527만원
	군 지역	4,787만원
연령	20세 미만	5,663만원
	20-39세	5,360만원
	40-59세	6,350만원
	60세 이상	4,199만원
소득	2천만원 미만	2,674만원
	2천-4천만원 미만	4,851만원
	4천-6천만원 미만	5,240만원
	6천만원 이상	7,291만원
도민의 주관적 지표 현황		5,367만원
통계데이터 현황		5,156만원
비교		▼211만원

통계데이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9)

- 전라북도 도민의 행복을 위한 연평균 소득은 주관적 지표현황을 보면 5,367만원 이었으나 가계금융복지조사(2019)의 연평균 가구소득현황을 보면 5,156만원으로 행복을 위한 평균 가구소득이 약 211만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평균(14.1)보다 전북(14.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지표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시 지역(5,527만원)이 군 지역(4,787만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50대(6,350만원), 소득구간별로는 6천만원 이상의 경우 7,29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5-5〉 가족관계분야 지표 비교

구분		가족과 보내는 시간
지역	시 지역	5.9시간
	군 지역	6.5시간
연령	20세 미만	6.0시간
	20-39세	6.6시간
	40-59세	6.3시간
	60세 이상	5.4시간
소득	2천만원 미만	5.3시간
	2천-4천만원 미만	5.7시간
	4천-6천만원 미만	6.3시간
	6천만원 이상	6.5시간
도민의 주관적 지표 현황		6.1시간
통계데이터 현황		1시간57분(1.9시간)
비교		▼4.2시간

통계데이터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14)

- 행복을 위한 가족과의 시간은 조사결과 평균 6.1시간으로 나타났으나 생활시간조사(2014)에 따르면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등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1.9시간으로 나타나 행복을 위한 가족과의 시간은 약 4.2시간이 모자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소득구간별로는 6천만원 이상 소득구간에서 6.5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2천만원 미만 소득구간에서는 5.3시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을 위한 가족과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체육활동의 경우로는 도민의 주관적 지표 조사 결과 주1~2회가 26.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월2~3회가 23.9%로 많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경우 「월2~3회」가 가장 많았으나 20세~59세는 「주1~2회」, 60세 이상은 「주 3~4회」가 많아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활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생활체육조사(2018)에 따르면 주1~2회(29.6%)와 주3~4회(28.3%)의 빈도가 많게 나타나 현재 도민의 체육활동빈도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5-6〉 건강분야 지표 비교

구분		규칙적 체육활동 빈도				
		하지 않음	월2~3회	주1~2회	주3~4회	주5회 이상
지역	시 지역	18.5	24.0	25.5	23.1	9.0
	군 지역	16.9	24.0	27.9	19.5	11.7
연령	20세 미만	24.0	25.3	18.7	22.7	9.3
	20-39세	22.5	23.7	28.4	16.6	8.9
	40-59세	19.6	22.1	31.7	19.6	7.1
	60세 이상	11.6	25.5	19.9	30.1	13.0
소득	2천만원 미만	7.0	37.2	23.3	11.6	20.9
	2천-4천만원 미만	17.6	22.2	23.9	29.5	6.8
	4천-6천만원 미만	16.5	19.3	25.0	27.8	11.4
	6천만원 이상	22.9	24.7	30.6	16.5	5.3
도민의 주관적 지표 현황		18.1	23.9	26.0	22.4	9.6
통계데이터 현황		20.9	10.0	29.6	28.3	11.2
비교		▼2.8	▲13.9	▼3.6	▼5.9	▼1.6

통계데이터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2018)

〈표5-7〉 사회적관계분야 지표 비교

구분		도움지인 여부		
		집안일 부탁 (물리적 도움)	돈 빌림 (금전적 도움)	이야기 상대 (정서적 도움)
지역	시 지역	78.4	61.7	90.3
	군 지역	66.9	64.9	88.3
연령	20세 미만	92.0	73.0	97.3
	20-39세	80.0	72.4	90.5
	40-59세	74.6	59.6	93.8
	60세 이상	68.5	54.2	82.9
소득	2천만원 미만	66.7	43.2	77.3
	2천-4천만원 미만	69.3	51.1	82.4
	4천-6천만원 미만	78.0	67.8	91.0
	6천만원 이상	74.1	72.9	97.1
도민의 주관적 지표 현황		75.9	62.5	89.9
통계데이터 현황		78.0	54.4	82.0
비교		▼2.1	▲8.1	▲7.9

통계데이터 : 통계청. 사회조사(2019)

- 난처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경우 도민의 주관적 지표조사결과 금전적인 도움과 정서적 도움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조사(2019) 데이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집안일을 부탁하는 물리적 도움부분은 주관적 조사결과 75.9%로 사회조사데이터(78.0%)보다 2.1%p가 더 적게 나타나 물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인이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5-8〉 문화여가분야 지표 비교

구분		여가활동빈도					
		하지 않음	매일	주2-3 회	월2-3 회	월1회	월1회 미만
지역	시 지역	7.0	16.3	41.2	23.4	8.1	4.0
	군 지역	7.2	15.7	43.8	25.5	4.6	3.3
연령	20세 미만	2.7	28.0	60.0	6.7	2.7	
	20-39세	6.5	27.1	39.4	16.5	7.1	3.5
	40-59세	7.5	11.3	34.2	30.8	12.1	4.2
	60세 이상	8.4	8.4	46.0	27.4	4.2	5.6
소득	2천만원 미만		17.8	22.2	37.8	17.8	4.4
	2천-4천만원 미만	10.2	15.3	40.9	18.8	9.7	5.1
	4천-6천만원 미만	4.5	16.4	48.6	20.9	4.5	5.1
	6천만원 이상	7.6	12.9	38.0	32.7	6.4	2.3
도민의 주관적 지표 현황		7.1	16.1	41.7	23.8	7.4	4.0
통계데이터 현황		-	87.8	11.1	1.0	0.0	0.1
비교		-	▼71.7	▲30.6	▲22.8	▲7.4	▲3.9

통계데이터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2019)

- 여가활동현황의 경우 도민의 주관적 지표조사결과 주2~3회의 빈도가 41.7%로 가장 많았으나 국민여가활동조사(2019)에 따르면 매일(87.8%)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단,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여가활동은 주 업무를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으로 TV 시청 등의 시간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의 주관적 현황을 위한 조사에서는 TV시청 등의 시간은 제외하였다.

- 한편, 소득구간별로 보면 2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월2~3회」가 37.8%로 많았으나 소득이 2천만원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주 2~3회」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9〉 사회안전분야 지표 비교

구분		분야별 사회안전 인식도(안전하다 만 표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감염병
지역	시 지역	29.8	35.5	38.7	42.0	44.5
	군 지역	33.1	30.5	40.9	40.5	58.0
연령	20세 미만	33.8	38.7	36.0	40.6	52.6
	20-39세	25.9	33.1	31.2	40.3	46.8
	40-59세	29.3	31.3	37.5	36.7	46.7
	60세 이상	34.3	37.1	48.4	48.6	47.2
소득	2천만원 미만	51.1	57.7	45.5	50.0	72.7
	2천-4천만원 미만	22.2	32.0	44.3	43.2	48.3
	4천-6천만원 미만	23.8	31.6	39.0	43.2	41.4
	6천만원 이상	42.1	40.0	41.2	39.5	51.4
도민의 주관적 지표 현황		30.5	34.4	39.2	41.6	47.6
통계데이터 현황		15.9	23.2	17.3	26.2	17.9
비교		▲14.6	▲11.2	▲21.9	▲15.4	▲29.7

통계데이터 : 통계청. 사회조사(2018)

- 사회안전에 대한 현황을 각 분야별로 조사한 결과 도민의 주관적 안전도는 각 분야별로 30%를 상회하며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조사(2018)에 따르면 가장 높은 안전도가 자연재해안전도 26.2%로 분야별 안전도가 20%대 이하로 나타나 현재 도민이 인식하는 분야별 안전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미만까지는 감염병의 안전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60세 이상부터는 자연재해(48.6%)의 안전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구간별로는 4천~6천만원 미만 구간에서 자연재해의 안전도(43.2%)가 가장 높았고 그 외 소득구간에서는 감염병의 안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복지서비스분야의 현황비교를 위해 사회보장여건변화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도민의 주관적인 지표에서는 사회보장여건이 좋아짐이 77.1%로 사회조사(2019)현황(69.5%)보다 약7.6%p가 높게 나타나 전북의 사회보장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더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은 좋아졌다는 응답이 49.3%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세 이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보장제도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60%를 상회하며 높게 나타났다.

〈표5-10〉 복지서비스분야 지표 비교

구분		사회보장여건변화						나빠짐	좋아짐
		매우 나빠짐	약간 나빠짐	변화 없음	약간 좋아짐	매우 좋아짐			
지역	시 지역	1.1	3.5	16.5	59.4	19.6	4.6	79.0	
	군 지역	1.3	4.5	24.0	50.6	19.5	5.8	70.1	
연령	20세 미만	4.0	1.3	45.3	40.0	9.3	5.3	49.3	
	20-39세	1.8	5.9	28.4	51.5	12.4	7.7	63.9	
	40-59세	0.8	2.1	10.8	60.0	26.3	2.9	86.3	
	60세 이상		4.2	8.4	66.0	21.4	4.2	87.4	
소득	2천만원 미만			16.3	62.8	20.9	0.0	83.7	
	2천-4천만원 미만	1.1	4.0	20.9	59.3	14.7	5.1	74.0	
	4천-6천만원 미만		4.5	14.1	55.9	25.4	4.5	81.3	
	6천만원 이상	1.2	1.8	7.6	60.8	28.7	3.0	89.5	
도민의 주관적 지표 현황		1.2	3.6	18.1	57.6	19.5	4.8	77.1	
통계데이터 현황		0.3	1.1	29.1	54.9	14.6	1.4	69.5	
비교		▲0.9	▲2.5	▼11.0	▲2.7	▲4.9	▲3.4	▲7.6	

통계데이터 : 통계청. 사회조사(2019)

- 주거분야의 만족도 현황비교를 위해서 주거환경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민의 주관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만족이 50.2%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거실태조사(2018)의 만족도 88.2%보다 약 38.0%p가 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단,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의 4점척도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주관적 현황조사에서는 '보통'을 포함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로 만족도의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 도민의 주관적 지표의 '보통'을 '대체로 만족'에 포함하면 78.6%로 주거실태조사의 79.1%보다 약 0.5%p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85.4%로 주거실태조사 만족도(88.2%)보다 2.8%p 낮은 수준이다.

〈표5-11〉 주거분야 지표 비교

구분		주거환경만족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만족 (보통 포함)
지역	시 지역	1.6	12.5	37.4	42.9	5.7	14.1	48.6	86.0
	군 지역	3.2	13.5	27.1	45.2	11.0	16.7	56.2	83.3
연령	20세 미만		10.7	32.0	41.3	16.0	10.7	57.3	89.3
	20-39세	4.1	18.2	33.5	38.8	5.3	22.3	44.1	77.6
	40-59세	1.3	10.4	39.6	44.2	4.6	11.7	48.8	88.4
	60세 이상	1.4	11.6	32.9	47.2	6.9	13.0	54.1	87.0
소득	2천만원 미만		9.1	20.5	68.2	2.3	9.1	70.5	91.0
	2천-4천만원 미만	2.8	11.9	39.8	43.2	2.3	14.7	45.5	85.3
	4천-6천만원 미만	2.3	14.7	33.9	36.2	13.0	17.0	49.2	83.1
	6천만원 이상	1.8	11.7	33.9	47.4	5.3	13.5	52.7	86.6
도민의 주관적 지표 현황		1.9	12.6	35.2	43.4	6.8	14.5	50.2	85.4
통계데이터 현황		0.5	11.3		79.1	9.1	11.8	88.2	88.2
비교		▲1.4	▲1.3		▼35.7	▼2.3	▲2.7	▼38.0	▼2.8

통계데이터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8)

〈표5-12〉 환경분야 지표 비교

구분		미세먼지 좋은날
지역	시 지역	21.4일
	군 지역	22.2일
연령	20세 미만	22.4일
	20-39세	21.9일
	40-59세	21.7일
	60세 이상	20.9일
소득	2천만원 미만	23.2일
	2천-4천만원 미만	21.8일
	4천-6천만원 미만	21.7일
	6천만원 이상	20.7일
도민의 주관적 지표 현황		21.6일
통계데이터 현황		10.1일
비교		▼11.5일

통계데이터 :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연보(2018)

- 행복을 위한 미세먼지의 좋은 날은 조사결과 평균 21.6일로 나타났으나 대기환경연보(2018)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좋은 일 수는 평균 10.1일로 나타나 행복을 위한 미세먼지의 좋음 일 수는 약 11.5일이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령에 따라서는 20세 미만의 경우가 평균 22.4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평균 일수가 높게 나타났고, 소득구간별로는 2천만원 미만의 구간에서 23.2일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평균일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13〉 정서분야 지표 비교

구분		삶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지역	시 지역	0.9	8.4	32.2	53.8	4.6	9.3	58.4
	군 지역	2.0	11.8	24.2	58.2	3.9	13.8	62.1
연령	20세 미만	1.3	8.0	21.3	58.7	10.7	9.3	69.4
	20-39세	1.2	8.3	31.4	53.3	5.9	9.5	59.2
	40-59세	2.1	7.9	29.5	56.4	4.1	10.0	60.5
	60세 이상		11.6	34.3	52.8	1.4	11.6	54.2
소득	2천만원 미만		6.8	22.7	68.2	2.3	6.8	70.5
	2천-4천만원 미만	1.7	11.9	36.4	47.7	2.3	13.6	50.0
	4천-6천만원 미만	1.7	11.3	28.2	53.7	5.1	13.0	58.8
	6천만원 이상	1.2	2.9	29.8	59.6	6.4	4.1	66.0
도민의 주관적 지표 현황		1.2	9.1	30.4	54.8	4.5	10.3	59.3
통계데이터 현황		2.3	11.0	50.7	23.9	12.1	13.3	36.0
비교		▼1.1	▼1.9	▼20.3	▲30.9	▼7.6	▼3.0	▲23.3

통계데이터 : 통계청. 사회조사(2019)

-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의 현황비교를 위한 조사 결과 도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만족이 59.3%로 나타났고, 이는 사회조사(2019)의 만족도 36.0%보다 약 23.3%p 높게 나타나 도민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지역별로는 군 지역(62.1%)이 시 지역(58.4%)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20세 미만(69.4%), 소득구간별로는 2천만원 미만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천만원 이상 구간부터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장

결론 및 제언

제6장 결론 및 제언

□ 2020 전북행복지표 구성

- 2020 전북행복지표는 2017년 8대 분야 60개 세부지표에서 10대 분야 83개 세부지표로 조정됐다. 2017년 당시 국내외 행복지표에서 가장 중복되는 분야와 원탁회의를 통해 도민들이 생각하는 분야를 고려하여 주관적 행복도, 경제, 사회문화, 건강, 사회적 관계, 보건복지, 사회안전, 근로환경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원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제안된 가족과 환경분야 등이 사회적관계나 안전분야로 포함돼 있어 분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행복지표에는 경제, 가족, 건강, 사회적관계, 문화여가, 복지, 안전, 주거, 환경, 정서 10대 분야로 세분화 하였다.
- 지표의 구성에서 가장 차별화된 점은 대표적 비교지표를 새롭게 구성했다는 점이다. 비교지표는 행복을 위한 주관적 기준과 현실적 현황과의 괴리를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로 하나씩 구성하였다. 총10개의 비교지표를 통해 도민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현실적 조건을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행복도 감소

- 도민들의 행복현황을 알기 위해 조사한 10년 전, 현재, 10년 후 행복감 모두 2017년 보다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인 행복도 외에도 분야별 지표도 대부분 낮게 나왔다. 특히, 객관적 현황이 아닌 주관적 만족감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결과가 낮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추세를 파악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적 교감정도가 낮고 질병과 사망도 많아지면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 분야별 행복정책방향 설정

○ 전북도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8대분야별 주관적 행복기준과 객관적 행복기준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관적 지표와 통계적 지표간의 분석결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연령, 도시와 농촌, 소득구간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경제분야는 주관적 행복지표와 객관적 통계사이의 연평균 가구소득의 갭 차이인 211만원정도의 절대적 소득을 늘리는 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 가족분야는 가족과의 시간에서 현재 통계상황과 도민의 행복기준과의 차이(4.2시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분야는 규칙적 체육활동에서 전국평균보다 낮지만 연령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관계는 전국적 평균보다 전라북도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적극적 관계는 조금 낮은 편이다. 여가활동은 국민여가활동조사시 매일이 87.8%이나 전라북도는 16.1%밖에 되지 않아 도민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사회안전분야와 복지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전라북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속적인 비교위위 전략이 필요하다. 주거분야는 주거환경에 대해 전국평균 88.2%에 비해 도민 50.2%로 주거환경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환경분야는 미세먼지 없는 날을 한달에 21일정도 원했지만 현실은

10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주관적 행복감에서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성장에서 행복으로 패러다임 전환

- 경제성장과 지역개발 중심의 정책적 패러다임은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삶의 질의 희생을 강요하는 성장과 개발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도정의 방향은 언제나 더 많은 개발과 더 높은 성장을 추구하며 운영되고 있다. 성장과 행복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성장보다는 도민행복을 중심으로 정책적 가치전환을 해야할 시기이다.
- 전라북도는 도민행복을 전면에 내걸고 도정을 가치를 내세운적은 없다. 항상 삶의 질이나 행복은 복지적 측면에서 하나의 분야로 운영되어 왔다. 이제는 도정의 가치를 성장에서 도민행복을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 공식적으로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도민행복과 관련한 지표를 공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을 상징적으로 공표해야한다. 행복지표의 공개는 향후 도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표개선과 정책적 전환으로 연결될 것이다.

□ 전북행복정책 환류체계 구축

- 전라북도행복지표가 정책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행복지표의 측정과 정책추진간의 환류체계를 구축해야한다. 행복지표의 구성과 현황분석을 통한 행복현황 측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행복현황 측정결과는 매년 도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된 행복지표를 통해 전라북도민의 행복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 공무원, 도민으로 구성된 전라북도행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전라북도행복위원회는 행복지표의 모니터링과 정책적 제안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정책의 수립과 수행과정에서는 행복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입안자가 도민행복의 관점에서 정책추진의 당위성과 정책적 수정을 거치고 전문가를 통해 정책적 방향과 내용을 최종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전라북도 행복지표의 측정,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다시 측정으로 환원되는 환류체계는 전라북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행복위원회와 행복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행복지표와 행복정책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강창민 외. (2017).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평가연구. 제주연구원.
- 고승희 외. (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충남연구원.
- 고승희. (2013).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연계 방안. 충남연구원.
- 김도형. (2020).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민행복도 조사를 위한 지표체계 제안
- 김동영 외. (2017). 전라북도 행복지표 조사 및 정책연계 방안. 전북연구원
- 김미옥 외(2016). 전주형 행복지표 개발 조사연구. 전주시.
- 김선아 외. (2018). OECD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 행복역량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22권 제1호: 1-28.
- 박금식 외. (2011).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노동. (2017). 대전형 행복지수 구축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변미리 외. (2017).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우창빈. (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1. 155-183.
- 유나영 외. (2015). 한국인의 행복 개념 탐색연구. 한국민족문화(55), 197-230.
- 이성규. (2016).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한녕 외. (2019).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나라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사전요인 분석. 지식경영연구 제20권 제2호, 137-153.
- 최용환 외. (2015). 도민행복의 재발견 행복지수 연구. 충북연구원.

황규선. (2012). 강원도 행복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강원연구원.

황규선. (2014).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한 도민 행복 증진 방안 연구.
강원연구원.

국가통계포털. kosis.kr

대전시청 홈페이지. www.daejeon.go.kr

부산시청 홈페이지. www.busan.go.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 www.kcti.re.kr

부록-설문지

부록-설문지

ID			
----	--	--	--

전라북도 행복지표 개선 및 행복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의 개선과 행복정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은 크게 행복지표의 영역별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문항, 그리고 현재 지역주민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행복의 정도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복지표는 크게 10개 분야(경제, 가족, 건강, 사회관계, 문화여가, 복지, 안전, 주거, 환경, 정서)로 구성되었고, 각 분야별로 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복지표의 분야와 각 분야별 세부행복지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전라북도의 행복지표 개선과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귀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5월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영

전문연구원

송용호 (☎063-280-7186)

II. 행복지표 영역별 우선순위

A. 10대 영역별 중요도(우선순위)

A1. 전라북도 행복지표의 10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대 영역	① 경제적 만족	⑥ 복지서비스 만족
	② 가족관계 만족	⑦ 지역사회 안전 만족
	③ 건강 만족	⑧ 주거여건 만족
	④ 사회적 관계 만족	⑨ 환경 만족
	⑤ 문화여가활동 만족	⑩ 정서적 만족

10대 영역 중 가장 중요한 영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주십시오
(중요순위부터 1순위~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B. 영역별 행복지표의 중요도

B1. 행복지표의 영역별 세부지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문항	행복지표 영역	영역별 세부지표
B1_1	[경제적] 만족분야	① 고용안정성 ② 소득만족도 ③ 직업만족도
B1_2	[가족관계] 만족분야	① 가족관계 만족도 ② 가족과의 접촉 빈도 ③ 가족의 건강
B1_3	[건강] 만족분야	① 건강 만족도 ② 스트레스 정도 ③ 의료서비스 만족도
B1_4	[사회적 관계] 만족분야	①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② 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 ③ 이웃에 대한 신뢰도
B1_5	[문화여가활동] 만족분야	①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② 일과 여가의 균형 ③ 여행 만족도

문항	행복지표 영역	영역별 세부지표
B1_6	[복지서비스] 만족분야	① 자살충동정도 ② 사회보장 만족도 ③ 노후준비정도
B1_7	[지역사회안전] 만족분야	①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②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 ③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B1_8	[주거여건] 만족분야	① 내 집 마련의 가능성 ② 주거환경 만족도 ③ 이웃과의 소통 정도
B1_9	[환경] 만족분야	①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 ② 환경에 대한 만족도 ③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결도
B1_10	[정서적] 만족분야	① 주관적인 행복감 ②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 ③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 정도

C. 행복도 현황

C1. 귀하께서는 **연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만원

C2. 귀하께서는 하루 24시간 중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시간

C3. 귀하께서는 건강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 ① 하지않음 ② 월 2~3회 ③ 주 1~2회 ④ 주 3~4회 ⑤ 주 5회 이상

C4.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
1.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① 없다 ② 있다
2. 갑자기 많은 돈 을 빌려야 할 경우	① 없다 ② 있다
3.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 가 필요한 경우	① 없다 ② 있다

C5. 귀하께서는 **여기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 **여기활동**이란 직업상의 일, 가사일, 수업 등 의무적 활동시간을 제외한 **스포츠, 취미, 관광 등의 활동**을 의미하며 **독서, 음악감상, 컴퓨터게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① 하지않음 ② 매일 ③ 일주일 2~3번
 ④ 한 달 2~3번 ⑤ 한 달 1번 ⑥ 몇 달 1번

C6.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보험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아동수당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의 여건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나빠졌다 ② 약간 나빠졌다 ③ 변화 없다
 ④ 약간 좋아졌다 ⑤ 매우 좋아졌다

C7. 귀하께서는 다음의 **안전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구분	전혀 안전하지 않다	별로 안전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교통사고 분야	①	②	③	④	⑤
화재 분야	①	②	③	④	⑤
범죄 분야	①	②	③	④	⑤
자연재해 분야	①	②	③	④	⑤
감염병 분야	①	②	③	④	⑤

C8. 귀하께서는 **주거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

* **주거환경**이란 상업시설, 공공기관, 대중교통, 문화시설 등 에 대한 **접근성, 소음, 청결도, 보행안전** 등 거주지역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의미함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C9. 귀하께서는 전라북도의 **미세먼지가 좋은날**이 한 달 기준으로 **며칠 정도**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달 30일 중 () 일

C10.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기본연구 2020-03

2020 전북형 행복지표

발행인 | 김 선 기

발행일 | 2020년 7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89-9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